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

# 예수님의 공생활

*In Conversation with GOD*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스 지음



# 예수님의 공생활

부제: 하느님과 대화나누기

초판: 2021년 8월 15일

저자: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스 신부

번역: 노희성

기획 및 편집: 이낙희 신부

내지 및 표지디자인: 조성은

인쇄 및 전자책: 조성은

# 예수님의 공생활

# 목차

## 36 고기잡이의 기적-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 순종의 힘

- 1 순종은 강하게 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2 순종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 3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 46 참행복

### 역경 속의 평화

1.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 2 선한 이들의 반대
- 3 이해 부족에서 얻는 열매

## 55 원수를 사랑하여라

### 선한 일들의 공로

## 4 하느님과 대화나누기

1 선한 일들에 대한 초자연적 상급

2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공로

3 하느님께 우리의 일상생활을 봉헌합시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공로를 쌓읍시다.

## 64 좁은 문

### 공변되고 보편되며

1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합니다.

3 주님께서서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 72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 충만한 은총

1 마리아의 영혼은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찼습니다.

2 마리아께 은총이 넘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특권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3 마리아께서는 모든 은총에 대하여 가장 충실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 81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 1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사람들을 돕고 돌보기
- 2 사도직에서 인내와 성실성
- 3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방을 전파하기

## 90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 1 부르심이 요구하는 것들: 즉각적인 자기 봉헌, 떠남,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 ...
- 2 충실의 증거
- 3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덕들

## 99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 평화의 강물처럼

- 1 우리 주님께서서는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시러 오십니다.
- 2 폭력과 근심은 죄의 결과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 105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 하느님의 침묵

- 1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께 도움을 청하며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 2 하느님에 대한 신뢰
- 3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 115 마귀들과 돼지 떼

### 농친 기회들

- 1 주님께서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2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 뜻이 우리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분 뜻을

3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 찾기

## 125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 고행하는 습관

1 고행은 사랑의 결과이며, 사랑을 더욱 키웁니다.

2 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이룹니다.

3 다른 고행들. 고행의 정신.

## 134 단식 논쟁 - 새것과 헌것

### 새 포도주

1 거룩한 은총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영혼. 새 포도주 부대.

2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고 새 은총들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3 고해성사: 내적 생명을 키우는 수단

## 143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찾기

1 교회를 사랑하고 따르고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2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3 교회에 대한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 153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2

### 죽음과 삶

1 우리가 피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죽음

2 영혼의 죽음인 죄. 죄가 미치는 영향들.

3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영혼의 생명

## 162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그리스도의 기도 - 우리 자신의 기도

1 하늘로부터,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결실을 거둡니다.

2 기도의 열매들

3 소리 기도

## 171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사제직에 대한 사랑과 존경

1 사제의 신원과 사명

2 하느님 신비의 관리자인 사제

3 사제를 돕는 방법.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사제에 대한 존경심.

## 180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2

교회의 초자연적 사명

10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합니다.

2 교회의 사명은 초자연적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인간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자비의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189 박해를 각오하여라

### 슬기로운 순박함

1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두 가지 덕, 곧 슬기로운 순박함은 서로를 완전하게 합니다.

2 조언 구하기

3 그릇된 슬기로운

## 198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 진리에 대한 사랑

1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2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기.

3 중요한 일에서건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서건 언제나 진리를 말하십시오.

## 208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 부모 그리고 자녀의 성소

1 온전한 자유로 그리스도 따르기. 성소는 크나큰 영예입니다.

2 누구나 집과 부모를 떠나야 하는 때가 옵니다.

3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기

## 216 버림과 따름

### 양심 성찰

1 그리스도 추종과 자신을 아는 것. 양심 성찰.

2 성찰하려는 의지. 겸손. 신심 실천으로 게으름 극복하기.

3 방법과 자세. 참회. 결심.

## 225 버림과 따름2

## 하느님에 대한 사랑

1 홀로 하느님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적 사랑도 승화되고 고귀해집니다.

2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도 없고 측량할 길도 없습니다.

3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234 탐욕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지기

1. 오로지 하느님만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지상 삶은 짧게 지나갑니다 . 하늘 나라를 얻으려면 고귀한 지상 것들을 이용하십시오.

3. 하느님과 관련하여 시간의 올바른 사용, 초연함 .

## 242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 죄를 슬퍼함

1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유다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2 슬픔의 열매들

3 슬픔은 우리가 청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참회 행위들.

## 251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 우리 아버지 하느님

1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

2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

3 그리스도와의 일치, 하느님 자녀됨의 결과

## 259 내 명을 메어라

### 우리 주님의 명은 편하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2 우리는 슬픔, 역경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쁨과 용기로써 역경에 맞서기.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 268 내 명예를 떼어라2

###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웃 돕기

1 그리스도의 모범

2 우리는 연민과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죄와 무지의 짐

3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서고 우리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276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 당신의 손을 뻗으십시오

1 하느님께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인이 되는 데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2 우리의 투쟁은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가 손을 뻗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 지도에서 제시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3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 284 주님의 종 예수님

###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다

1 그리스도의 관대함과 자비

2 예수님께서서는 길 잃은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3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동정, 이해 그리고 자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 293 요나의 표징

### 신앙과 기적

1.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좋은 마음가짐
2. 진리를 알고자 하는 바람
3.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하기. 우리 자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게 하기.

## 302 예수님의 참가족

## 예수님의 새 가족

1.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치는 그 어떤 인간적 유대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과 일치시켜 주는 그 유대는 우리의 타고난 가족과의 유대보다 강합니다.
2. 우리 소명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초연함과 개인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3. 예수님의 새 가정인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십니다.

## 310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 1 씨와 길. 내적 성찰이 부족하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 2 돌밭과 가시덤불. 초자연적 삶 안에서의 초연함과 희생의 필요성.
- 3 은총에 대한 응답. 열매 맺기.

### 죄의 결과. 고해성사에 대한 사랑.

1. 죄의 결과
2. 소죄에 대한 싸움 . 고해성사에 대한 사랑.

## 326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 절제의 덕

1. 육신과 모든 창조물의 존엄. 절제의 덕의 필요.
2. 절제 수련을 통하여 인간은 더욱 인간답게 됩니다. 세상 재화로부터 초탈하기. 좋은 모범을 보이기.
3. 절제의 표현

## 333 가라지의 비유

### 거짓 교리의 가라지

- 1 가라지 비유의 중요성
2.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교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좋은 씨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를 없애야 합니다.

## 341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 반죽 속 누룩

1. 그리스도인들은 반죽 속 누룩처럼 세상을 그 안에서부터

바꾸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2. 좋은 모범

3.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가 우리를 사도로 만듭니다.

### 349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 매우 가치 있는 보물과 진주

1. 하느님의 부르심은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이며 큰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2.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에게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3.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관대한 응답

### 357 그물의 비유

#### 큰 그물

1. 그물은 의인과 죄인들을 둘 다 포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 교회는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소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 3. 성덕의 열매

## 365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 인간적 측면을 뛰어넘어

1.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기를 내기
2. 인간적 측면을 극복하는 것은 용기의 덕의 일부입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우리의 좋은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 373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 1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권능과 힘으로 가르치십니다.
- 2 매일의 복음 읽기
- 3 복음 읽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 383 세례자 요한의 죽음

## 말할 때를 알기

1. 필요할 때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고 암묵적 동의를 피하십시오.
2. 일상 삶에서의 용기와 힘. 신앙과 우리 소명의 요구를 충실히 실천하십시오.

## 387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 안식일과 여가

1. 휴식과 여가의 성화
2. 그리스도인의 여가 자세
3. 안식일 준수

## 395 오천 명을 먹이시다

### 빵을 많게 한 기적.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돌보십니다.
2. 이 기적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신 성체성사의 예형입니다.

3. 우리는 영성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영성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매번 영성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작은 일에 성실한 자세**

1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현세 실재를 성화하도록 가르치십니다.

2. 우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작은 일의 가치.

3.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덜 중요해 보이는 분야에도 성실하여야 합니다.

## **411 외판곳으로 물리가 기도하셨다**

### **질문하는 법 배우기**

1. 하느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자주 기도하여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영적 물질적 재화를 청하여야 합니다.

## 418 물 위를 걸으시다

### 믿음의 사람들

- 1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단 한 발자욱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 2 믿음이 줄어들 때, 어려움은 더 커져 보입니다.
- 3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 427 생명의 빵

### 살아 있는 빵

1. 성체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효과
- 2 자주 또는 날마다 하는 영성체. 성체 조배. 신영성체

### 그리스도를 따르기

- 1 사도들처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목표인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 2 길 위의 표지들. 그것들을 따를 우리의 자유
- 3 참된 자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내맡기기.

## 441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 참된 정결

- 1 깨끗한 영혼
- 2 일상생활에서의 결백
- 3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잦은 고해의 역할

## 450 가나안 여자의 믿음

### 겸손의 미덕

- 1 이민족 여인의 겸손
- 2 겸손의 능동적인 특성
- 3 겸손의 길

## 460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이야기하기

- 1 귀먹고 말 더듬는 이의 기적적 치유
- 2 우리는 종교적 무지의 상황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3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영적인 방향 제시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468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2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3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 478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 우리 삶의 십자가

1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금욕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현대의 이교와 무조건적인 물질적 행복의 추구. 고통에 대한 두려움

3 인간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 487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 사랑과 십자가

- 1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 2 고통의 의미와 열매
- 3 고행을 추구하십시오.

## 496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

### 믿음의 힘

- 1 믿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 2 장애물이 클수록 은총도 큼니다.
- 3 행동이 따르는 믿음

## 505 성전 세를 바치시다

### 성전 세

- 1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2 초기 그리스도인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표양

3 사회의 선의를 결정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기

## 514 되찾은 양의 비유

### 잃어버린 양

1 하느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 하느님께서서는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3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 523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 가정 기도

1 우리 주님은 가정 기도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2 가정 내 신심 행위들

3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무르는 가족: 목주 기도.

### 우리가 하느님께 진 빚

1 주님께 받은 셀 수 없는 특은들

2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감사 행위입니다.

3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 모든 잘못을 언제나 용서하기

## 540 혼인과 이혼

### 혼인과 동정

1 혼인, 그리스도인의 성소. 혼인의 존엄, 단일성, 불가해소성.

2 동정의 많은 열매와 사도직의 독신

3 거룩한 순결, 인간과 하느님 사랑의 수호자

## 549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 어린이에 대한 축복

1 어린이들과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2 어린 시절의 삶과 하느님의 자녀됨

3 영적 유년기와 겸손

## 557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 기쁨과 관대함

- 1 부자 청년. 주는 기쁨.
- 2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며 부르십니다.
- 3 근심은 영혼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내어주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 4 부와 개인의 재능은 공동선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을 살기. 현세적 실제의 성화
- 5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받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 573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 때를 가리지 말고

- 1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세상의 공동구원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 2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 3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살려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 582 혼인 잔치의 비유

### 혼인 잔치

- 1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 2 영성체를 잘 준비하기. 기계적 일상을 피하기.
- 3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 592 가장 큰 계명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착한 사마리아인

- 1 사랑의 첫 표현은 우리 이웃을 신앙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 2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들.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 3 실천하는 참된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보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601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 마르타의 일

1. 주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시다. 예수님과의 우정.

2.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기. 일터에서의  
하느님 현존.

3. 기도와 일

## 609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 행하고 가르치기

1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 행동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 모든  
사람을 위한 훌륭한 행적과 애덕의 증거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3 본보기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심지어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 619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2

### 영성 지도를 통한 순응

1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여정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2 영성 지도에서 초자연적 관점

3 지속성, 진정성, 순응성

## 628 끝자리에 앉아라

### 첫 번째 자리들

- 1 칭송과 명성에 대한 지나친 욕구
- 2 겸손해지는 법
- 3 겸손의 유익

## 637 깨어 있어라

### 깨어서 기다림

1. 양심 성찰
- 2 작은 유혹들과의 싸움

## 643 깨어 있어라2

### 각성과 사랑

- 1 영성 생활은 지속적인 각성을 요구합니다.
- 2 망보는 날
- 3 망보는 날 무엇을 할 것인가?

## 652 열 처녀의 비유

### 사랑의 기름

1 예수님과 이루는 친밀함은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기름입니다.

2 선행의 광채

3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기

## 661 탈렌트의 비유

### 태만의 죄

1 탈렌트의 비유.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관리인이자 주인이 아닙니다.

2 우리는 우리의 탈렌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태만. 사회생활과 공공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 670 색인

# 머리말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다룹니다. 이전에 이 컬렉션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는 이미 세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제목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절대로 사라 지지 않을 말씀" (최후의 만찬과 대사제 의 기도), 그리고 "말씀 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 (부활절 복음 묵상)이며 이 책들은 관련 유튜브 채널 자원 봉사자 분들의 협력을 통해 집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스 신부가 저술하시고 노희성이 번역한 'In conversation with God' 모음집을 각색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간된 책들과는 다릅니다. 저의 역할은 복음서 이야기에 따라 글을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 주제 색인도 도입했습니다."

이 책의 놀라운 특징은 교부들과 고전, 현대, 현대 작가들의 인용문이 풍부하고 교도권에서 인용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 요한바오로 2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 되어서 그의 인용문이 많습니다. 또한 오푸스테이의 설립자인 성 호세마리아의 인용문이 풍부합니다. 페르난데스 신부가 저술하신 글의 출처 일부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로 인용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이낙희 신부

# 고기잡이의 기적-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태 4,18-22); (마르 1,16-20); (루카 5,1-11)

“예수님께서 켄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1)

## 순종의 힘

### 1 순종은 강하게 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배에 앉으시어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다음날 밤의 고기잡이를 위하여 배를 계속 손질하면서 동시에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부터 (요한 1,41 참조) 이미 서로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에 대한 주님의 야심 찬 계획에 전적으로 순명

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까지 그들은 그물망에 붙은 호수의 풀과 흙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본능이 거부 의사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더군다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물망은 깨끗했고, 다음날 밤의 작업을 위해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쨌든 고기를 잡기에는 완전히 부적절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분의 태도, 고귀한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감응에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호숫가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가 배를 띄운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In verbo autem tuo). 이것은 훌륭한 이유입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내면생활에서나 사도직에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침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거나, 완전히 실패했다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 다시 한번 시작하여라, 내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모든 발전과 모든 승리의 비밀은 사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고’, 실패에서 배우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G. Chevrot, Simon Peter, p.16). 명백한 실패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초자연적인 이유들을 위하여, 순종의 정신으로, 당신을 위하여, 오로지 당신만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종의 힘! 겐네사렛 호수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물을 다시 한번 물에 던졌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기적은 날마다 되풀이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629)

우리가 행여 녹초가 되어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 내적 순종으로 - 참된 노력으로 우리가 고해성사에서나 영성 지도에서 받는 충고를 실천에 옮기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성격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순종은 힘을 준다.’ (성녀 데레사, Foundations, Prologue, 2)

**2 순종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고기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풍부한 보상을 받습니다.

복음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 ‘밤에’ 그들의 작업은 허탕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도직 임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인간적 요소들만 따르고자 한다면, 그들은 결국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자기 힘만으로 걷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며, 오로지 자기 판단만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만하다면, ‘여러분의’ 사도직에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밤새도록 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한 평생은 긴 하루 밤이 될 것입니다. 그 밤의 끝에 여러분은 새벽에 빈 그물로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574)

베드로는 어부가 아닌 사람, 따라서 시몬이 하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시몬은 그 일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가 고생하며 보낸 세월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그를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셨고,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신뢰어린 대답은 그의 입문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그에게서 이러한 복종과 전적인 신뢰의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님께서 그의 성소를 위한 토대를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편의나 효율성을 고려하는 외에도 순종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주된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신비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항). 그러므로 스승의 발자국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순종에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쉬운 것들과 대담한 것들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왜냐면 “당신께서는 매우 벅차고 힘든 것들, 곧 십자가상의 죽음에 순종하셨기” (성 토마스 아퀴나스, Commentary on Hebrews, 5, 8, 2)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우리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싶어 하게 합니다. 이 뜻은 우리의 부모님들, 상급자들, 가정, 사회, 직업 생활의 일반적 의무들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특히 우리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은 영성 지도에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법적 권위, 우선은 교황과 교회 교도권에 순수하고 어느 때나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문다면 그분께서는 늘 우리의 그물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아무 성과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조차도 효과적이고 풍부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동과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어, 그것이 아무리 헛되 보일지라도 지극히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중의 하나는 고통과 같은 가장 무익한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R. Garrigou-Lagrance, *The Three Ages of the Interior Life*, II, p.683)

### 3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막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특히 베드로에게 특별히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존엄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어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돌보도록 하셨던 모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일들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갈릴래아의 가난한 어부를 위해 영원으로부터 준비하셨던 놀라운 계획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의 초월성과 가치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 특히 교회의 확고한 초석, ‘바위’가 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데서 오는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심오한 대답, 당신께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순종과 더 많은 복종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언젠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의 완전한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 사도직 영혼 - 가운데서 여러분은 호수에 떨어진 돌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모범으로 여러분은 첫 집단을 이룹니다. … 그리고 또 다른 집단과 또 다른 집단, 매번 더 넓은 집단을 …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사명의 위대함을 이해합니까?” (성 호세마리아, The Way, 831)

하느님을 올타리에 가두려 하지 맙시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 중의 한 명이라면, 똑바로 흔들리지 않게 방향을 정하십시오. …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면, 성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관심을 붙잡아 매고 지체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치고자 한다면, 영원을 위해 바치십시오. 어떤 거친 파도도 어떤 위험한 암류도 단단하게 결속된 여러분의 토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의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 붓고 파도에 맞서 노를 저으십시오. …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의 담대함으로 깊은 물속으로 나아가십시오.” (J. Urteaga, Man the Saint, pp.130-131)

‘바다의 별’이신 우리의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께서서

우리에게 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기를 원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데에 어떠한 특별한 조건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참행복

(마태 5,1-12); (루카 6,20-23)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루카 6,20-23)

## 역경 속의 평화

1.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당신을 참으로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적대자들 또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자기 신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성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서 주님께서 주저 없이 ‘박해’라고 일컬으셨던 적대적 분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러한 박해가 예외적인 것이라거나, 특별한 시기,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마태 10,24-25). 바오로 성인은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2티모 3,12)

그러나 박해는 수치가 아니라 축복, 기쁨, 행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참된 징표이며, 일이나 대인관계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공개적 박해, 중상과 명예 훼손, 또는 더 비밀스러운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어처구니없이 짓밟히며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위협받고 대중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어느 순교자가 이야기하였듯이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더 힘이 들수록, 더 큰 상을 받을 것”(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Letter to St Polycarp of

Smyrna)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느님을 위하여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을 심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주 먼 데서 일어난 일이지만,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한 다음에 기쁘게 최고 의회에서 물어 나온 사도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사도 5,41)

그들은 사도직을 멈추지 않고, 더욱 기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영혼들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리스도와 함께 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왕 노릇하고, 주님없이 기뻐하고, 주님 없이 영광스러워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하늘 나라에 있는 것보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껴안고, 불화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 나라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주님께서 계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 베르나르도, Sermon 17)

## 2 선한 이들의 반대

주님께서도 복음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참된 신앙은,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많은 이기적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G. Chevrot, *The Eight Beatitudes*, p.234).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 되는 동시에, 이교적 성향이 강한 속물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분위기와 부딪치지 않기란 어렵거나,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의 평화, 모든 나라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간청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증상모략 등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일을 보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인이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생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28,22). 우리가 사는 오늘날, 최근 역사이건 지금 이 순간이건,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제들이건

평신도들이건,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하거나,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소외 또는 차별을 당하거나, 자신들의 가톨릭 신앙 때문에 공직이나 교직에서 배제되거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낡은 유물로 간주하는 반면, ‘근대성’과 ‘진보’는 ‘구속하는’ 종교적 이념들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여기는, 똑같은 억압적 분위기입니다.

관용, 이해, 동료애 그리고 평화에 관하여 이토록 많이 듣는 시대에, 공개적이거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중상이나 박해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이 선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또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박해할 때, 그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도직을 중상모략 하거나 훼손하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나 그리스도의 적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사”(요한 16,2 참조)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형제들인 그 불가피한 상황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표현인 ‘선한 이들의 반대’는, 그분 자신이 생애 동안 겪은 고통, 때때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이들의 반대’를 겪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중상모략자들의 동기는 대개 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인간적 감정,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동료 신앙인들의 분명한 의도를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보다는

무분별한 주장을 수반하는 질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선행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남겨두신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편협한 교조주의일 수 있습니다. “선한 이들의 반대 ’는 대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반감, 믿음의 형제들이 하는 일에 대한 다소 위장된 반대, 잘 모르는 것 못지않게 파괴적인 비난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J. Orlandis, *The Eight Beatitudes*, p.150)

아무튼,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충실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지향으로 용서하고 보상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때로는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기구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여 주리라고 기대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255)

### 3 이해 부족에서 얻는 열매

우리는 그러한 반대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격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온갖 불경스러운 불이 제 안에 사랑과 회개의 불을 일으키게 해 주소서.’(같은 책, 1026). 어려움들은 평화를 잃게 하지도 낙심하게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적 성숙과 용기와 사랑, 회개와 보속의 정신, 그리고 이해심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순간들에, 베드로 성인이 중상모략과 박해로 고통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써 보낸 인내롭고도 조용한 글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1베드 3,17)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슬픔의 시간들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기적으로, 다른 때에는 징벌로, 다른 때에는 다시 이 세상의 행복한 사건들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역경으로 개입하십니다.”(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es on the Gospels, 36)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신앙과 확신하는 기도에서 비롯된 희망으로 행복해야 하고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당시에는 치명적 위협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너무도 자주 겪었습니다. 그 위협은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에 들어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원수는 친구가 됩니다. 때때로 그 원수는 그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준 악의 힘을 빼앗깁니다. 때때로 그는 자멸하거나, 그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선한 결과를 낳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간단히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인내하며, 평정을 유지하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헨리 뉴먼, The Biglietto Speech, 1879.5.12)

우리가 과장하지 않고 반대와 어려움들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온갖 덕행을 실천하기에 특별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하느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보속을 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 더욱더 사도직에 투신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교육 부족 또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혼에 더 큰 해악을 입을 수 있는 신심 약한 형제들을 열렬한 사랑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동정 성모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요 따님이시며 배필이신, 우리의 성모님께 의탁하고, 복되신 성삼위에게서 더 많은 은총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은총, 그리고 회개의 은총을 얻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그러면 거칠고 건조한

바람이 당신의 삶에 들이닥쳐 당신 영혼의 꽃들을 마르게 하고 강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꽃들은 시들지 않을 것이며 당신 형제들의 영혼의 꽃들도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227)

##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 5,38-48); (루카 6,27-38)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27-38)

## 선한 일들의 공로

### 1 선한 일들에 대한 초자연적 상급

주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행위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상을 받으리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 10,42 참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실하다면, 날마다 주님께 봉헌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공로를 쌓을 시간입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단지 상급을 받을 뿐입니다. 연옥에서도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미처 보속하지 못한 나머지 죄들 때문에 영혼들이 정화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여기 지상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뿐이며, 아마도 그 날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해 주는 사람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은총의 도움은 불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면 단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초자연적 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영감을 받고 그만큼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단언하셨습니다. “내게 선택받은 이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리라.” (이사 65,23). 하느님을 위하여 한 일들 가운데 헛된 수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여기 지상에서 많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아마도 더 큰 부분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삶을 받을 뿐입니다.” (1코린 3,8).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2코린 5,10; 참조: 로마 2,5-6). 공로를 쌓을 시간은 ‘지금’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내서도 성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들은 투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Epistle to St Polycarp of Smyrna, 1). 이 세상 삶에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 2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공로

“내게 선택받은 이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리라.” 날마다 은총 속에서 우리 주님께 봉헌되는 우리의 일들, 작은 봉사 행위, 온갖 기쁨과 고통과 휴식과 피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지상 생애 동안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무한한 공로 덕분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요한 1,16)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우리가 호응하는 만큼 다른 것들이 추가됩니다.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며,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은총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그 은총의 충만함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은총을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온갖 덕의 원천이시며 뿌리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며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보배를 자신 안에 간직하시지 않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퍼부어 주시며, 그렇게 퍼부어 주신 뒤에도 여전히 충만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보배를 주신다고 해서 결코 손실을 입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덕들을 언제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다고 해도, 그분께서는 똑같이 완전한 상태로 계십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John’s Gospel, 14:1)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혈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토마스 성인은 이것을 성체 찬미가에서 표현합니다. 이 찬미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체 신심과 사랑을 키우려고 묵상합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린 시절이건 나자렛 생활이건 참으로 지상 생애의 그 모든 순간에 행하신 사랑의 행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성화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Saviour*, 365 참조)

아무도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보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공로가 더 위대하며 그분의 행동들은 더욱 칭송받을 만하였습니다. 그분은 탐욕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은총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분의 자유는 더욱 위대하였습니다. 자유는 공로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분의 온갖 희생과 슬픔은, 베들레헴의 가난과 이집트 피난의 불안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아드님을 보시면서 심장에 칼이 찢리는 듯한 고통을 겪으신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칭송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 생애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관통하였던 무한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온갖 기쁨과 행복도 칭송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행위가 칭송을 받는 것은 실행과정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 때문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극복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의 완성이 드러나는 그 정도까지만 칭송받을 만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Disputed questions on charity, q 8, ad 17). 마리아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자주 성찰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 주신 은총에 관하여 성찰하는 것도 우리의 희망을 자라게 하며, 우리가 약해지거나 낙심할 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위해 부족하나마 공로를 쌓으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총의 기적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 내 가없는 영혼이여! 나는 여전히 냉랭하며, 설상가상으로, 거의 관심도 없구나. 나는 마치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의)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방관자와 같구나. 요즈음의 나날은 완전히 무익한 것으로 판명되려는가?

그럼에도, 나의 성모님은 나의 성모님이시며,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선하고 거룩한 영혼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걸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용감하게 주님의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선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251)

### 3 하느님께 우리의 일상생활을 봉헌합시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공로를 쌓읍시다.

“내게 선택받은 이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리라.” 공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상급을 받을 권리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모든 일은 공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공로를 쌓는 때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R. Garrigou-Lagrange, The Saviour, 366 참조). 공로의 본래 의미는 ‘정의에 따라’, 또는 적어도 ‘약속 때문에’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질서에서, 일꾼은 품삯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공로는 엄격한 정의나 약속의 결과가 아니라, 우정이나 존경 또는 존중 때문에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질서에서, 전투에서 탁월한 용맹을 발휘한 군인은 아마도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기는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만일 그가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가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머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면, 그의 지휘관은 일반 규정을 넘어서는 보상으로 경의를 표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 질서에서, 우리의 행위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온갖 영예와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임무를 이행함으로써 영혼 안에서 더 많은 은총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이 가벼운 순간적 고통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 6,20-26 참조)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만일 우리가 올바른 지향으로 제대로 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와 거룩한 미사 때에, 올바른 지향으로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공로가 됩니다. 우리의 일들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공로와 결합된다면, 특별한 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 주신, 또한 성모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공동 구속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어 주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은총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새롭고 무한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자연적 현실을 인식한다면,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질병이나 박해나 증상모략 같은 특별하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우리 주님께 봉헌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자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어려운 때에는 복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카 6,20-26)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렇다면 이때가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키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일을 더욱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은총의 상태에 있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주님과 우정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을 통하여 아들, 형제 또는 친구의 회개를 이끌어 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길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하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합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가까이 놓으신 사람들, 영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열정과 끈기를 지니고 그렇게 행동합시다.

## 좁은 문

(마태 7,13-14; 7,21-23); (루카 13,22-30)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루카 13,22-30)

## 공변되고 보편되며

1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루카 성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길에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하고 질문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승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 본질적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은 수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는 실제로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에 속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하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 모든 하느님의 특근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노력이 깃든 믿음,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궁극적 나라인 하늘 나라에 갈 소명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기” (1티모 2,4)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루카 23,45). 유대인과 이민족을 가르치는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징처럼 말입니다. (에페 2,14-16 참조).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언제나 하나이고 유일한 이 백성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 나가, 처음에 인간 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흩어진 당신 자녀들을 마침내 하나로 모으고자 하신 하느님 뜻의 계획을 성취시켜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3항)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합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루카 13,29).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자주 들어 봤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말을 다시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 1,26)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 사명에서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라시며 그리스도인 성소의 필수적 요소인 사도적 열정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우리가 그러했듯이, 다른 이들이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매우 확고한 책임이 있는 사도가 됩니다.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결합되고 견진 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튼튼해진 평신도들은 바로 주님께 사도직을 받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항).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나이나 배경, 생활환경에 상관없이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위와 같음)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직 열정,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려는 바람은 우리에게 특이하거나 별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 가정이나 사회적 직업적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곧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흔히 조용하지만 언제나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데려가야 하며, 우리의 본보기로써 우리 신앙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명랑하고, 인간의 일반적 운명인 고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말로써 언제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알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용서의 성사에 가도록 도와 줌으로써, 또 다른 경우에는 스승을 저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선뜻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식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로 확고히 들어서도록 도와주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에 대해 들려주었거나 목상을 권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영혼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책을 읽도록 권고하였습니까?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도록 도움을 주었거나, 가정이나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자선에 관대하고, 사람들의 자녀 수에 관대하며, 조건 없는 자기 증여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오는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영혼은 육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Letter to Diognetus, 6)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대해 가정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문화 단체나 스포츠 단체에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주입하는 사람입니까?

### 3 주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세대, 어느 백성이나 민족의 어느 누구도 당신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데 다소 부적합하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듬거리며 이제 막 첫마디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부터 청소년이나 완전히 성숙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노인도 아주 어린 사람도, 우리 이웃에서부터 우리 일을 지시하고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온갖 배경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 팔레스타인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육체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도들의 설교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용기가 없거나 너무 조심하거나 너무 편안한 삶에 젖어 사도직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보편적 사명에 온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를 구속하고 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들—그들의 동시대인들과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이해하고 공유하여야 합니다. ‘혀의 선물’로, 그들이 성령의 활동에 부응하고, 우리 주님의 심장에서 영구히 흘러나오는 저 풍요로운 보화들에 상응하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 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32)

복음화 과업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상, 다시 말해 이미 모든 민족들에게 침투한 호전적인 무신론의 존재 (요한 23세, 교황 헌장, *Humanae salutis*, 1961.12.25), 곧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등을 돌리거나 적어도 하느님을 잊어버리라고 권유하는 무신론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신문, 영화, 연극과 같은 강력한 보급 수단을 이용하는 이념들에 직면해 있으며, 그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필요한 교육도 없이 무방비 상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지극히 행복한 순간이든 위기와 실패의 순간이든, 우리는 오순절 다음 날에 베드로 성인이 들려준 엄숙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잇돌, 구원자,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32)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떠올려 봅시다. 아들딸들, 형제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과 고객들. 이들과 함께 우리의 사도직을 시작합시다. 때때로 우리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해야 할 모든 일에 비해 우리의 수가 너무 적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배가 시켜 주실 것이고,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은근과 끈기, 모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일을 크게 도와 주실 것입니다.

#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마태 7,16-20); (루카 6,43-54)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루카 6,43-54)

## 충만한 은총

1 마리아의 영혼은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찼습니다.

좋은 열매 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의 이중 비교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장되거나 대체될 수 없으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뿐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베다 성인은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의 보물은 나무뿌리와 같습니다. 자기 영혼 안에 인내와 사랑이라는 보물을 간직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다른 덕목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 주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신을 중상 모략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 안에 악의 원천을 지닌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하여 험담을 하며, 주님께서 단죄하신 다른 모든 일을 합니다.” (성 베다,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2:6)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의 마음은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삶도 성모님의 삶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오고, 계속해서 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지극히 고결하신 모태의 복된 열매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하느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미, 가장 하느님 마음에 드는 찬미,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는 최고의 충고를 받았습니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되풀이되는 충고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나자렛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니다. 그

메시지에서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그녀를 위하여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녀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성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께 마치 그것이 마리아의 진짜 이름인 것처럼 “은총이 가득한 이여” 하고 인사합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지상의 이름인 미리암 (마리아)이 아니라 ‘은총이 가득한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왜 대천사가 나자렛의 동정녀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천사가 마리아께 ‘은총이 가득한 이여’ 하고 인사하는 것을 읽을 때, 계시와 옛 약속들이 뒤섞여 있는 복음서의 문맥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복’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특별한 ‘복’ 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께서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 하느님께서 강생을 통하여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분으로 현존하십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도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거룩하신 성령께 영원히 마리아를 위탁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1987.3.25., 8항)

마리아의 품위는 그녀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준비시키실 때 베푸신 첫 은총에서 비롯됩니다. 이 은총으로 마리아께서는 천사들이나 성인들의 품위와는 구별되는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합니다.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신다. 이 뛰어난 은총의 선물로 마리아께서는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앞서 계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Lumen gentium), 53항)

“지극한 선함, 지극한 아름다움, 지극한 웅장함, 지극한 사랑스러움, 지극한 은총이 우리 성모님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91)

## **2 마리아께 은총이 넘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특권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나의 은총이 지닌 선함이 온 우주의 자연적 선함보다 더 위대하고 이야기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1-2, q.113, a.9). 한 어린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영혼 안에 지닌 성화 은총의 가장 작은 양일지라도 온 우주의 자연적 선함이나,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은총은 온갖 기적보다 위대한 하느님의 내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모든 가능한 광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에워싸신 마리아의 영혼은 어떨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존재 안에서 마리아를 만족해하셨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언제나 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니요 딸이요 배필인 마리아를 생각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전례에서, 그 직접적 의미가 창조되지 않은 지혜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성모님께 적용하는 것은 우연이나 일시적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C. Lopez Pardo, *The Ave Maria*, Madrid 1975). 우리는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행복하여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 (잠언 8,23-32)

우리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심오한 길 위에 계신, 은총의 어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히브 서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히브 4,16). 어좌는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께 속하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어좌는 은총과 자비의 어좌입니다. (The Navarre Bible, Epistle to the Hebrews, in loc). 그리고 우리는 고대 전례문에 따라 그것을 마리아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월 22일 미사 입당송(개편 전) 참조).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리아의 보호는 “이천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퍼부어진 영적 강물과 같습니다.” (R. Garrigou Lagrange, The Mother of the Savior). 그 보호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이며, 하느님께서 그토록 크신 사랑으로 심기를 바라셨던 나무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녀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마리아의 무한한 보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분께 의지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자비를 얻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영혼을 채우시고자 하셨던 은총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당신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주시고, 그분의 전 존재를 지극히 아름답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데 최선의 방법은 성모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날마다 하루 종일 성모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자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며, 그리고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분 앞에 나타났을 때

감탄해 마지않았을 마리아의 그 탁월한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우리도 사로잡힙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은 제 사랑의 전부입니다!”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The Glories of Mary)

### 3 마리아께서는 모든 은총에 대하여 가장 충실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매순간 은총을 가득 받으셨고, 이 은총은 날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은총과 초자연적 선물들은 그것들을 받는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영혼은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새롭게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에 대한 더 큰 열망과 더 큰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은총은 더 많은 은총을 초대하며, 은총의  
충만함은 훨씬 더 위대한 충만함을 부릅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창조의 첫 순간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은총들을  
받았습니다. 대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러 왔던 그날에  
마리아께 한 말들이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루카 1,28). 그 시작부터 마리아께서는 모든  
피조물 위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보고 기쁨이 넘치셨고,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성인들보다 더 많이”(비오 9세, Ineffabilis Deus, 1854.12.8. 참조) 초자연적 선물들로 그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인들과 박사들은, 마리아께서 받으신 첫 은총이 다른 모든 존재가 받은 최종 은총보다 더 위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에 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품위는 무한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1, q.25, a.6, ad 4) 이 은총이 마리아께 주어진 이유는 그분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을 그분의 어머니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접촉하셨으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총을 입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께서는,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며 모든 ‘은총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8항). 마리아의 모성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 원칙에 따라 특별히 위대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이가 원천에 더 가까울수록, 그 원천이 주는 효과에 더 많이 참여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3, q.7, a.1).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그렇게 하느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니다. 성모님께서 누리시는 은총의

충만함은 끊임없이 증가하였지만, 특히 삶의 특별한 순간들, 곧 성자의 강생, 탄생, 십자가 희생, 성령 강림, 거룩한 성체를 모실 때에 더욱 강렬하였습니다.

성모님께는 은총의 충만함과 자유의 충만함이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거룩한 만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선물들에 대하여 가장 충실한 응답을 드렸고, 이 응답을 통하여 풍성한 공로를 쌓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들은 지금 그분께로 갑시다.

#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마태 8,16-17); (마르 1,32-39); (루카 4,40-44)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루카 4,40-44)

#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 1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사람들을 돕고 돌보기

그날이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매우 철저히 지키는 안식일은 해질 무렵에 끝이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마르 1,33 참조)고 마르코 성인은 말합니다. 루카 성인은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셨다는 것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환대를 받으며 인간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복음서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군중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에는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도 없습니다. 의사는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암브로시오, *Treaties on Virginity*, 8, 10).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께 와서 치유 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교회의 어떠한 자녀도 무수한 이름 없는 군중들 — 내가 한 때 말했던 집단, 무리, 떼 — 에게 관심을 기울지 않는다면 조용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무기력해보여도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귀한 열정들을 품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그러하셨듯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그들의 의지를 북돋아 줌으로써 그들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901)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지 말고 각 개인의 특별한 상황, 존재 방식,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존중과 예의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역에 관여하면서, 여행 중에, 또는 공통의 관심사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찾으러 가서 하느님께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로 구원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Catena Aurea*, v ol.5. p.238)

이제 기도 중에 우리 이웃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될 결심을 합시다. 예수님께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 고쳐 주시도록 문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그들을 대하는지 살펴봅시다.

## 2 사도직에서 인내와 성실성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와 성실이 요구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친구들과 학우들, 직장 동료들,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을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속량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오랫동안 방해에 부닥칠 것입니다. 이는 원죄의 영향과 그 뒤 인간 자신의 죄가 덧붙여져서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장애가 무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반대에 정비례하여 기도하고, 고행하고, 일하거나 공부하고, 우정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덕택에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호의와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모든 사도직에서 필요한 것은 ‘끈기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체념이나 태평함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추덕 가운데 용덕의 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라는 결과들을 얻음에 있어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 진전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르막을 따라 조금씩 나아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감실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고 계십니다.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도직의 바람을 축복하시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 데리고 오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의 응답이 느리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셨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으며, 또 셀 수 없이 우리는 하느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얼마나 많이 기다리셔야 했는지, 또 얼마나 오래 우리 영혼의 문에서 기다리셨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 얼마나 멀어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며칠만의 만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가 걸린 후에야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대화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지체한 후에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뿔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짧은 걸음도 내딛기 힘들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을 인간적 초월적 상황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지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재봉사도 똑같은 치수의 옷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야보고 성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밤낮으로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땅의 소중한 결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야고 5,7-8)

우리는 친구들, 친지들, 동료들을 매우 끈질기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나쁜 의미에서 ‘타산적’ 되지 말고, 큰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들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적들이 인간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갖은 애를 쓴다면, 그들의 선을 추구하는 우리는 왜 그만큼 하지 못합니까? 주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최선’은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 3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방을 전파하기

그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스승에게서 치료를 받고, 격려의 말과 이해의 몸짓을 받았습니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병자들은 참으로 행복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도 역시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직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서는 늘 하시던 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모든 무지를 극복하고 모든 방법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사방에 복음을 전파할 절박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상기시켜 주듯이, “이러한 사명은 성품 사제나 수도자들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라 세속 사회, 가정, 학교 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양성의 책임에 참여하고, 복음화의 절박성을 느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오로 성인이 말하듯,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Homily in Granada, 1982.11.15.;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33항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분을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게으름과 안락함에 대한 사랑을 극복할 것이고, 우리 각자가 자신을 위해 짓고자 하는 상아탑에서 벗어날 것이며, 수많은 눈 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수많은 귀머슴 사람들이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며, 수많은 불구자들이 그분 곁에서 걸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관조합시다. 그들을 하느님계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급우들,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들, 우리가 여행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지녔던 수많은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납니까? 우리는 지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이웃들이 그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들려주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이나 악은 매우 큰 파급 효과를 지닌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직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멈춰서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같은 방식이 될 수 없음을 마음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도들이 되어, 그들이 만났던 “길ियो 진리요 생명” 이신 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러 사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정에, 그들 마을에, 요컨대 그들이 갔던 모든 곳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태 8,19-22) (루카 9,57-62)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57-62)

##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 1 부르심이 요구하는 것들: 즉각적인 자기 봉헌, 떠남,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 ...

루카 성인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세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이 예루살렘과 골고타까지 가시는 긴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새로운 제자는 차분한 성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너그러우신 주님께서서는 그가 부딪힐 일을 다짐해 두시려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상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끊임없이 가고 또 오는 것이며, 어느 계절에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 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모두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하며, 그들의 헌신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두 번째 사람은 직접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십니다. 그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라는 초대에 기꺼이 응하지만, 곧바로 따라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로서는 처리해야 할 집안일도 남아 있으니 다음번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탓하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봉헌의 시기를 훗날로 미룰 만한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선택하신 때가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기쁘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초연하게 본능적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실 때, 그분께 헌신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해도 아마 그분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에 대한 응답을 질질 끌며 미루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환경에서 부르십니다. 오늘 기도를 바치는 가운데, 과연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께 즉각적이고 초연하고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 2 충실의 증거

루카 성인만이 세 번째 제자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 제자는 먼저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쟁기에 손을 댔고 주님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긴박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부족합니다. 수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루고, 뒤돌아보고, 약속된 투신에 조건들을 다는 것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장래 유망한 제자에게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임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쟁기를 다루는 일과 견줄 수 있습니다. 쟁기는, 특히 갈릴리아 호숫가의 거친 토양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은 도구입니다. 일단 쟁기 손잡이를 잡으면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 12,2 참조) 경기가 일단 시작되면 선수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결승선까지 가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쟁기질하는 사람은 쟁기가 향하는 목표점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만일 그가 뒤를 돌아본다면 똑바로 고랑을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상황에서, 또는 임무 수행을 가로막는 주변 상황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오히려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생활방식 때문에 충실함이 기본 가치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성덕이 우리에게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너무 머나먼 목표라는, 희망의 부족에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첫 열정이 사그라진 뒤에, 의심과 주저함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공부, 가족, 재정 상태에 관하여 걱정하며, 무엇보다도 이 일이 과연 투신할 만한 일인지, 혹시 그 일에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 아닌지, 또 인생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합니다. ...

그러한 두려움들은 악마가 심어 놓은 유혹이거나, 또는 여러분 자신의 관대함이 결여된 데서 생기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2000 년 전에 통렬하게 이러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 (성 호세마리아, Furrow, 133)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후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호히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해서 커다란 진보를 이룹니다.

“뒤돌아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60 참조)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후회의 표지이며, 세상 것들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났음을 가리킵니다.” (성 아타나시오, Life of Saint Anthony, 3) 그것은 확고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미온적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더욱 고귀한 부르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도록 허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헛된 상상과 후회를 하면서 뒤에 두고 온 것들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것은, 돌덩이에 쟁기 날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고랑 파는 일은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시는 초자연적 소임에서, 그렇게 위험에 빠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그분 안의 온갖 고귀한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시편 16,5-11) 생명의 길은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써 묵상해야 하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 3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덕들

성령께서 루카 성인을 통하여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므로, 우리 자신도 하느님에게서 받은 부르심에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따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한 자신 안에 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의미와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자유롭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각자를 위하여 세우신 특정 계획을 삶 안에서 이행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궁극적 성취를 발견하거나 길을 잃습니다.” (J. L. Illanes, *The World and Holiness*)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원천을 발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친밀하게 살도록, 기도로써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의 뜻을 살피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을 존엄한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형제애를 실천하며, 사도직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으신 그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제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매일매일 작은 일들에 충실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이루는 온갖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충실함은 수많은 주요 덕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덕들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기가,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대한 상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겸손의 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 2,33 참조) 우리도 진흙으로 된 발을 지녔습니다. 지혜와 성실은 겸손의 결과입니다. 박애와 형제애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경향, 자신 안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아 줍니다. 극기의 정신은 우리를 절제와 진지함으로 인도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맞서 싸우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정신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땅히 피해야 하는 부당한 보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아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줄곧 길을 서두르는 사람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것이지만, 그래도 도착은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테레사, Life, 19:5)

하느님, 저희는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온 생애 동안 의지하는 중심축이시며, 저희의 온갖 행동이 수렴되는 중심점이십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면, 저희의 삶은 고장 나서 균형을 잃고 서서히 멈추고 마는 기계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치면서, 가장 충실한 동정녀이신 성모 마리아께 의탁합니다.

#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루카 10,1-12)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 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루카 10,1-6)

## 평화의 강물처럼

1 우리 주님께서서는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시러 오십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어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게 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기적이 되풀이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눈먼 이가 시력을 되찾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죄인들이 참회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직 사명으로 그들을 보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서는 친히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메시지를 거듭 선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요구하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평화’라는 말을 그토록 자주 말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처럼 평화가 세상에서 더 떨어진 시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민족과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은 평화와 무관하다”고도 합니다. “전쟁, 또는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평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종 갈등, 계급 투쟁이 있습니다. 이념 투쟁과 정당 갈등이 있습니다. 테러와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납치와 암살 시도, 불안정, 폭동, 분규, 폭력이 있습니다. 분노와 비방과 비난을 낳는 증오가 만연해 있습니다.” (F. Suarez, When the Son of Man comes) 그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 평화롭다!’ 하고 말합니다. (예레 6,14 참조) 사회나 가정이나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거기에 평화가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긴장과 폭력이 있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라면 왜 우리 영혼들은 그토록 많은 근심과 슬픔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마 세상은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조용한 삶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평화가 인간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필리 4,7)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선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루카 2,14 참조). 곧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와 이에 따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평화를 일구고’ 영원히 전쟁에 매여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 안에서 분투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라는 권고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느님께서 정복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사회, 세상을 위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할 때, 나와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은 정복한 자들의 점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승리자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102). 그때 우리는 참 평화의 담지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중한 보화로 평화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친구들과 전 세계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 **2 폭력과 근심은 죄의 결과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한 처음에 원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모든 것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도록 질서 정연하게 안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증오, 분노, 몰이해, 불의와 같은 것들도 없었습니다. … 그 첫 번째 죄와 잇따른 개인적 죄들이 더해져,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타락의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폭력과 불의는 각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984.12.8). “인간이 하느님과 자기 형제자매와 자기 자신을 거슬러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무질서”는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자기 양심 깊숙이에 분열과 깊은 비통함과 불안을 조장하고 이것이 사회생활의 관계망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는 또한 사랑의 위대한 역량을 지니고 기꺼이 희생하려는 관대한 인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형제애의 감정과 봉사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은 ‘평화의 강물처럼’(이사 66,12) 더 의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그 의로운 세상에서 평화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게 하고 모든 사회 구조에 스며들 것입니다.” (Blessed A. del Portillo, Homily, 1985.3.30). 폭력이 죄의 결과이듯 평화는 성화 은총의 결과입니다.

평화의 온전한 미래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984.12.8. 3항 참조) 죄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 모습을 “더럽히고 일그러뜨리고 약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에 상처 입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지식을 어둡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이를

파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증오를 향한 길을 열었으나 사랑하는 인간의 역량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뒤엎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F. Suarez, When the Son of Man comes) 이러한 연유로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릴 때 악으로 기울어 가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은총의 도움으로 이 무질서한 걱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 주신 평화를 소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을 이겨 내고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하여 기쁘게 분투할 것이고, 그 와중에 그는 낙관주의가 충만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또 자신의 비굴한 성향과 협상할 경우, 그는 확신을 잃고 불안과 심지어 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향한 폭력의 원천이 됩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삶의 난관들이 우리 영혼의 안정을 위협할 때 그리스도께 갑시다.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분투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고해 성사로 영성 지도로 갑시다.

#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마태 8, 23-27) (마르 4,35-41) ; (루카 8,22-25)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태 8, 23-27)

## 하느님의 침묵

1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께 도움을 청하며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떠들썩한 환호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적에는 과시도 요란함도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도 그들이 받은 은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분은 하느님 나라가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겨자씨와 반죽 속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서는 당신 말씀의 신비스러운 힘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분은 또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로데와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시며 보이신 침묵은 숭고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주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흥분한 군중의 고함소리 가운데서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격분하여 으르렁거리는 인파 앞에서 침묵을 지키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무심함도 아니고 자신을 공격하는 가엾은 피조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다리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인내로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여 마지막 저주를 발설하려고 힘을 비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매달려 계신 분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새롭고 결정적인 자비의 때를 활짝 여는 은혜로운 통로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려고 결정한 사람들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니다. 가끔 그분은 침묵하시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당신 피조물들의 나약함을 배려하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때때로 그분이 침묵을 지키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마태 8, 23-27) 우리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배가 얼마쯤 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극도로 지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심지어 배를 부술 듯이 강타하는 파도조차도 그분을 깨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마치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안 계신 듯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이 주무시는 장면은 이곳뿐입니다. 대부분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바람에 맞서 배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으며,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셨고,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어떠한 역경 속에 있더라도 굳건히 붙들어 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고,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평화와 환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비록 아무 말도 없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분은 그들의 주님이시오 하느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의 영혼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종종 풍랑 한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 곧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인 교회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아주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거나 심지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을 보고 계시면서 힘 있게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결코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였으며, 곧이어 사도로서 임무를 시작하였을 때 박해를 당하고 이교 사회에서 그들의 사도직 활동을 이해받지 못하는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으며, 더욱더 사도직 수행에 전념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 2 하느님에 대한 신뢰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큰 풍랑과 싸웠지만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는데도 주님께서 주무신 것은, 자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하느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과 비견되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개인들과 교회 자체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휘몰아쳐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힘을 체험할 것이고 확신과 평온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에 싸여 자신들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분은 가장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배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빈약한 성과와 근심, 시련, 몰이해와 유혹들 때문에 생기는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 가장 확실하신 분에 대한 신뢰심도 흔들립니다. 약한 신앙은 신뢰심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려움이 클수록 하느님의 도움도 더욱 강력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사도직 활동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건 그리스도인 소명을 완수하려고 애쓸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와 평온함이 가득한 우리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큰 파도 때문에 겁먹은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 다른 때에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루카 12,4)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당신의 현존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루카 1,30)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20)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루카 2,10)하고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사랑의 다른 형태, 곧 그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각 상황에 필요한 어떤 인간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떤 시련에 부딪히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용기와 특별한 평온함을 얻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생각을 날마다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그분은 저 멀리 떨어져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모든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친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친구는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만일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또 그분께 등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온갖 역경, 곧 빈곤, 눈물, 증오, 불의, 불명예 등이 축복이 되기를 빕니다! …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717) 그리고 테레사 성녀도 충분한 시련을 겪은 뒤에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의탁하고 마음에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녀 테레사, *The Foundations*, 27, 12) 주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당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 3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일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곧 자녀나 배우자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 중상과 비방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는 내적 생활에서 자기 포기과 사도직에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아마도 지금, 그들의 의도와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좋은 기분은 사라지고 건조함과 슬픔의 감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아니고, 마치 그들의 곤란한 입장에 중립적 태도를 취하시며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침묵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은 우리가

더욱 열렬하고 올바른 지향으로 기도하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그분 팔에 의탁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실제 몸으로 현존하고 계신 그분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적어도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약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뢰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날마다 그분께 가서 그분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간절하고 끈기 있게 청하십시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의 크신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나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겠지만, 그분은 마지못해서라도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잔잔해져라.’ 그러면 거기에 위대한 고요함이 흐를 것입니다.” (Blessed J. H. Newman, Sermon for the Fourth Sunday after Epiphany, 1848.1.30) 우리 영혼은 시련 한가운데에서도 평온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굳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외적 평화와 영혼의 평화를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를 정화하는 귀찮은 일들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우리는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곁에 천사를 두시어 우리를 돌보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욱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불러 예수님께 대신 말씀드려 주거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특별 봉사를 해 주도록 청하십시오.” (성호세마리아, The Forge, 931)

## 마귀들과 돼지 떼

(마태 8, 28-34), (마르 5,1-20); (루카 8,26-39)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마태 8,28-34)

## 농친 기회들

1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의 땅,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쉴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러 온 마귀 들린 사람 둘을 고쳐 주신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처에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있었고, 마귀들은 자신들을 쫓아내시려거든 그 돼지 떼 속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 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기네 고장에서 떠나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아까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자신을

그들 가운데 모실 수 있었지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지방에 다시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떠나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은 하느님께 얼마나 푸대접을 합니까! 매우 빈번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재화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느님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애쓰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위한 자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들끼리의 합작 사업 분야에서 하느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여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화해와 참회□, 1984.12.2., 14항)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바로 그분을 제외시킵니다. 고통, 기쁨, 생명, 죽음, 일 등의 의미에 빛을 내려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제외시키는 일,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형태는 달라질지 모르나, 요컨대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가 하느님과 그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을 보통 무신론이라고들 합니다.” (위와 같음) 초자연적 진리를 거부하거나 배제하도록 부추기는 태도의 내면에는, 세상의 재화들을 그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하는 근본적 실천적 물질주의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인간 활동의 최정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와 소유, 지성, 진실한 사랑, 우정, 각자의 소명에 따른 정결한 사랑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도, 우리 영혼 속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치 파수꾼처럼 언제나 깨어 있기를 바란다고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 **2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 뜻이 우리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분 뜻을**

실행하기를 바란다면 떨쳐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라사인들은 돼지들 치던 이들에게 기적 이야기를 듣고 또 마귀 들렸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 그리고 특히나 그들의 영혼에 어떤 재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선익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돕는 존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획 실현을 돕도록 기다리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E. Boylan, *This Tremendous Love*, p.192)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며, 그들이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장애물을 부딪쳤을 때, 어떤 물질적 재화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재화를 잃은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매주 자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오실 때에 최고의 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 속에 오시기를 바랐겠지만, 오히려 그분은 폐허 또는 실패 한가운데서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실패는 우리가 게을러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참회 행위와 굳은 결심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패는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인간적 초자연적 방법을 모두 사용한 다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오십니다. 하느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얼마나 자주 다릅니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일 때가 그 순간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까? … 그렇다면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762 참조)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에 부딪혔을 때마다 몇 번이고 그것을 기도로 봉헌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되풀이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축을 잃은 것, 그러한 물질적 손실에서 배워야 했던 초연함이 그 이방인들의 회심의 출발점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다 지방의 첫 박해에 따른 신자들의 흩어짐 이후에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관계없는 조각들로 보였던 분리된 사건들과 상황들이 서로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때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 8,28) 만일 우리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일들, 불쾌한 일들까지도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면, 만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재능, 건강, 명성, 야망, 승리, 그리고 성공을

향한 자기 욕심마저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겠다는 숭고한 지향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떨쳐버리려면 한 가지 규칙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따르면 됩니다. ‘주님, 무슨 일이든 오직 당신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꼬드기는 이기심과 허영심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을 더욱더 열렬히 가깝게 모시도록 이끄는 사심 없는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114)

만일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싶다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무질서한 사랑, 우리가 갖고 있거나 갖고 싶어 하는 사물들에 대한 집착, 우리 자신의 생각들과 의견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세운 계획 등) 온갖 무질서한 사랑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하게 보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나 그 일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 찾기

돼지들이 때죽음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돼지 치는 사람들은

아마도 고을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고을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주님을 만난 여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지 않고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위로의 말씀, 그녀가 살아오면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 온갖 고초와 무익한 지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그렇게 끔찍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적 악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참회로써 죄에서도 가장 달콤한 결실, 곧 그리스도를 새로 만나 영혼이 활기를 되찾는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On the Falseness and Brevity of Life*, 6)

그러한 명백한 악들 (질병, 탈진, 고통, 재정 파탄 등) 뒤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뻗어,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어 내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병환자는 자신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처럼 삶의 불행들은 우리 마음을 향한 끊임없는 부르심입니다.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요한 11,28)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때때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건강과 생명에 더 많이 집착한다면, 단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선인데도 그동안 아마도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선으로 간주해 온

것들의 상실을 불행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사건들을 안배하십니다.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주 작은 일까지도 안배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계획을 쉽게 떨쳐 버리고 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단 한 영혼이라도 온 우주보다 귀중하며, 우리 삶의 내밀한 곳에서 이루시는 기적들은 물질세계의 온갖 찬란한 경이로움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M. M. Philipo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Madrid, 1983, p.249) 만일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 한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이해하였더라면, 만일 그들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두 사람 안에서 이루신 기적을 알아차렸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준 재정적 손실이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고마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 집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잃었던 두 사람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불행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은 질병과 굴욕, 굶주림, 목마름, 실업 등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맙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초와 고뇌와 슬픔을 겪으신 성모님께,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가르쳐 주시도록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마태 9,9-13), (마르 2,13-17); (루카 5,27-32)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9-13)

## 고행하는 습관

### 1 고행은 사랑의 결과이며, 사랑을 더욱 키웁니다.

오늘 미사의 복음에서, 마태오 성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1) 다른 모든 제자들, 그리고 아마도 그의 평생 친구였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러 왔습니다. 바리사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호세 6,6)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희생 제물을 거절하지 않으시지만, 그러한 제물에는 선한 마음에 바탕을 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 특히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위에 생명을 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The Navarre Bible 참조; B. Orchard and others, Verbum Dei 참조)

그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희생 제사에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실리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마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바리사이들이 다른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도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나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들의 질문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안목은 좁다 좁으며, 그들의 판단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주님께서는 외적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선택된 백성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금욕보다 덕행을 더 좋아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의 증거로 참회와 고행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992)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예배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행위들, 특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고행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열망을 주님께 전달해 주는 작은 고행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 깊이 이러한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참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바치는 작은 희생들은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반대로 사랑을 키워 줍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고행의 정신은 부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J. Tissot, *The Interior Life* 참조) 그것은 지상 재화를 사용하거나 향유할 때에 유익하고 고상한 것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과 모든 피조물,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 업무 등에 대한 초자연적 지배를 보여줍니다.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모든 고행은 단순한 궁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표현입니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견디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영혼들에게 속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On the Good of Matrimony*, 21, 25) 그것은 사랑이 많은 영혼들의 몫입니다.

고행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들을 통제하거나 무질서와 과도함에서 오는 불균형을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참된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로마 8,18)을 미리 맛보는 초자연적 생명을 위한 자리를 우리 영혼 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 2 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이룹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우리가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연관된 일들에서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태도, 곧 자비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건 일터에서건, 아니면 어떤 이유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 때문에 우리는 고행을 합니다. 우리의 고행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엄청난 육체적 윤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자그마한 봉사를 하거나 작은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행을 감수하는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낙관주의의 결핍을 이겨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짜증나게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모두 피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 이렇게 하여 우리 존재 안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기애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이 덕목은 심오한 고행 정신의 열매일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 그리고 안락한 잠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모욕과 악담 또는 험담을 견디는 일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On the Priesthood*, 3, 1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처럼 애덕과 연관된 고행에서뿐 아니라 당신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일들에서도 주님을 찾는 길을 알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들은 수동적 고행 (passive mortifications)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심각한 질병이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가족 문제들, 일하면서 만나는 엄청난 장애물 등의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더욱 빈번하게는, 거의 날마다 일터에서 건, 가정생활에서 건, 또는 어떤 특정일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이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소한 일들로 다가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회피해 왔던 바로 그 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주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특별한 반전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할 때에, 우리는 슬픔의 한가운데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마치 불균형과 비통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내적 반항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고행의 또 다른 영역으로는 자신의 임무를 열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 정신적 게으름에 맞서 싸우기, 사소한 일들도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기, 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기, 모든 고된 일에 따르는 피로를 봉헌하기 등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작은 승리들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특히 우리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행으로 우리는 자신을 하느님께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고행이 없다면 우리는 땅바닥에 들러붙어 있게 됩니다. 온종일 작은 희생을 봉헌함으로써 우리 영혼은 기도에 젖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 3 다른 고행들. 고행의 정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봉헌되는 희생을 바라십니다. 고행은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는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행은 오히려 관대함이라는 열린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이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자신에게서 내려놓는 방법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행하는 영혼은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바오로 성인은, 날마다 고행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1코린 1,18) 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상상과 기억을 올바로

통제하고, 불필요한 생각들과 기억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감정과, 단지 즐겁게 지내는 것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행에 힘입어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가오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시각과 그 밖의 감각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방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술에 취하지 않고 음식들에 대하여 절제하며, 기분과 충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육체적 고행들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영성 지도나 고해성사 때 받은 적절한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고행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국가를 위한 의무 수행이나 더 나은 애덕 생활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고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정한 고행 목록을 기록하고, 하루 일과 중 어떤 때에 그 목록을 살펴보며, 제대로 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호천사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자꾸 잊어버리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심을 등한시할 만큼 의롭지 않다면 말입니다. 온종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 온 극기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 강력한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고행하는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몸에 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고행하는 영혼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참된 현실입니다.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0,39) 이것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 단식 논쟁 - 새것과 헌것

(마태 9, 14-17), (마르 2,18-22); (루카 5,33-39)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형겔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마태 9,14-17)

## 새 포도주

### 1 거룩한 은총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영혼. 새 포도주 부대.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고 계셨고,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복음 말씀을 최초로 경청한 그들은 모두 옷을 꿰매는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일에 익숙했던 그들은 햇포도로 만든 새 포도주를 현 가죽 부대에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잘 알려진 이미지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현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형겔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현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신선하고 청년다운 마음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워지기를 열망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새 포도주의 발효력이 현 부대를 터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주신 메시지는 온갖 유형의 관습, 일상, 타성을 허물어뜨립니다. 나중에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지낸 시절을 되새기며 실제 삶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단지 또 하나의 율법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삶은 사도들의 내면에 매우 특별한 자극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으며, 새로운 마음을 지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면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그들 내부에서 꿈틀거렸으며, 오래되고 낡은 태도들을 깨트렸습니다. 예제키엘 예언자가 이미 선포한 바와 같이, (예제 36,26)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다른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베다 성인은 복음 구절을 해설하면서, 오순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동시에 성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성 베다, Commentary on St Mark's Gospel, 2,21-22) 이러한 일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세례성사와 견진 성사를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대, 곧 깨끗하고 정화된 영혼은 언제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좁과 녹으로 채워진 그들을 비워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성 암브로시오, Treatise on St. Luke's Gospel, 5,26)

은총의 새 포도주는 영혼에게 끊임없는 쇄신의 태도를 지니도록 요구합니다. 성덕의 길을 향하여 또다시 출발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내적 젊음의 표지, 곧 하느님과 사랑에 빠졌던 성인들이 지닌 그 젊음의 표지입니다. 새로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배하시는 성령의 영감과 이끄심에 응답함으로써,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갖추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이 충실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청하러 가면서 암브로시오 성인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의 끔찍한 죄들을 없애 주십시오. 당신 사랑의 끈으로 저를 붙들어 매시고 제 안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 하늘에 사시면서 땅에 영약을 퍼부어 주시는 의사를 저는 만났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저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는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제 마음의 슬픔과 제 영혼의 나약함을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제 안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음)

주님,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제 영혼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 **2 회개는 우리를 치유하고 새 은총들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새 포도주, 곧 성화 은총을 영혼에게 부어 주시는데, 이 포도주는 더욱 더 숙성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독해지지 않지만 포도주 부대는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부대가 찢어지면 더러운 통에 쏟아져 포도주를 잃게 됩니다.” (G. Chevrot, *The Gospel in the Open*)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고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작은 죄들 때문에 사랑의 실천에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더 많은 은총을 받기에 부적합해지고 낡은 부대가 됩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의 흉터들, 곧 극복할 수 없는 성격적 결함, 은총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음, 성급함, 타성에 젖은 신심 생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 부족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지니게 하고,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더욱 깊은 사랑의 행위로 한 번 더 하느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혐오를 동반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슬픔은,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고 우정을 깨트리는 등의 범죄에 따르는 불쾌한 마음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것과도 다릅니다. ... 그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명확한 단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하느님의 거룩함과 선을 향한 회심입니다. 그것은 영혼 속으로 새 생명이 돌진하는 것이며, (M. Schmaus, Dogmatic Theology, Madrid, 1963 참조) 다시 한번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가 크건 작건 간에, 그 죄를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우치는 방법도 모르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참된 차원을 부여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실수를 중단할 뿐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죄악을 정당화하고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수많은 잘못과 태만함에 낙담하고 절망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시며, 우리의 온갖 결점과 초라함에도 평화를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발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겸손한 영혼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를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 영혼은 마치 탕자처럼 참된 슬픔에 젖어 하느님께 돌아갈 필요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루카 15,18-19)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곁에 계시는”(성 아우구스티노, Commentary on St John’s Gospel, 15,25) 주님께서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정신으로 영혼은 끊임없이 은총의 새 포도주를 받은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3 고해성사: 내적 생명을 키우는 수단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참회성사를 남겨 주시어,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비록 은총을 잃었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실함, 겸손함,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보속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성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훌륭한 고백을 위해서는 먼저 깊은 양심 성찰이 요구됩니다. 깊은 성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주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합니다. 이러한 양심 성찰은 되도록 감실 앞에서,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 성찰을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셨던 삶과 실제 있었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행위의 선의 또는 악의, 태만함, 흘려보낸 기회들, ...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무게, 용서를 청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에 대하여 성찰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II, 19 참조)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고백의 유효성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는 영혼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고백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사람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 원칙을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신이 지은 죄에 관하여 진지하고 성실하게 회개하지 않고는 어떠한 작은 죄도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일괄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혐오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자주 고해성사는 받는 사람에게는 이 일괄 회개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B. Baur, Frequent Confession)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나약함이 낳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 주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성실하게 사소한 것들이라도 상세히 성찰함으로써 우리의 나약함을 더 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왜? 얼마나 오랜 기간? 그런데 우리는 일반화만큼이나 공허하고 장황한 세부 사항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과 우리 영혼의 실제 상태를 간명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와 같이 거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들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성사가 인격적 행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성사 안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특정한 우리의 나약함에 대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성사는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미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아 줍니다. 이 성사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판결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인 고백은 흔히, 자신이 창피하고 형편없게 보이는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위장하려고 하는 자만과 자기애를 숨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 죄를 고발합니다.’ 식의 고백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욱 인격적인 참회 행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단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비통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잘못들을 겸손하고 간명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해성사를 마친 다음에 혼자서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조용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총 덕분에 저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서 저를 가로막는 그 무엇,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238) 주님, 저는 주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바라셨듯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 삶의 평범하고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한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마태 9,18-26), (마르 5,21-43); (루카 8,40-5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마태 9,18-26)

##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찾기

1 교회를 사랑하고 따르고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기꺼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은,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한, 모든 은총이 흐르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부인도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열두 해 동안 계속되어 온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율법에 따라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수치심까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형의 병에 걸린

여자분 아니라 그 여자가 만진 모든 것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댄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옷자락 술에 손을 댔고, 믿음으로 다가갔으며, 자신이 치유됨을 믿고 알았습니다.”(성 암브로시오,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VI, 56)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보여주시는 질병 치유와 악령 추방 같은 기적들은, 구원이 단지 희망이 아니라 이미 실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심 행위를 미리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 하느님 아버지 곁에 좌정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의 무한한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설립하시어, 우리가 쉽게 보고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마리아의 아들을 바라본 그때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양 떼와 결합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주님 몸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 온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해악을 끼치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오로 성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겪었던 놀라운 일을 똑같이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9,5). 그리고 베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성찰합니다. “그분께서는 ‘왜 나의 구성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능욕을 겪고 계십니다”(성 베다,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loc).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로 (1코린 12,27), 또는 간단히 그리스도라는 말로(1코린 1,13)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서술합니다. (로마 12,5)

교회를 사랑하고 따르고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까지 구원 활동을 계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사적이고 신비로운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 2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 17,5).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희망 사항들을 거부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행동입니다.

수많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육화하신 거룩한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와서 주 예수님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께 속하게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다.” (루카 10,16)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사제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의 유일한 사제직을 온전히 보유하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10) 히브 5,5)

우리 자신이 결합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는 사제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생명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사들을 배령할 때에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 성사들은 우리 영혼에 은총이 흘러 들어오게 해 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사들을 배령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 주신 무한한 공로가 성사들을 통하여 모든 시대의 인간에게 미치며,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확고한 희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성찬례 거행으로, 우리는 그분의 봉헌과 희생을 재현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리고 성찬례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얻어 주신 그 생명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이 희생 제사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부여하신 또 하나의 성사 곧 세례성사에서 갖추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르 16,16).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를 저질러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살아 있는 지체로서 조건을 회복하는 것도 교회라는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3).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가시적 표지인 교회의 성사 생활을 통하여 당신과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비록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에서, 사람이 많으나 적으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고타에는 오직 주님의 어머니와 몇몇 부인들과 젊은이 하나가 있었을 뿐이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심지어 시몬의 배반조차도 그 권한을 철회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이 권한을 장엄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7).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 그리고 그들과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 3 교회에 대한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군중이 그렇게도 만지고 싶어했던 예수님을, 그 당시와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봅니다. 교회의 가르침, 성사들,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스승, 사제, 임금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란 수많은 경우에 그리 명백하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도, 노동하고 피곤해하며 음식을 필요로 하고 고통과 추위와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느님이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너무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처럼 나약하고 응졸하며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갖 결점이 있더라도 세례를 받고 은총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교회 본연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면, 더욱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환대를 받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희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 16,18). 세상의 변덕과 비틀거림에 맞서 시달리는 우리는 ‘견고한 반석’인 교회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느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여긴다면, 어머니이신 교회에도 똑같은 감정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성 치프리아노, On Unity, 6, 8).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머니입니다. 그 생명의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머니는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나쁜 자녀만이 자기에게 존재 자체를 주신 분에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그분에게 입히는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다른 자녀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착한 아들 딸로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이런저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건 없는 사람들이건 그들의 나약함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죄인에게조차 어머니로서 돌봄을 거절하지 않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교회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냉정하고 가혹하고 무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으며, 무관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치 불편 부당하게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처럼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머니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고 세상에 낳으신 그분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복되신 동정녀께서 “교회의 어머니, 곧  
하느님 백성 전체의 어머니, 신자들과 사목자들의 어머니”(바오로  
6세, 1964년 11월 21일 연설)이신 이유입니다. 성모 호칭  
기도에서 자녀다운 효심이 담긴 최신의 보석,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드리는 최신의 찬사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곧,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 2

(마태 9,18-26); (마르 5,21-43) (루카 8,40-56)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지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마르 5,21-43)

## 죽음과 삶

### 1 우리가 피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죽음

예수님께서서는 카파르나움에 한 번 이상 오셨으며, 거기에는 큰 기대를 품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은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오랜 투병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긴급히 만나 봐야 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이 부인의 병은 예수님께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를 위로하시려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이루실 기적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진정한 죽음은 영혼의 거룩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하느님 안에서 깨어 있는 잠 같은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 바오로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테살 4,13) 이 세상 삶 이후에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1테살 4,14.) 주님께서서는 라자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요한 11,11 이하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라자로는 죽었다.” 죽음이 오면, 이 세상 삶에서는 눈을 감겠지만, 참되고 영원한 삶에서는 눈을 뜰 것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시편 30,6) 진정한 죽음은 죄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 분리와 비교한다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는 일시적이고 심지어 사소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 (코린 15,26) 인 죽음은 사실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결정적으로 꺾어내는 마지막 단계가 죽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도록 우리 운명을 안배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비록 죄들을 저질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면, 탕자를 환대해 준 그 아버지처럼 당신을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880)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밤낮으로 당신을 찾고 있음을 아시나이다.

## 2 영혼의 죽음인 죄. 죄가 미치는 영향들.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야이로의 딸이 참으로 죽었고, 그래서 깨울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는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영혼은 거룩한 권능 아래

살아 있고, 육신은 부활 때까지 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죽은 이를,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잠든 이로 부르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성 베다, Commentary on Saint Mark’s Gospel)

육신의 죽음은 절대적 악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유일한 악은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386) 하느님을 결여하는 것이 영혼에게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Spiritual Canticle, 2,7) 중죄에 떨어진 사람은 자신도 잃고 하느님도 잃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닥친 최악의 비극입니다. (Tanquerey, Compendium of Ascetical and Mystical Theology, 719-723 참조) 그는 영혼의 거룩한 생명을 모두 잃고 하느님에게서 완전히 잘려 나갑니다. 그가 온 생애에 걸쳐 쌓은 모든 공로도 상실하며 새로운 공로를 세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악마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며, 덕을 향한 자연적 본성은 약해집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생각까지도 포함한 모든 윤리적 죄 때문에 인간은 ‘진노의 자녀’(에페 2,3 참조)요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제5장) 죽을죄는 물론이려니와 단 하나의 사소한 죄일지라도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극심한 재난보다 더 심각한 무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은 온 우주의

자연적 선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1-2, 113, 9, 2)

죄의 해악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미칩니다. “이른바 ‘죄의 통교’ 때문에 죄로 타락한 영혼은 자신과 더불어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온 세상을 끌어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떠한 죄도, 심지어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죄, 극도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죄일지라도, 범죄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폭력, 크고 작은 해악을 낳음으로써, 모든 죄는 교회 전체와 온 인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Reconciliatio et Poenitentia), 1984.12.2., 16항)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과 그 심각성을 망각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게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를 사소하게 여기는 위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참회합시다.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워서 살려 주실 것입니다.

### 3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영혼의 생명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실제로는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지상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너희에게는 죽은 것이지만, 나에게서는 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 예로니모, *Catena Aurea*, vol.4, p.131)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의 확고한 보호가 아니더라도 죽을죄를 혐오하며 중대한 잘못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한다면, 아주 멀리 있어 보일지라도 죽을죄를 피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 안에서 살기를 열망한다면, 극기 생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경험,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 세월의 길이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자주 고해성사를 하며 지극히 성실하게 영성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지키려면, 심각한 것과 덜 심각한 것,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 사이의 경계를 없애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소죄들을 범하다 보면, 그러한 죄들을 피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영혼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비록 그러한 소죄들 때문에 영혼의 거룩한 생명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약해지기는 합니다. 덕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성령의 고귀한 활동도 효력이 약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소죄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심각한 타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 자체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인간적 선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인 복되신 동정녀께 간청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참된 뉘우침으로 우리의 나약함과 과오들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시내 되어 흐릅니다.” (시편 119,136)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마태 9,18-26); (마르 5,21-43) (루카 8,40-56)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루카 6,12)

## 그리스도의 기도 - 우리 자신의 기도

1 하늘로부터,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결실을 거둡니다.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하고 확신하는 기도 안에서 결합되어 있음을 봅니다. 또한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확신하며 끈기 있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셨다는 것도 적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숨 쉬기를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곤함에 굴복함 없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8,1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청원을 하였으며,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수락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3, q.21, a.4).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자로가 죽은 뒤에, 그의 누이 마르타는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 11,21-22).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들어올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 11,41-42).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루카 22,31-32).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 이들도 진리로 기록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15 이하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몇 시간 뒤에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그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로써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서는 사제의 기도에서 세세대대에 당신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구원의 원천으로서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히브 7,25). 매순간 우리를 포함하여 온 세상은, 그토록 많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나 너무나 적은 응답만을 받으셨던, 당신 성심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Homily, Paris, 1980.6.1). 이제 우리는 더 잘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변호자요 중재자로 남아 계십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Commentary on Psalm 5). 암브로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그분의 기도는 거절당하는 법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성 암브로시오,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8:34).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에서 쌓으신 공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아버지께 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 계시어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신다”(히브 7,25)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니까! 이로써 우리가 바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의 기도와 결합될 수 있으며, 그분의 기도와 더불어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겸손, 신뢰, 끈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온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Saviour, p.351 참조). 더 나아가 우리는 복되신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된 제물로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봉헌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지향으로,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봉헌합니다. (P. M. Sulamitis, Offering to the Merciful Love).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무한한 가치를 얻습니다.

## 2 기도의 열매들

주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생명수가 솟는 샘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42,2 참조).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지니고 생명의길을 따라 계속 걷는 데 필요한 힘과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하나 되어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기둥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지와 지탱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립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순수한 사랑의 작은 조각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거의 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하느님과 영혼 앞에서 더욱 고귀하고, 교회에 더욱 유익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Spiritual Canticle, 29, 2b).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 기도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일을 성화하고, 행동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이며, 우리와 함께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진실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환경 안으로 그리스도를 긴급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강한 긴박함을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매우 학식 높은 사람의 말을 소개하였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영혼들은, 비록 손과 발이 있어도 마비되거나 불구여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몸과 같습니다.”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 Interior Castle, First Mansions, I, 6).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려면, 그리고 그 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나태함에 떨어지게 되고, 기쁨을 잃으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힘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내밀한 대화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찬양하셨으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언제나, 특히 거룩한 미사에서처럼,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성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지금 여기에서처럼, 그분께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들에 하느님을 만나고 마주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또한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고 마칠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거리에서 지인을 향하여 뛰어갈 때 등등, 하루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하느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참으로 다정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는 주님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주 이 호칭으로 감사와 청원과 찬미의 행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고, 다정함과 믿음과 사랑을 담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주님께서서는 삶의 중대한 순간마다 먼저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복음 사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고 성삼위의 친교를 계시하신 것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동안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와 십자가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에서 온 세상의 형제자매들이 모든 차원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면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수행하시는 사명을 위한 힘을 얻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1년 1월 13일 강론)

아르스의 거룩한 본당 신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악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아르스의 본당 신부), Sermon on Prayer). 묵상 기도와 소리 기도, 짧은

기도문들이나 문득 떠오르는 열망들을 통하여 이제 정식으로 사랑과 신뢰로써 하느님께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 주시는 유일자, 하느님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 3 소리 기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묵상 기도 안에서, 소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아마도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만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느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한 인간이시므로 어머니에게서 히브리 전통의 많은 기도문들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기도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신 마지막 기도에서는 시편의 구절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청해야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탁월한 기도, 곧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리 기도는 우리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 기도 덕분에 하루 종일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묵상 기도에서 딱딱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소리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때, 도움을 간청할 때, 보상을 바랄 때, 성인들이 만든 기도문들뿐

아니라 전례에서 쓰이는 기도문,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도문 등 소리 기도를 위한 많은 기도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들에 의지함으로써, 성인들의 통공에 긴밀히 결합하고, 교회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G. Chevrot, *In Secret*, Madrid, 1960)

우리가 더 잘 기도하고 타성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다음의 충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의 그 열정으로 … 그리고 마치 당신이 우리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32)

##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마태 10,1, 10,5-15); (마코 6, 7-13), (루카 9,1-6)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마코 6, 7-13)

# 사제직에 대한 사랑과 존경

## 1 사제의 신원과 사명

세례성사와 견진 성사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0항)고 선언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으로써, 제대의 희생제사 거행에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 업무를 통해서 세상을 성화하고, 하느님에게서 받은 다양한 소명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동참합니다. 예컨대, 주부들은 모성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의 성화에 이바지하고, 병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감수하며 기꺼이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일상 업무와 환경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이러한 일반 사제직을 수행하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품성사를 받고 직무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이 둘째 사제직은 첫째 사제직 위에 세워지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제는 성품으로 축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며, 그분께 자신의 전 존재를 봉헌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을 전해줍니다. 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히브 5,1 참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제의 신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제 안에서는 이런 일이 성품성사에 힘입어 직접적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성 호세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38)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께서는 특히 사제의 인격 안에 계십니다. 각 사제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제는 좋은 일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병을 치유해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사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생활 교령, 12항)입니다. 사제는 우리 주님께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손, 자신의 전 존재” (성 호세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39)를 봉헌합니다. 미사 때에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골고타에서 있었던 바로 그 구원의 희생 제사를 갱신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역사 안에서 현존하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복되신 요한 바오로 2세는 브라질의 성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시며, 그것은 마치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개성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7월 2일 강론). 미사 때에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실체 변화시키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참회성사에서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고권위 있게 아버지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제가 교회의 이름과 정신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으로 말하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직자가 병자들, 어린이들, 죄인들을 사랑과 사목적 배려로써 감싸 안을 때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위와 같음)

사제는 인류에게 물질세계 전체보다 더 귀중합니다. 우리는 사제의 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 2 하느님 신비의 관리자인 사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전령, 예언자, 증인으로서뿐 아니라, 자신의 대리자로서 뽑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한다는 새로운 신원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성덕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고 전합니다 (마르 6,7-13 참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제직으로 부르신 사람을 당신 소유로 삼으시고, 동료들에게 봉사하도록 축성하시며, 새로운 인격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간택되고 축성된 사람은 단지 어떤 순간에만, 예컨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사제인 것이 아닙니다. “사제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직무를 수행하건 일상생활의 저속하고 천한 일을 하건 언제나 어느 때나 사제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새 사람이고 세례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순수하고 단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사제는 자신이 사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제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무엇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언제나 사제의 행동이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존재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나 어느 때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F. Suarez, About Being a Priest , p.8)

사제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전령입니다. 그는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 보내졌고,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도록 세워졌습니다 (1코린 4,1 참조). 이 신비에는 그가 미사 영성체

때에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포함됩니다. 또한 성사들을 통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설교와 교리교육과 고해소에서 하는 거룩한 말씀들도 포함됩니다. 사제에게 하느님의 가장 거룩한 일, 곧 영혼들의 구원이 맡겨졌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며 사절로 세워졌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의 형제들이 발산하는 고요한 인간적 초자연적 품위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정, 지원, 사랑에 둘러싸여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하느님 계신 곳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지상에서 활동했던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관리했던 은총을 그들에게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49)

이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제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그들이 인내로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 모든 사제들이 거룩하게 성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39)

### 3 사제를 돕는 방법.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사제에 대한 존경심.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말하자면, 사제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성의 연장선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동일한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거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힘을 되찾으며, 죽을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해성사로 생명의 은총을 회복합니다.

사제는 세속적 보상이나 명성을 찾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의 일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재판관의 역할도 아니며, (루카 12,13-14 참조) 사람들의 물질적 행복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선의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사제에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또한 그것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언제나 충분한 사제들을 보내 달라고, 참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제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 성소를 위하여, 되도록 우리 가족, 자녀, 형제, 친지들 가운데 사제 성소가 있기를 기도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내려 주신다면 그 가정에는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평신도는 기꺼이, 특히 기도로써 사제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장엄하게 미사를 집전하고, 많은 시간 죄의 고백을 들으며, 병자와 노인들에게 성사를 거행하고, 특히 교리 교육에 열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쁨과 인내심과 관대함과 친근함 그리고 한결같은 활력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낌없이 그들의 일을 돕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제들에 관해서는 오직 찬사만 드려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904 참조)

만일 우리가 때때로 사제들에게서 잘못과 결점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위하여 변명해 주고 노아의 착한 아들들처럼 사랑의 걸음으로 결함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17) 성 호세마리아, The Way, 75 참조). 우리에게는 훌륭한 표양과 기도로, 그리고 적절할 때마다 형제요 자녀로서의 교정으로 사제들을 도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께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다음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사제들에 대한 존경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존경과 존중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맡긴 성혈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제는 평신도와 똑같은 존경을 받는 것에 그칠 것이다. 너희는 사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사제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금지하며, ‘나의 그리스도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Dialogue, ch. 116: 성 호세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38에서 인용).

##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2

(마태 10, 7-15), (마르 6,7-13); (루카 9,1-6)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태 10, 7-15)

## 교회의 초자연적 사명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써 구원 성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온 인류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수확을 위하여 주님께서 파견하신 일꾼들이고,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보내진 종들이며, 잔칫방을 가득 채울 임무를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느님 자신을 대표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루카 10,16).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그리스도의 사명이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확장되는 것은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위에 설립하신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과업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Lumen gentium), 3항 참조)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뽑으신 열두 제자에게 새로운 과업을 이행하러 떠나도록 촉구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마태 10,7-15). 이 첫 번째 파견은 주님의 부활 뒤에 일어날 결정적 파견의 준비요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르 16,15; 마태 28,18-20 참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민에게 메시아가 가져올 선익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하였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실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사고에 맞추어 한 가지 표상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사도 파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하느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알리도록, 그리고 그것의 영적 측면을 드러내 보이도록 사도들을 파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선포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종류의 사회 또는 정치 제도가 바람직한지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로지 세속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구원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살 것입니다. 바로 성인은 똑같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질문한다면, 그는 이렇게 요약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1코린 2,2). 바로 사도가 온 힘을 기울여 이루려고 했던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 사람들이 단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5세, *Humani generis Redemptionem*, 1917.6.15)

예수 그리스도의 성업을 시대에 맞게 계속하는 교회는, 거룩한 설립자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동일한 초자연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2항). 교회의 사명은 온갖 사회 운동과 이데올로기 또는 다양한 단체들의 주장을 초월합니다. 동시에, 늘 새로운 관심으로 모든 인간 문제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며, 인간의 초자연적이고 진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사회 교리를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 **2 교회의 사명은 초자연적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인간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어머니신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로 가르침과 성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운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각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지극히 복되신 성삼위께서 은총을 통하여 영혼 안에 머무르시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세례를 베푸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호세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4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우리 주님께서는 쉽고 편안한 지상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자녀를 영원한 종착점으로 인도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인간적 노력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 사명의 본질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온갖 악의 뿌리를 깨닫고 무수한 불의와 통탄할 만한 상황들, 곧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창조주와 인간 품위를 거스르는 상황들을 개선할 방안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지상 도시의 발전에 대한 투신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뜻과 힘을 부여합니다. 물론 지상의 발전과 하느님 나라의 성장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질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소명은 자신의 현세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조주께로부터 받은 역량과 수단을 활용하여야 할 인간의 과업을 억누르지 않고 오로지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Instruction on Christian Freedom and Liberation), 1986.3.22., 60항)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구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가장 귀중한 선물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행동해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코린 5,14).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세상을 세우는 일을 돕도록 우리를 다그칩니다.

### 3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자비의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 교회가 첫 출발을 하던 날들부터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 신앙을 선포하였습니다. “막대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시대부터 그 이래로, 온갖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을 위하여 그들의 힘과 삶을 투신해 왔습니다. 성인들의 체험과 이웃에 대한 수많은 봉사 활동의 표양은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해방 과업의 자극이며, 해방을 위한 횃불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1986.3.22., 57항). 아마도 오늘날에는 역사의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긴급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부족함, 그리고 가끔은 그들의 무지와 경제적 결핍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합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과의 이러한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그 많은 인간들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12.3., 38항).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각각의 사람을 깊이 존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정의와 자비의 행위 안에서 자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의 사회 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환경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셨듯이’ (사도 10,38 참조) 우리 각자도 그렇게 하였다고 생애의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단지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 여건과 환경에서도 형제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열심히 살때에, 그 모든 행위들과 관계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 나라의 탁월한 선익을 반영하고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일할 때나 쉴 때나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견고히 강화하고, 그리스도인 사랑의 인장 곧 단순함, 진실함, 성실함, 온유함, 관대함, 함께함 그리고 기쁨의 인장을 그들에게 찍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스페인 주교회의, Catholics in Public Life, 1986.4.22., III.)

# 박해를 각오하여라

(마태 10,16-25), (마르 13,9-13); (루카 21,12-17)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마태 10,16-25)

## 슬기로운 순박함

1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두 가지 덕, 곧 슬기로운 순박함은 서로를 완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온 이스라엘에 파견하시며,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과 말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매우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그들이 부딪히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뒤의 말씀을 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마태 10,16). 제자들을 악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의 옷차림을 한 이리들을 알아볼 수 있으며,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 7,15). 이렇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자들은 순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박함으로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박함이 없다면 슬기로운은 쉽게 교활함으로 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강화해 주는 이 두 가지 덕목을 실천하고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순박함은 강직한 지향과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은 언제나 우리에게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제시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슬기로운이란 “하느님을 향하여 가도록 도와주는 것과 가로막는 것을 식별하는 사랑” (성 아우구스티노, *On the Customs of the Catholic Church*, 25, 46)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덕은 사물의 실재를 그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따라야 하는 길에 관하여 확실히 판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흔히 믿듯이, 약삭빠르게 출세하고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양심의 소리와 건전한 도덕의 요구에 부합하게 온 생애를 꾸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기로운이란 하느님께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근본 과제를 완수하게 해 주는 주춧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인간 자신의 완성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78년 10월

25일 연설). 그것은 곧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과 본보기로 우리에게 슬기로우시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 성전에서 말씀을 하실 때였는데, 그분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습니다” (루카 2,47). 나중에 공생애 때에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참으로 슬기로우서, 적대자들이 그분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속임 수를 쓰지 않으시며, 대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은 아주 서서히 메시아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준비와 지식에 맞추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알려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 2 조언 구하기

슬기로우려면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건들과 상황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Three Ages of the Interior Life*, vol. II). 오직 훌륭한 교리 교육, 종교 교육, 수덕 교육으로만, 그리고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기워지는 첫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덕입니다. 이 겸덕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다는 점과,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유념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서나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 우리처럼 하느님을 충실히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의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에게 건전하고 사심 없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86항)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2-2, q.49, a.3). 그러나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자신의 읽을거리 곧 책, 잡지, 신문 등에 관하여 지도를 받을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너무 뻔하고 때로는 애매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갇아먹거나 우리 마음속에 악한 퇴비를 쌓아 나중에 의심과 유혹이 뿌리내리게 할 수도 있는 공연을 보러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유혹은 단지 약간의 겸손함과 슬기로운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순박함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 문제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때에 일들을 바로잡게 해 줍니다. 초자연적 삶에서 겸손함과 매우 밀접한 순박함은, 우리 삶에서 수없이 많이 용서를 청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수한 나약함과 잘못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요한 바오로 2세는, 슬기로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양심 성찰을 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슬기로운가? 나는 일관성과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계획이 나를 참된 선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가? 그 계획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라는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요한 바오로 2세, 1978년 10월 25일 연설). 나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 주신 초자연적 목적 곧 성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제거하는가?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서 조언을 구하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일을 바로잡는가?

### 3 그릇된 슬기로움

만일 사실들을 심사숙고한 뒤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정면 대결을 회피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참된 슬기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직 활동에서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때에 기회들을 흘려 보내고 생기지도 않을 다른 기회들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슬기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 그릇된 슬기로움을 ‘육의 관심사’(10) 로마 8,6 참조)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느님께 드리기 전에 더 많은 이유와 생각을 요구하는 것은 그릇된 슬기로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금 여기에서 너그럽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온전히 투신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도록 핑계들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이란, 담대하게 자신을 내어 놓는 것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느님의 일에 투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미적지근하게 타협점을 찾아내거나, 그럴듯한 이론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게으르고 방관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과 때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서, 비록 그들이 무수한 난관과 시련을 겪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였지만, 끊임없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장 신속하게 퍼트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참된 사랑에 관한 경우라면 열광적으로 크고 작은 일을 실천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 - 그분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 우리는 그릇된 슬기로운, 세상의 슬기로운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명 의식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단지 인간적인 눈으로, 때로는 인간적이지도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시작을 방해하는 세속적 통찰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육의 관심사’를 따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거나 초자연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거나, 상황이 진정되고 좀 더 편안해질 때까지 자신의 책임을 미룰 만한 거의 확실한 명분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마르 3,21. - 영문에는 Matt 3,21으로 잘못 기재)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써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 표현만으로도 그분 가르침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그분이 바리사이들과 타협점에 도달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던 그 사건, 곧 카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성체성사에 관한 가르침을 내리실 때에 조금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 6,1 이하 참조). 영원한 지혜이신 그분은 단지 몇 마디로도 빌라도의 손에서 자유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속의 관점에서는 ‘슬기롭지’ 않으셨지만, 뱀들보다, 사람들보다, 적들보다 더 슬기로우셨습니다. 그분의 슬기로움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므로, 비록 때로는 미쳤다는 말을 듣고 ‘슬기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초자연적 슬기로운 매순간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까운 길을 보여주며, 수많은 친구, 친척 그리고 동료들 데려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행동하시도록 거룩한 용기를 지니고 싶습니까? 성모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겸손의 길을 따라 당신과 동행하실 것이며, 인간적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직면할 때에도, 땅을 하늘에 결합시킨 그 놀라운 응답 곧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응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호세마리아, Furrow, 124)

#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마태 10,24-33), (루카 12,2-9)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태 10,24-33)

## 진리에 대한 사랑

1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결실, 곧 근본적으로 진실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께서 또 하나의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종종 수반되는 불화와 험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증상모락을 당하거나, 그냥 단순히 짜증스러운 반응을 겪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나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제자들이

언제나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하느님의 교육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으며, 조금씩 자신의 진정한 신원과 하느님 나라의 진리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가르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낮에, 지붕 위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설파하는 가르침이 당대에 유행하는 가르침들과 충돌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팽창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깊이 몰입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적 이유로 또는 수줍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대받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조롱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세상, 사람,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이 부당하게 도는 지나치게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 사회의 한복판에서 ‘매복하던 중에 잡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최고의 이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아무런 외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실 때가 왔을 때에, 카야파에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에 대한 공경을 '드러내 놓고'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50)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마땅히 진리에 따라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사회 그리고 인간 존엄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양하게, 곧 혼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음에 관하여, 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정결의 품위와 아름다움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동정과 독신의 탁월성에 관하여, 분별없는 소비와 불공정한 임금에 대한 사회 정의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슬기롭고 사랑이 담긴 선택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랑은 비겁함과 자기 위안의 결과가 아닙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추문 또는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역효과를 낼 때에는 그것은 결코 슬기로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사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하느님과 진리의 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 2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기.

복음서에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몇몇 바리사이의 행태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르 11,27-33).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들이 성실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할 가치도 없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그들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들의 진정한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고, 또 질문에 부합하게 진심 어린 판단을 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이 내놓을 답변들의 결과를 예상하고는 이 특정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답변을 선택합니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폭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굳건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어서, ‘정치’에 헌신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에 관해서라면 모든 일에서 영리하게 추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론에서 더 나아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C. Burke, Conscience and Freedom). 그들의 행위 규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시의적절하고 가장 편리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응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만일 네가 성실해지지 않는다면,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진리를 대면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 사이의 모든 대화는 의미가 없다.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고, 너도 나에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성실함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 진리 또는 양심의 요구가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직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 뵈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음). 이처럼 진리에 대한 근본적 사랑 없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사이 좋게 잘 지내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우선 우리 자신을 성실하게 하며, 깨끗한 양심을 지니게 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만한 무지와 오류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양심을 마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에게 상실해진다면, 하느님께도 성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빛과 평화와 용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은 사전에서 ‘불성실함’의 동의어, ‘두 얼굴의, 은밀한, 얼버무리는, 솔직하지 못한, 교활한’ 등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전을 덮으면서, 주님께 아무도 이 형용사들로 당신을 표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간청하였고, ‘성실함’이라는 초자연적 인간적 덕목을 더욱더 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호세마리아, Furrow, 337)

### **3 중요한 일에서건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서건 언제나 진리를 말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약간의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고 가식적인 삶에 빠져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가장 사소한 거짓조차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어떠한 위선이나 위장이나 표리부동함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사도적 결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약하고, 얼마나 많이 기회주의적이며,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비열한가!” (바오로 6세, 1965년 2월 17일 연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자신들을 교회와 결합시켜 주는 투신의 아름다움과 진지함을 잊고 사는 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최근 몇년 동안 더욱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거짓일지라도 그것을 혐오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상반되듯이, 경건함이 불경스러움과 상반되듯이, 선이 죄와 상반되듯이, 건강이 질병과 상반되듯이, 그리고 생명이 죽음과 상반되듯이, 거짓은 진리와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더욱 사랑할수록, 거짓은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Against Lying*, 3, 4).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초래하기 전에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형태의 거짓말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지혜와 사랑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고 우리 양심에게 거짓위안을 주는 ‘하얀 거짓말’을

조금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III, 30 참조). 우리는 진리를 그 자체로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사랑해야 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선익을 베푸는 일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어리석고 야비한 것으로 여기고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좋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고선인 하느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쉽게 믿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교회를 적대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해로운 소문들을 진실로 여기고 충분히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모색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짓말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에서 그릇된 소문이 비롯되고 또 거짓말을 낳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흔히 그릇된 소문을 부추기는 거짓말과 제대로 냉철하게 겨루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고 결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없는 진리와 빛과 성실함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에서, 가정생활에서, 학업에서, 그리고 여론 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확고하게 충실성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거짓말들을 짜맞추는 일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성무일도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저희의

목소리가, 저희의 영혼과 온 생명이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노래하게 하소서” (성무일도, Prayer for Lauds, 제2주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빕니다.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 10, 34-39), (루카 12,51-53, 14,25-27)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0, 34-39)

## 부모 그리고 자녀의 성소

1 온전한 자유로 그리스도 따르기. 성소는 크나큰 영예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심할 때에는, 아버지 건 어머니 건 남자 친구 건 여자 친구 건 다른 모든 계획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첫 자리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 사이의 어떠한 불협화음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 계명의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따라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너무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보다 뒷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이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소년 시절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카 2,49).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이 말씀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자녀에게는, 특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할 때에, 하느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께 속하여 있음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부모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시면서까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들의 자녀를 쓰실 권리가 있으심을 알게 해 줍니다. (The Navarre Bible, notes to Matt 10:34-37 and Luke 2:49 참조)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대로, “그 부모가 얻은 위안은 자녀의 죽음으로 얻은 것”(성 베르나르도, Letters, 3, 2)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그것보다 더 큰 해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데에는 온전한 떠남이 요청되며, 또한 반쪽짜리 자아포기를 낳는 슬픔이나 후회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요청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자율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반쪽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로 보자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법 합리적인 다른 계획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안에 포함된 자아포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고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 당장은 부모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더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확고히 응답해야 하며, 동시에 이전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다음 사실을

이해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모들에게 그 자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부모의 ‘희생’ 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르심을 응답하여 하느님을 따르는 당사자도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무한한 영광이며, 거룩하고 위대한 자부심의 원인이고, 특별한 사랑의 표지이며, 하느님께서 특정 시기에 보여주셨지만 영원으로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특별한 애정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18). 참으로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가족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축복이요 위대한 영예입니다.

## 2 누구나 집과 부모를 떠나야 하는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더 넓고 더 넓은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심 안에서 풍요로워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써 칭찬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라고 선동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아버지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2-2, 101, 4, 1)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때부터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의 미해졌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들들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덕분에 틀림없이 특별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요 큰 선익입니다.

불러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뜻을 기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들, 어찌 보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거나 - 그러나 다른 일을 맡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다고 하지요! -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들은 비오 11 세 교황께서 암시하신 바 있는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가톨릭 신앙을 뺏내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의 성소를 감수하지 않고 거룩한 부르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대항하는 못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온전한 상태의 성소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지극히 사모해야 하는 영원한 구원과 양심 자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비오 11세, Ad catholici sacerdotii, 1935.12.20).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협력자들’이며, 어쩔 수 없이 조만간 자녀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거나 직업 또는 학업을 위하여 집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더라도 커다란 재앙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때때로 자녀의 선의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는 제일 원인은 부모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어려움을 일으켜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영혼들을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성호세마리아, Furrow, 23 참조)

### 3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기

훌륭한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물질적 행복을 위해서도 커다란 희생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초자연적 행복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고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며 좋은 친구를 얻게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녀들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 줍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혼인한 부부에게 맡기신 사명, 곧 자녀 교육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부모들에게 바라시는 확고한 뜻이며, 자연법의 귀결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수많은 청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그분을 따르는 부인, (마태 15,21-28 참조) 아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 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 (마태 17,14-20 참조). 그리고 죽어가는 딸을 고쳐 달라고 우리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카파르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마태 9,18-26 참조)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결단을 칭찬할 만합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주님께 다가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습니다” (마태 20,20). 그동안의 역사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감히 청원할 꿈조차 꾸지 못할 특별한 은혜를 자녀를 위해서 간청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어머니의 애뜻한 사랑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청을 거절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두 제자를 향하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곧 주님의 잔, 주님의 운명, 주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도록 초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 행복해지고 하늘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소를 성찰해 볼 때, 가장 승화된 성소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정결을 지키는 성소입니다. “동정과 하느님의 나라 사이에는 전적으로 특유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혼인에 대한 이 특은의 우월성을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16항). 부모의 너그러움과

기도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자기 봉헌의 성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성소의 씨앗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드시는 데 부모를 이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자신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 된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최초의 신앙 선포자요 교육자가 된다.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 생활과 사도직 생활을 가르치며, 자녀들의 소명 선택을 현명하게 도와주고, 자녀들에게서 성소가 발견되면 온갖 배려로 이를 길러 주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11항)

그 이상의 일은 부모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어떤 성소가 있는지 식별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은 자녀들의 양심 형성을 돕고, 아무런 강압 없이 자신의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성소가 있는 것은 그 구성원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신뢰의 특별한 표지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기도로써 보호받아야 하는 위대한 보배이며 특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충실한 성소가 싹트는 곳에 복을 베푸십니다. “하느님을 섬기도록 자녀를 봉헌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예요 기쁨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22)

# 버림과 따름

(루카 14,28-33)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8-33)

## 양심 성찰

## 1 그리스도 추종과 자신을 아는 것. 양심 성찰.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맡으려고 할 때, 전체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최고의 소명은, 날마다 일상의 활동 한가운데서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무엇이고 또 그 활용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주님께 자신 있게 그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양심 성찰을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 성찰을 제대로 잘 해낸다면,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하느님을 아는 데 이르기 위하여 내딛어야 하는 첫걸음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Spiritual Canticle, 4, 1)

훌륭한 사업가들은 하루 단위로 대차 대조표를 그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과 손실을 검토하고, 어디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곧바로 제거하고 사업에 더 큰 해악을 끼치기 전에 치료에 착수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는 위대한 사업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활동입니다.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우리 사업에서 참으로 더 이익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양심 성찰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매일매일의 응답을 성찰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하고 거듭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양심 성찰은, 자기희생의 투신으로 더욱 열렬히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하는 준비 단계이며 매일매일의 출발점입니다.” (A. del Portillo, Pastoral Letter, 1976.12.8., 8). 양심 성찰을 깊이 있게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미적지근함의 세균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가 어려울 것이며, 우리가 죄의 기회들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깨끗한 마음,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날마다 매우 진지하게 우리 영혼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 피상적으로 대충 들여다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주의와 영적 게으름이라는 경사로를 따라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을 미지근한 사람으로 만들고, 영혼을 근시로 만들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과 자신의 감정 또는 악마에게서 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와 같음)

우리에게 양심 성찰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가려내도록 영혼에게 특별한 날카로움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결심, 곧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날마다 “성실하게 양심 성찰을 하겠다”(위와 같음)는 결심을 합시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을 가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 2 성찰하려는 의지. 겸손. 신심 실천으로 게으름 극복하기.

하루를 마치면서 대차 대조표를 맞추는 데에는, 하루 온종일 성찰하려는 의지를 기른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훌륭한 은행가는 날마다 저녁때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끊임없이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정확하게 해 낼 수 없습니다. 거래 내역 원장을 훑어보는 것으로 그날 하루 온종일 이루어진 일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St John Climacus, The Ladder to Paradise, 4)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탑을 건설하고, 영혼의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면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벽들, 또는 원수들의 공격에 노출된 측면들, 곧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하는 온갖 결점들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선행들과 더욱더 큰 기쁨을 주는 봉사 활동으로 이끄는 영감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소한 희생을

요구하는 사안들에 너그럽지 못하고, 보통 사람의 범속한 마음으로 대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물질적 재화를 지나치게 중요시하거나, 안락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거나, 하느님과 관련된 일들을 성의 없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어리 영”(성 호세마리아, *The Way*, 236 참조)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악마는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의 문을 닫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 곧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을 변명하게 만들고, 그것이 단지 외부 환경 탓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이 여기도록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 깊이 참되게 알려면, 자주 자신에게 묻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자아인가? ... 나의 슬픔, 성공, 실패 가능성,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인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감사를 드리고자 또는 도움을 구하고자 그분께 의지하는가? 나의 일상 활동을 지탱해주는 동기들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이 가장 빈번하게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하느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찾았는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힘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겸손의 덕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덕목이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양심 성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겸손 덕분입니다.

양심 성찰의 또 다른 원수는 게으름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관련될 때에는 미지근함이라고 불립니다. 게으름의 첫 증상들 가운데 하나는, 양심 성찰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치 농부가 쟁기질은 하였지만 씨를 뿌리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혼 안에는 곧 결점의 엉경귀들과 무질서한 감정의 가시들이 나타나서 은총의 씨앗들을 숨 막히게 할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보아라, 온통 엉경귀가 우거지고 전부 쟁기풀이 뒤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잠언 24,30-31)

우리는 성실하고 깊이 있고 겸손하게 양심 성찰을 함으로써 애덕, 일, 기쁨 그리고 신심 영역에서 우리 잘못의 뿌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겪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은총의 도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 3 방법과 자세. 참회. 결심.

양심 성찰은 단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시작할 때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한 가지 염원을 말씀드리거나 짧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예리코의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가 예수님께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한 그 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르 10,51 참조). 제 영혼에게 빛을 주시어 저와 주님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제가 뿌리째 뽑아 던져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일, 저의 성격, 하느님과의 관계, 저의 기쁨, 저의 낙관적 태도, 저의 사도직,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유쾌하게 해 주려는 배려 등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일단 양심 성찰을 시작하였으면, 우리가 지낸 오늘 하루가 하느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 것인지 성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수호천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울처럼 하느님께 비치는 우리 모습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 Mansions, 1, 2, 9).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성찰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또는 시간별로 그날을 간략하게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위하여 세운 계획의 이행, 더욱 나아지겠다는 전날의 결심, 그리고 영적 지도에서 얻은 충고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신심 행위는 분명히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신심 행위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하여 크나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뉘우침은 양심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개 그것은 간략하고, 단지 몇 분 동안 지속됩니다. 만일 그것이 충실하다면, 우리의 슬픔은 아마도 사소한 두세 가지 (가끔은 한 가지) 특별한 결심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수호천사들에게 더욱 자주 의지하거나, 직장 또는 미사 시간을 더욱 정확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미소를 짓거나, 더욱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더욱 열렬하고 치열하게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 마리아 또는 성 요셉, 또는 성체성사의 형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자주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택하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맡은 일을 제대로 완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극기 몇 가지를 더 잘 수행하는 방법, 또는 식사 시간이나 개인 주문 때에 극기를 하나 더 수행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친구들을 피정에 참석하도록 초대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비록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더욱 깊이 지녀야 하며, 이와 더불어 그러한 결심을 이행하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하느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결심들조차도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좋은 일들을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영혼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며, 내일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려는 열망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버림과 따름2

(마태 10,37-39); (루카 14,25-2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0,37-39).

### 하느님에 대한 사랑

1 홀로 하느님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적 사랑도 승화되고 고귀해집니다.

홀로 하느님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밖의 누구든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기준에 맞추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이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랑도 풍요로워지고 깨끗해지며 쑥쑥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사랑의 능력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성과 한계와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느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인간적 사랑도 더욱 순결하게 승화되고 고귀해집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목숨과 옛 생활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죄로 기울고 죄에 빠지는 무질서한 성향을 떨쳐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추구하려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R. Garrigou-Lagrange, *Three Ages of the Interior Life*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본성 안에 참으로 인간적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모든 것을 간직하고, 각 개인 안에 선한 인성을 보존하기를 바라십니다. 긍정적이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그 어느 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은총이 스며들어 인간 본성 전체를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품격이 올라가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 애고를 죽일수록, 그는 더욱 참된 인간이 되고, 초자연적 삶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총은 우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과 사건에 대하여 지니셨던 태도와 감정을 똑같이 지니게 됩니다. 그분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롭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생겨나고, 더 나은 우리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똑같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적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참된 표현이며 가장 명백한 표현입니다. 은총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현 모습을 유지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벗어 던지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필리 1,21-23)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돌보고 키워 나가지 않는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매달린다면,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은 불타오르고 우리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사 생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려는 항구한 투쟁, 근무하는 내내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휴식 시간 등에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체성사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원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삶은 이미 지상에서 하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 2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도 없고 측량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총의 질서로 들어 올림을 받았기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곧 자신에 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1요한 4,2 참조)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때에 처음으로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성사 생활과 선행으로써 그 사랑을 키워 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부여됩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규범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물건들이 미리 세웠던 작업 계획대로 생산되었는지에 따라 그 완성도가 판가름 나듯이, 인간의 모든 행동도 거룩한 사랑의 규범을 따라야 올바른 덕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간 행동은 선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On the Double Precept of Charity*, Prologue) 은총 속에 사는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에

편안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 사랑의 규범에 따라 평가되고 측정될 수 있습니다. 박애적 사랑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가져다주고, 사랑받는 사람과 일치를 이룹니다. 이러한 사랑의 일치는 하느님 사랑의 탁월한 특성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 의지를 들어 올리고 완전하게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만큼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사랑할 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곧 사랑)이 부족하면 결핍되어 있는 그만큼, 사랑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만일 이 모자람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혼은 마치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 먹을 것을 갈망하는 굶주린자, 건강을 잃고 탄식하는 병자, 또는 기댈 곳 없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자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Spiritual Canticle*, 9:6)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도 없고 측량할 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 22,37-38 참조)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예레 31,3)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단 하나의 절대적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온갖 고귀하고 올바른 사랑들의

원천임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거나,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곧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 저는 제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굶주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78.9.27) 여러분은 제가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와주었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길을 빙 돌아가는 머나먼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비록 그들과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또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 3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요한 4,19) 우리의 사랑이란, 하느님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 놓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그 사랑을 내려 주소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부합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영원히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그들 안에서 보는 것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란 매일매일의 여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부상당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 주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것입니다. (루카 10,30-37 참조)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하느님께로 인도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언제나 가장 커다란 악이므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사도직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표지이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종종 감사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채무자의 비유로써

이것을 묘사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 시몬에게 두 채무자 가운데 누가 그 너그러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루카 7,4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고마워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원천적 채권자이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애정의 본질을 밝혀 주십니다. ‘성체성사’(Eucharist)의 어원을 살펴보는 것도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원적으로 ‘eucharist’는, 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에 대한 감사 (thanksgiving)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우리는 날마다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직면할 것입니다. 성격적 결함, 이기심,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 등등 …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일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자신을 감추시어 우리가 찾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쁨과 슬픔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애정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을 향한 열망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찾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1요한 4,16)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분을 더 단순하고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 가서 애원합시다. “어머니, 저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제가 어머니의 아드님을 찾게 해 주소서, 제가 어머니의 아드님을 발견하게 해 주소서, 제가 어머니의 아드님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의 모든 존재를 바치게 하소서. 성모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기억해 주소서.”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157) 제가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주님, 저의 첫사랑을 더욱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당신의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에게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아니하면 진노하시며 엄청난 비참을 내리시리라 으르시나이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작고 작은 비참이라도 되는 것이랍니까?” (성 아우구스티노, *The Confessions*, I.5,5: 최민순 역, - 고백록 -, 바오로딸, 2011, 36면)

# 탐욕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루카 12, 13-21)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 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루카 12, 13-21)

##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지기

### 1. 오로지 하느님만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 마음은 삶의 초월적인 의미를 신경 쓰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세 재화가 삶의 유일무이한 목표인 것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현세 재화에 집착하는 성향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유산에 대한 물음을 받으시자 이를 이용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의 빛으로 비춘 사물의 참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죽음, 우리 자신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부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마음을 쏟는 일이 어리석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도 사람의 생명 자체도 현세 재화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 그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 체계’를 속으로 하는 혼잣말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기에 자신의 입지가 매우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과 행복의 기반을 이 재산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에게 삶이란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가급적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재화를 자기보다 덜 가진 다른 이들과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가 이처럼 철저하게 물질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계획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아 두어야겠다. …” 그러나 결국, 그의 이 모든 계산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 것이 주는 안전은 깨지기 쉽고 미흡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느님 없이는 결코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다음과 같이 자문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 나라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초연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화를 궁핍한 이들과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직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산을 바치고 있습니까?

## 2. 우리의 지상 삶은 짧게 지나갑니다 . 하늘 나라를 얻으려면 고귀한 지상 것들을 이용하십시오.

그 부유한 사람이 그동안 하느님을 간과해 왔음에도, 하느님께서서는 그가 자신이 선택한 생활 방식에 대해 반추해 보게 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바로 성인의 가르침대로,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히브 13,14).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셈을 치르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사에는 지식, 건강, 물질 재화, 친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힘 등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단 한 번, 아마도 밤도둑처럼 (마태 24,43) 하늘을 가르며 내리치는 번개처럼 (마태 24,27)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잘 준비된 우리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세상으로 떨어지고자 힘쓰고 우리 목적지가 하늘에 있음을 잊을 때 우리는 갈피를 잃고 완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의존하는 이들의 미래를 수호하면서 분명히 이 땅 위를 우리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임을, 공연 속 배우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임금이나 부자로 남지 않습니다. 그 공연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가난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y on Lazarus, 2, 3). 현세 재화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리켜 주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재화는 결코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상 삶은 짧고 유한합니다.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 마냥 죽음을 아직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날 수는 헤아려집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몇 년 이내에, 우리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우리 활동을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애쓰며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에페 5,16).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여 죄를 용서받고 지상 재화에 초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느 날 지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여러 상황에서 죽어가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개선의 시간이 더 이상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죽습니다. 또한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해왔지만 계속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던 이들도 죽습니다. 바로 후자의 사람들이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는” (마태 6,20) 놀라운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 3. 하느님과 관련하여 시간의 올바른 사용, 초연함.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상태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뀌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운명은 지상에서 우리가 한 행실의 결과입니다.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쓰러진 자리에 남아 있다.” (코헬 11,3). 바로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자주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 24,42-44; 마르 13,32-37 참조).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현세 삶의 중요성을 ‘비하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현세 삶은 하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준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내려면,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하고 물질 재화를 선용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생활 방식’은 모두 사상누각입니다.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으로 서 있을뿐.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 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시편 39,7)

이 세상의 재화가 하느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초연한 마음으로 현세 재화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화가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일부 재화가 없을 때 그것이 하느님 뜻이라면 우리의 평화를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창할 때나 아닐 때나 행복한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힘닿는 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와 교육 활동을 증진하며 교회의 좋은 활동에 기여이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숙고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에 우리는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고 써 보낸 바오로 성인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참으로 짧습시다! 견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영혼 깊이 울려 퍼지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부족한 관대함을 나무라고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끊임없는 초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서 사랑하고 베풀고 참회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Newsletter No. 1 인용).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얽매이게 놔 둘 것입니까?

영원한 진리들에 대한 묵상은 죄를 막는 영약이고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의미를 주는 참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 활동과 대인관계에 또 궁핍한 이들을 향한 자선의 의무에 올바른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마태 11,20-24), (루카 10,13-15)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태 11,20-24)

## 죄를 슬퍼함

1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나자렛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을 거주지로 선택하셨습니다. 때때로 복음서에서는 카파르나움을 그분의 고향처럼 언급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갈릴래아와 팔레스티나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 집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들로 선교 여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지역도 카파르나움만큼 그리스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겐네사렛 북쪽 호숫가에, 카파르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서 매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두 개의 번영한 도시, 코라진과 벡사이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지와 축복, 온갖 자비로운 행위에도 그 주민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두 도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꾸짖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벡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마태 11,20-24)

그렇게 많은 은총, 그렇게 많은 기적! 그러나 그 주민의 대다수는 바뀌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항하였습니다.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 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 버리자” (시편 2,3). ‘주님의 계명들을 깨뜨리고, 그분의 명예를 던져 버리자.’ 그동안 시편 2 편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왔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은총과 자비를 퍼부어 주십니다.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고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려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너무도 많은 배려와 관심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낌없이 은총을 베푸신 다음에는,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곧 우리 잘못에 대한 진지한 참회, 고의로 저지른 소죄들과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는 온갖 것들에 대한 철저한 증오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변화해 보려고, 올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부서지고 꺾인 마음”(시편 51,19. 영문에는 시편 51,17로 나오지만 우리 성경에 따라 51,19로 적었음-역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고 온전히 그분께 다가갈 때에 더욱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고의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은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비례하여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누가 비록 타락한 본성이기는 하지만 거듭 그리스도를 만나는데도 그분을 몰라볼 만큼 눈이 멀 수 있다는 말입니까?

## 2 슬픔의 열매들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contrition’(뉘우침)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tritus’(바위로 말하자면, 조각조각 부서진)에서 왔고, 잘못과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이, 하느님을 거슬렀다는 슬픔 때문에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Catechism of St. Pius X, 684-685 참조). 일상 언어에서 우리는 ‘부서진 마음’ 이라는 단어를,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비극에 대한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빛과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성찰할 때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하느님을 찾는 영혼 안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죄 때문에 생겨난 패배감에서 비롯된다고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것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슬픔 곧 뉘우침은 본질적으로 후회감과,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혐오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Session XIV, chap. 4, Dz 987 참조). 그것은 선을 향한 돌아섬이며, 이로써 영혼 안에는 생명이 새롭게 활짝 피어납니다 (M. Schmaus, Dogmatic Theology, VI, The Sacraments, p.562 참조).

우리가 받은 은총에 대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응답을 수없이 소홀히 한 것에 관하여 하느님께 매우 자주 용서를 청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친구는 그의 죄들을 상기시켰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을 간청하였고, 지혜는 그에게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분에 대한 흠숭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R. Lull, The Book of the Friends and the Beloved, p341) 참회성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뉘우침은 그리스도인 영혼에게 특별한 힘을 줍니다. 그것은 희망과 평화와 행복을 되돌려주며, 주님 안에서 심오한 내적 정화와 예민함으로 자신을 잊고 또 자신을 버리도록 해 줍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리 자신의

잘못들과 죄들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구차한 변명 없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극복했던 결점들과 결함들을 발견한다고 해도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부족함을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겸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에게 버림받으실 때에도 그토록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양심 성찰로써 깨닫는 우리의 잘못들을 인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느님에 대한 거역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잘못들에 대하여 하느님 사랑이라는 관점을 등한시한다면, 아마도 쉽게 핑계를 찾으려 할 것이고 죄의 용서에 반드시 필요한 뉘우침, 회개, 속죄의 좋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히 깨끗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갓을 길이 없는 채무자’(마태 18,25 참조)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우리는 거룩하신 하느님 면전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저 세리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 결함들과 관련하여 피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간청하고 필요한 만큼 자주 다시 시작하며, 우리 주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루카 15,18-19). 그러면 “부서진 마음에 가까이 계시는” (성 아우구스티노, Commentary on St John’s Gospel, 15, 25)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둬거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오래전 갈릴래아의 고을들에서 하신 것처럼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우리의 죄들은 뒤에 남겨놓고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사랑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오,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번 더 시작합니다.

### 3 슬픔은 우리가 청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참회 행위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환멸감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그토록 아낌없이 베푸셨지만, 그 은총이 청중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목격한 청중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열정에 넘쳐 때로는 주님을 올바르게 따랐을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데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성령께 뉘우침의 놀라운 은사를 간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심각한 일로 우리 주님을 거역하였다면, 고해성사를 하러 갈 때마다, 양심 성찰을 할 때마다, 그리고 온종일 내내,

우리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애통함을 여러 행위로써 표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거나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는 수모와 치욕에 관한 묵상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참된 슬픔이 반드시 유감스러운 ‘느낌’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슬픔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또한 어떠한 감정적 반응 없이도 하느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어떠한 경험이 없더라도 죄에 대한 참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슬픔은, 먼저 하느님을 거스르는 온갖 기회를 서슴없이 피하는 것이며, 불충실에 대하여 기꺼이 참회 행위를 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속죄를 도와주며, 악한 성향들을 극복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힘을 북돋아줍니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참회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단식, 자선, 작은 극기, 그리고 인생의 역경과 실망을 인내로이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인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들과 죄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언제나 진지하고 기꺼이 고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성모님께 의탁하고 그분 사랑의 징표로서 뉘우침의 선물을 주시도록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심정으로, 담대히 더 간청하십시오. ‘성모님, 저의 생명, 저의 희망이시여, 제손을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만일 제가 하느님 아버지를 불쾌하게 해 드리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한다면,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성모님 제가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성모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며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저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제가 당신 아드님의 지극한 사랑의 뜻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161).

#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마태 11,25-27), (루카 10,21-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마태 11,25-27)

## 우리 아버지 하느님

1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 돌보신다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 복음 말씀대로입니다.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마태 11,27).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그 방식으로 아들도 아버지를 압니다 .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 이러한 앎의 관계에서 신성의 단일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본성적 일치 를 외치심으로써 ,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우리의 관계, 우리에게 대한 성부의 태도, 그리고 특히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 삼위일체의 신비는 계시의 핵심이며, 우리는 그 신비와 더불어 그리고 그 신비 안에서 하느님 부성의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전날 저녁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여 주신 자기 증여와 신뢰를 요약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요한 17,6)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그의 존재 양식을 보여 주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삼위일체 신비의 심오함 , 곧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이시며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적 대화와 설교에서 모두 ‘아버지’

라는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 그분께서는 , 우리의 보잘것 없는 행위에도 보상해 주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우리 선행까지 알아보시는 아버지, (마태 6,3-4; 6,7-18 참조)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아버지, (마태 5,44-46 참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알고 계시고 배려해 주시는 아버지 (마태 7,7-8; 6,25-33 참조) 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 ‘아버지’라는 말은 마치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후렴과도 같습니다 . 이 아버지는 결코 멀리 떠나시지 않으며,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혼자 위험하게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면 ,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때 , 당신은 어떠한 최악의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당신 가까이, 아주 가까이 , 당신의 바로 곁에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애정으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240)

## 2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

하느님께서는, 마치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러는 것처럼 , 우리를 만드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며,

심지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2베드 1,4) 하셨습니다 . 아버지의 희망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 되는 것이었고,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1요한 3,1).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 이 점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주 그분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할 때 기쁨과 믿음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 역경과 고난에 직면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단어 ‘아버지’의 의미를 기쁘게 상기하면서 ‘아버지 , 저의 아버지’ 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아버지’ 하고 많이 부르고 , 마음속으로 홀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 저는 당신의 자녀여서 자랑스럽고 힘이 납니다.’” (성 호세마리아 , Friends of God, 150)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신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 우리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말이지요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다면 ,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한다면 , 우리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보속하고 감사를 드린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당신 자녀로 보아 주실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본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 신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수많은 사랑 표현에 대하여 온힘을 다하여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입니다 . “아버지 , 하늘과 땅의 주님 , 감사드립니다” (마태 11,25). 제 친구들을 성사 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 제 가족을 돕게 하시며 , 영성 지도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고 ,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 정신과 마음을 자주 하느님께 돌린다면 , 하느님 자녀의 본분에 맞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 주님을 찬미하여라 . 내 안의 모든 것들아 ,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 내 영혼아 , 주님을 찬미하여라 . 그분께서 해 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 (시편 102,1-4)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합시다 . 그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8,14).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을 소유하며 , 천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부활을 약속받고 , 덕행의 길에서 확실한 진보를 이룹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Homilies on Romans, 13). 하느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되신 삼위일체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 3 그리스도와 의 일치, 하느님 자녀됨의 결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였습니까 ! 어떤 의미로는 인간이 하느님이 되어 (성 이레네오, Against heresies, 5, Preface) 하느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려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성찰해 보았습니까 ! 우리 선행의 보상으로 성사들 안에서 받은 성화 은총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며 ‘하느님의 자녀 ’가 됩니다 . 하느님 아버지께는 외아드님 한 분뿐이시며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입니다 . 우리는 그분 신비체의 일부분으로서 그분과 하나 되고 동일시됩니다 . 바로 사도께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쓰신 대로입니다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 (갈라 2,20)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의탁할 때 ,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포기할 때 , 이처럼 버리는 마음을 붙여넣어 주신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 우리가 누군가를 성사 생활로 되돌아오도록

힘껏 인도할 때 , 우리의 사도적 정신은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고통으로 , 주님께서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에 맡기신 일과 고통이 완성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과 우리의 슬픔이 지닌 가치를 성찰해 보십시오.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내적 투쟁은 다음의 서간 말씀을 지향합니다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그다음에 우리는 ‘더 많이 ’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 통상적으로 , 어떤 사람이 더 착하거나 더 나쁜 사람일 수는 있지만 ,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아버지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 초자연적 영역에서는 ,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할수록,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 하느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참된 목표입니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 받으신 분이로서 , 하느님의 은총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본보기이십니다 .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성모님만큼 하느님과 가깝지 않았으며, 어느 피조물도 하느님 아버지의 그 따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이끄시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모님께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 의탁하라는 강한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미사에서 , 우리가 아드님의 희생과 일치하여 그분을 ‘인자하신 아버지’(로마 미사 경본 , 감사 기도 제1양식)라고 부를 때에 그러합니다 . “아빠 ! 아버지 !”(갈라 4,6)라고 외치시는 아드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우리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를 “아빠 !”라고 부르며 우리 아버지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에페 3,20) 이신 외아드님을 더 많이 닮아 가며 성장하는 우리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B. Perquin, Abba, Father, London 1990, p.119 참조)

# 내 멩에를 떼어라

(마태 11,28-30)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멩에를 떼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멩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8-30)

## 우리 주님의 멩에는 편하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인, 무거운 짐에 짓눌린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사이들이 복잡하고 상세한 규정들로 그들을 짓이기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15,10 참조)

인간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적한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겁고 쓸모없는 짐들 때문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말고 어떻게 그들에게서 죄의 무게를 덜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s 164, 4) 모든 고백은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죄들은 사소한 죄들조차도 우리를 몹시 지치게 만드는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성사를 받고 나와서, 다시 새롭게 싸울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불안과 욕망의 무거운 짐에 눌러 고통받고 상처입은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던져 버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욕망 때문에 빼앗겼던 안식을 너희 영혼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The Ascent of Mount Carmel, 1, 7, 4)

우리 주님께서서는 죄와 교만과 이기심의 짐을 당신의 명어로 교체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은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s 164, 7). 우리가 짊어지도록 요청 받은 십자가의 사명에 투신하고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께 높이 날아오르도록 해 주는 축복의 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만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어 있다면, 우리의 당면 문제들과 역경들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며, 우리가 악한 성향을 정화하고 덕행을 증진할수록 그분과 더불어 공동 구속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희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잘사는 사람들이겠지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들의 신앙은 죽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참된 길의 확실한 표지인 십자가의 부분적 의미만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마음으로 동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신의 친구는 그 길의 힘든 면만을 본 것입니다. ‘내 명에는 편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마도 그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뜻을 굽힐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198). 그리고 그 또한 거룩함으로 불리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즐거운 길이며, 비록 십자가 아래를 지날 때라도 희망과 평화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방에 외쳐야 합니다. 시련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생산적인 동력입니다.

“별들은 살아가면서 꿀을 모을 때 쓴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대함과 인내심을 수련하거나 탁월한 덕행의 결실을 얻고자 할 때, 쓴 빵을 먹고 고통의 한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III, 3)

## 2 우리는 슬픔, 역경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 고통 또는 걱정 없이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이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멸시당하고 싶지는 않고, 자신의 몫만으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궁핍해지고 싶지는 않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육체적 고행을 하지는 않고, 인내로워지고 싶다고 하면서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덕들을 얻으려고 하는 동시에 그 덕들이 내포하고 있는 희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군인들, 안전한 도시 안에 있으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Moralia*, 7, 28, 34). 수고와 시련이 없이는 덕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들과 걱정들과 슬픔들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견디기 쉬운 것이고, 때로는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다면, 늘 이겨낼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크건 작건 간에,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바친다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려움들 덕분에 우리 영혼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용하시는 문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분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한다면 그 짐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히 중대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질 힘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325)

이 세상 삶에서 시련과 고난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는 베드로 성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베드 4,12). 그러므로 특히 십자가가 풍성한 결실과 행복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종종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분은 ‘가지를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 15,2 참조).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홀로 그 일에 직면하도록

내버려두는 법이 없으시며, 당신 친구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그 곁에 머무십니다.

### 3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쁨과 용기로써 역경에 맞서기.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만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고통이나 슬픔, 재정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느님께서 총애하시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십자가와 더불어 힘차게 그것을 견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생애 말년에 새로운 기반을 찾아 길을 떠났을 때, 큰 홍수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로 없는 누추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성녀 데레사, *The Foundations*, 27, 12)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위는 개의치 말아라. 내가 참된 열이기 때문이다. 악마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술책을 부리고 있다. 너는 열렬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가거라. 그러면 너에게 커다란 선익이 있을 것이다.” (같은 책, 31, 11, p.188).

그리하여 다음날 아를란손 강을 건너기로 결정하였을 때, 나무다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M. Auclair, Life of St Teresa, pp.422-423 참조). 강독에 있던 사람들은 성녀가 타고 있던 수레가 급류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투르게 뛰어내렸고 무릎까지 물에 잠겼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참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주님께서서는 이것까지 제게 보내시네요!”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습니다. “데레사야, 이것이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이란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 친구가 그렇게 적은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네요!” (같은 책, p.423). 곧 성녀와 동행인들은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위험이 지나갔기에,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즐겁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녀 데레사, The Foundations, 31, 17, p.191)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움들을 평화롭고 담대하게 견디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특히 당신 친구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당신의 뜻일 때에 그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도 “엎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명에는 편하고 가장 힘겨운 짐도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들처럼 힘차고 자신 있게 문제들과 씨름하고 해결하도록 도와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상황들을 운동선수처럼 쾌활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과 슬픔들을 지어내거나 온갖 복잡한 시나리오들의 결말을 상상하지 않는 단순한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들은 너무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의 사도직은 쓸데없고 대세에 역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 곧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의 은총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더 큰 선익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신 성모님께서 보호하시는 덕분에, 우리는 영성 지도를 받으며 문제들을 평가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그토록 어렵게 보였던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것처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역경을 대처하는 영혼은 강해지고 너그러워지며 인내로워집니다. 그러한 시련은 우리 자신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 내 멩에를 떼어라2

(마태 11, 28-30)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멩에를 떼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멩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 28-30)

##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웃 돕기

### 1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바리사인들이 하는 행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당신께서 몸소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기울인 모든 노고와 실제로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모든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희생이라면 심한 거부감이 들기는커녕 기쁜 봉헌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몸소 짊어지십니다. 복음들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표양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 당신 자비의 본보기를 남겨 놓으셨습니다.”(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es on the Gospels, 25,6)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이와 나병 환자, 말 못하는 이를 치유해 주시며, 마귀 들린 이에게서 악령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병든 이를 당신께 데려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마태 8,7)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당신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1요한 2,2)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는 일을 삼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품고 있는 걱정거리를 감내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인간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제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눈치껏 자연스럽게 도와주어 어느 누구도,

당사자조차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실제로 이것이 하느님 자녀에 맞갖은 덕행입니다.” (성호세마리아, 길, 440)

우리는 다른 이의 선익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거나 희생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상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덕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한 존중을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도록 고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이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짐을 털어주며 우리가 어느 모로든 도울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회들을 찾게끔 이끕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만큼 결코 다 하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짓누르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털어주려고 언제나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따금 이는 우리의 작은 봉사 행동을 의미할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나 희망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이가 눈을 들어 스승님을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의 상황을 더 긍정적인 빛으로 굽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그저 자기 혼자 대처하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그에게 너무 벅차다고 여겨지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따금 실제로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의 삶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바람, 우리의 경솔한 판단, 부정적인 비판,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부족, 불친절한 말 한마디 등이 있습니다.

## 2 우리는 연민과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죄와 무지의 짐

사랑은 우리가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의 몸값으로 지불된 엄청난 값, 그의 구원의 가늠할 수 없는 가치로 흘린 그리스도의 성혈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1베드 1,18 참조) 우리의 사랑이 클수록 우리는 우리 이웃을 더 소중히 여겨 그의 필요와 슬픔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당신 친히 모든 사람과 같아지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그리스도께서는 애덕을 통해 우리 곁에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신비체의 지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매순간 활동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일치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애덕은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분과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끊임없이 간청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뒤따르며 잡아당기는 모든 악에 슬픔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특히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죄는 어떤 다른 악행보다도 더 인간을 밑으로 끌어당기고 짓누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모든 한계와 나약함을 보시고는 언제나 연민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저 군중이 가없구나. …” (마르 8,2) 복음사가들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를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시대에 이 지상에서 마주하신 온갖 불운에 감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수세기에 걸쳐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인간의 수많은 비참함을 자비로이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 하려면 우리는 스승님께서 가지신 것과 동일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우리가 특히 헤아릴 수 없는 죄악에 시달리는 이들을 향하여 참된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그때 우리는 고해사도직이 가장 큰 자비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잃어버린 아들에게 관대한 용서를 베푸실 기회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이가 이제 고해성사를 보러 간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짐을 털어준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고해성사를 하도록 내가 도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자문해 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특히 우리와 더 긴밀히 연관된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피의 유대를 나누고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 레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분명히 고통받는 모든 이를 보편적인 자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가톨릭 신앙으로 우리와 결합된 이들을 걱정하십시오. 우리는 자연 공동체를 통한 이방인들보다 은총의 일치를 통해 우리에게 속한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대 레오, Sermon 89)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이에게서 무지, 특히 그들 종교에 대한 무지를 덜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무지는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전혀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속적인 상황의 강요 때문에 또는 한탄할 만한 방향 감각 상실과 부주의 때문에 세례 받은 어린이들이 신앙과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또 기초적인 신앙심마저도 전혀 없이 청소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배우지 않은 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을 복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느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J. Orlandis, The Eight Beatitudes)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그리스도교 교리를 접하지 못하거나 오류에 물든 이들은 참으로 무거운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 3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서고 우리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짓누르는 무게를 무엇이든 덜어주려는 진정한 관심만큼 그리스도와 행복으로 이끄는 더 분명한 길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물을 안배하십니다.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충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혼자 충분히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마스 아 켄피스, □준주성범□(Imitation of Christ), I, 16,4) 우리는 모두 서로서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상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호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에 부치는 짐과 씨름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오너라.” 오직 주님만 우리 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만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가엾이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우정을 주십니다. 선에 대한 희망, 우리 아픔을 고치는 치유약과 위로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양분과 빵, 우리 힘과 생명의 원천을 주십니다.” (바오로 6세, Homily, 1977.6.1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성모 마리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 이웃이 필요할 때 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모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관심조차도 언제나 성모 성심을 가득 채운 그 사랑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할 필요성이 더 절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끄는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기 위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바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선 활동과 의로운 활동을 하고, 행복하고 굳건하며, 다른 이들을 향한 이해심이 넘치고 자신을 다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93)

#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마태 12,9-14); (마르 3,1-6); (루카 6,6-11)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꼴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루카

## 당신의 손을 뺐으십시오

1 하느님께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인이 되는 데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리사이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회당을 찾아온 이 병자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된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정확히 실천하려고 노력한 그 순종으로 치유된 것도 사실입니다. 은총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결점이 드러났을 때, 또는 너무 어렵거나 높아 보이는 사도직 목표에 직면하였을 때, 주님께서서는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태도는 주님에 대한 신뢰이고 초자연적 방법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가 내밀한 기도를 바칠 때나 영적 지도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교부들은 “손을 뺐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덕목들의

실천 필요성과 연결 지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자주 은혜를 베푸므로써, 중상모략을 겪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손을 뻗으십시오. 당신에게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며 주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손을 뻗는 방법이며, 당신이 치유를 받는 방법입니다.” (성 암브로시오,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in loc). 우리는 작은 덕행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향하여 작은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이 일을 해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만일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였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그 작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남은 인생을 불구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덕행은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성덕은 세부적인 것들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것들에서, 은총의 힘이 아니면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행동들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마치 돌이나 나무를 다듬듯이, 우리는 거친 모서리를 날마다 조금씩 더 부드럽게 다듬으며, 참회 정신과 작은 극기들로써 우리 삶의 결점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중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완해 주실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03). 참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영혼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손을 뺐는 것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순명하여 따름으로써 협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활력 넘치는 수덕 생활로 이어지고 그 활기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2 우리의 투쟁은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가 손을 뺐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 지도에서 제시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손을 뺐어라.” 당신의 하루를 구성하는 사소한 일들의 영역 안으로 당신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자주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결실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함은 덕행의 실천을 가로막는 반면, 사랑은 그것을 촉진시킵니다. 사랑은 성인들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미지근함은 가장 자그마한 일들 (편지 한 통 쓰기, 전화 한 번 하기, 말 한마디 하기, 하루의 계획을 정확하게 지키기)조차 너무 어렵게 보이게 합니다. 모래알이 산을 이룹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께서 손을 뺐으라고 하셔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손을 뺐지 않으며, 그의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사랑은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덕행들에서 풍부한 초자연적 결실을 이끌어냅니다. 이 사랑은 덕행들을 증진시키고, 결점들을 제거하며, 우리 안에 성덕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닳게 하여 결국은 뚫어 버리듯이, 우리가 선행을 되풀이하면 습관이 되고 덕행의 확고한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선행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덕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욱 발전합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Three Ages of the Interior Life*, vol. I, p.532 참조). 사랑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 덕분에 더욱 힘을 얻습니다. 밝은 얼굴, 미소, 피곤할 때조차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기, 교통 혼잡 상황에서 조금 해하지 않기, 일을 느리게 하는 친구를 도와주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강의 노트를 빌려주기 등...

뿌리 깊은 결점들 (나태, 이기심, 교만 등)은 복음서의 이 장면을 되살려, “손을 뺐어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상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옷이나 책을 제대로 정리 정돈하는 등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소한 일들을 힘써 행한다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르게 봉사하고, 건강 등 개인적 걱정들로 조금 해하는 것을 줄이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만일 좋지 않은 선택을 하였을 때에는 바로 끄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뺐어라.” 우리가 비록 많은 실패를 하였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을 때에 들은 대로 작은 노력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무능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덕에 이르려면,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에 덧붙여 우리의 순종과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짧게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의 누이가 성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영적 지도를 받을 때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순명 정신으로 힘껏 부딪쳐 싸우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 3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오그라든 손을 뺐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는, 우리가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끊임없이 작은 승리들을 거두도록 독려하시는 성령, 우리 영혼 안에서 내밀하게 활동하시는 성령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영혼 안에서 덕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 (장애물 제거, 죄의

기회들을 멀리 피하기, 유혹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단호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하느님께서서는 막 자라기 시작한 덕들을 북돋아주려고 새로운 도움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그분은 이미 은총 덕분에 형성된 좋은 습관들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려는 참된 열망, 구체적 행위들로 실현되는 열망을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내면생활에서 일반적인 관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웅장한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았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수천 수만 장. 그러나 한 번에 한 장씩. 수많은 시멘트도 한 포대 한 포대. 그리고 돌 위에 돌, 각자는 전체 건물에 견주어 사소합니다. 그리고 철근, 그리고 사람들의 노동, 한 시간 또 한 시간, 하루 또 하루 …

저 웅장한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았습니까? … 작은 것들 덕분에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823)

종종 사람들은 성덕에 관하여 말할 때, 아주 거창한 측면들 곧 커다란 시련, 특별한 환경, 심지어 순교 등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수의 예외적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듯이 말입니다. 또 마치 우리 주님께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2등급 신자 생활로 만족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나 바쁜 어머니들,

사업가들, 학생들, 백화점의 사원들 등 모든 사람을 성덕으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테살 4,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인생 환경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뜻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덕들을 자라게 하려면, 하느님께서 종종 중개인들을 통해서 해 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조언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나자렛의 마리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탁월한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쓰시도록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밝히셨고, 성령께서는 그분 안에서 구원 계획을 현실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1년 5월 30일 연설). 우리가 성령께 더욱더 순종하여 매일의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힘씀으로써 덕들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성모 마리아께 도움을 간청합시다.

# 주님의 종 예수님

(마태 12, 15-21)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울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울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마태 12, 15-21)

#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관대함과 자비

복음에서 우리는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아마도 갈릴래아에 있는 더 안전한 장소로 물러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사 42,1-3) 메시아는 정복 군주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해 주는 분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분 사명의 특징은 관대함, 성실함 그리고 자비입니다. 마태오 복음 사가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합니다 (A Catholic Commentary on Holy Scripture, London 1953, 696d 참조). 이사야 예언자는 두 가지의 아름다운 표상을 이용하여 그 메시아의 관대함과 성실함과 자비를 묘사합니다. “부러진 갈대”와 “꺼져 가는 심지”는 인류가 겪는 비참함, 고통 그리고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몸을 구부려 세심한 배려로 곧게 세워주고 갈대에게 필요한 힘과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한 번 더 환하게 불타오르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하여 ‘알려진 치료약이 없어.’ 하고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영성생활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결코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사입니다. 그분께는 어떠한 환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무거운 범죄, 그 아무리 고질적인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치료약을 가지고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개인의 영혼에 숨어 있는 회개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그분은 어느 누구도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자신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자신이 불행하게도 명백히 길을 잃었음을 알게 된다면, 길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러진 갈대 같았습니다. 착한 도둑,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암울했던 밤에 저지른 배반 때문에 괴로워하던 베드로도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충실하지 못했을 때마다 모두 이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고백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드리는지에 관하여 성찰해 봅시다.

**2 예수님께서서는 길 잃은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자비는 사람들이 그분께 보여준 온갖 배은망덕과 증오, 그분이 겪으신 어려움에도 단 한 순간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영혼들의 구원이며,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도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은 아무런 한계도 없으며 온 인류에 미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두 아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요한 10,3 참조. 영문에는 마태 11,5로 나오지만, 내용상 요한 10,3으로 교체-역자) 어느 누구도 산비탈에 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영혼이 제 길을 벗어나면,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그 영혼이 되돌아오도록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먼 거리에서 언뜻 보이는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날마다 주시하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분께 극심한 슬픔을 안겨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서는 그를 자비하신 성심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분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똑

부러뜨려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주의 깊게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죄 때문에 좌절해 있거나 영혼의 거룩한 불이 꺼져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그분은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잘못으로 수치스러운 처지가 된 탕자를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속에 있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막달레나를 받아들여시고 곧바로 당신의 내적 생명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고집스러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착한 도둑에게 하늘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그분에게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R. Garrigou-Lagrange, The Savior)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사랑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이 갈라져 서로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플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오로 성인은 서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1코린 1,13). 논쟁에서 이것이 궁극적 주장입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시며, 당신 자비로 힘을 주시고 섭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이 없다는 생각에 매달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에 낙담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실망시켰는데, 노력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세상에 파견되신 아드님을 믿어야 합니다. (B. Perquin, Abba, Father 참조)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수많은 배려가 필요한 부러진 갈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타오르기에는 거룩한 사랑의 기름이 부족한 꺼져 가는 심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나약하고 결함과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인정하는 한,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 3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동정, 이해 그리고 자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온유함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친구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데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마태 12,21). 그리스도는 세상 구원의 희망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보여주는 무지와 오류와 굳은 마음과 저항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진실한 존중과 이해와 인내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죄인에게 손을 건네지 않거나 형제의 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러진 갈대는 꺾일 것입니다. 또 아주 작은 믿음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 안의 작은 불꽃을 업신여기는 헛불은 꺼져 버릴 것입니다.” (성 예로니모, in *Catena Aurea*)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와 맺은 우정과 관계에서 그들 신앙의 굳건한 버팀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 주고 싶다면, 그들의 나약함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우리는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참으로 존중해 주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강함과 약함, 빛과 어두움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아주 인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야 합니다”(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82). 다른 한편, “우리는 불의를 정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범죄를 하느님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악을 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에 대면하였을 때 다른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건전한 가르침과 착한 행실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충만한 선으로 이겨내십시오 (요한 12,21 참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태도, 곧 이해심도 많은 동시에 의욕도 충만한 태도의 열매는 우리 자신과 그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큰 어려움을 발견할 때에, 그들은 쉽게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의 어떤 작가는, 영리한 사람을 영리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착한 사람을 착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F. J. Sheed, *Society and Sanity*, pp.30-31 참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식하건, 교육 수준이 낮건, 보잘것없건 간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을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과, 불멸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주 성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결점, 잘못된 교육, 그릇된 행위가 더욱 명백할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본보기를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부상당한 여행자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 주고, 사랑의 기름을 부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런 칭찬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어느 누구도 성모님만큼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느님 자비의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또한 그분을 “자비의 어머니,... 신성한 자비의 어머니” (요한 바오로 2세, □자비로우신 하느님□ (Dives in misericordia), 9항 참조) 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성모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당신 아드님처럼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성모님께로 갑니다.

## 요나의 표징

(마태 12,38-42), (마르 8,11-12); (루카 11,29-32)

"그때에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마태 12,38-42)

# 신앙과 기적

## 1.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좋은 마음가짐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신 바를 극적인 표징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신 그들이 당신 죽음과 부활에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징을 이용하시어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요나가 고래 배 속에 있었던 사흘을 언급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드님으로서의 당신 신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당신께서 사흘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사건이 될 것임을 밝혀 주십니다. (The Navarre Bible, St. Matthew, in loc 참조)

하느님께서는 니네베 도시를 회개시키시고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 예언자의 설교에 감화되어 그들의 죄를 참회하였습니다 (요나 3,6-9).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설득하고자 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방여인이 솔로몬 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지혜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상기해 주십니다. 요나처럼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회개한 이 이교인들의

본보기를 언급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더욱더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더 큰 이는 실제로 한없이 더 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절제된 표현으로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The Navarre Bible, 같은 곳 참조)

한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표징과 기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에게서 수많은 설교나 표징을 받았음에도 믿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기적들에 담긴 위대한 가르침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러한 기적들은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가르침은 받는 이의 본성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의 방식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수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요한 12,37). 기적들은 우리 인간적 이성을 도와 믿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가 부족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오로지 어둠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일상 관심사 가운데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판단을 삼가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깨끗한 정신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 2. 진리를 알고자 하는 바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정신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느님 메시지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나쁜 마음가짐의 일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신 기적을 이루신 다음 그 사람에게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묻는 바리사이들의 경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묻는 이들이 자신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요한 9,26-27)

같은 일이 빌라도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는 이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요한 18,38).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등을 돌립니다. 진리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빌라도는 진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여정에 항구할 수 있게 돕는 풍성한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피조물들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저기에 당신의 인장을 새겨 두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 안에서, 기쁨 속에서, 질병 속에서 그분을 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역사는 이러한 표징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밀한 기도 안에서 그분을 뵈는 은총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영성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분을 뵈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들, 대다수의 바리사이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토록 많은 기적들의 목격 증인이었다지만 메시아에게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그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오만 때문에, 편견 때문에, 현세 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안락과 안전에 대한 지나친 욕망 때문에, 향락주의와 관능주의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에 눈 멀어 있습니다.

“저는 일부 지인들이 자신의 라디오 기기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는 그 주제를 영적인 분야로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강한 세상, 너무 강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내면 생활에 대한 주파수를 맞추는 일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계속 대화하는 영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코 저희의 초자연적 주파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510)

### 3.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하기. 우리 자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게 하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당신 생명까지도 나누고자 하시는 벗으로서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걱정시키고 때로는 좌절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하느님의 해결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음파들이 원활한 수신을 방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림돌은 수년에 걸쳐 그리스도를 섬겨 온 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들이 불안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 자기 증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 성찰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보기를 바라는가? 나는 보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가? 적어도 내 삶의 상황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할 마음가짐이 온전히 되어 있는가?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나의 가장 깊은 내적 자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가?

교만은 우리 싸움의 으뜸가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십자가를 본능적으로 혐오하고 안위만 추구하는 환경과 같은 또 다른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수많은 인간적인 구실을 대는 교묘하고 유혹적인 집착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기쁨의 길이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포기도 요구합니다. 이는 영성 지도에 ‘냉정할 정도로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물쇠를 채우고 우리 의지에 제어 장치를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다스리기 힘든 감정들로부터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야가 흐려졌을 때 빛을 알아보기란 매우 힘듭니다.

게으름과 안위에 대한 애착은 우리 싸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가지 걸림돌입니다. 모든 진실한 사랑의 경우처럼, 신앙과 소명에 대한 인격적 투신에는 완전한 자기 증여가 포함됩니다. 게으름과

안락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사랑의 투신을 위태롭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가려져 안 보이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마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겸손으로, 우리 영성 지도자의 조언에 따른 더 큰 포기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극히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더 힘 있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신뢰하여 그의 보호에 자신을 맡긴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J. Dheilly, Biblical Dictionary, Barcelona 참조).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게 하신 이들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주 당신 피조물들을 통해 빛을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계시어 우리가 당신을 찾고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자주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보장하는 탁월한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간청합니다.

“오 주님, 저는 믿나이다. 그러나 제가 더 확고히 믿게 해 주소서.

저는 희망하나이다. 그러나 제가 더 굳은 희망을 갖게 해 주소서.  
저는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제가 더 열렬히 사랑하게 해 주소서.”  
(The Universal Prayer, 클레멘스 11세 교황)

## 예수님의 참가족

(마태 12,46-50), (마르 3,31-35); (루카 8,19-21)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태 12,46-50)

## 예수님의 새 가족

1.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치는 그 어떤 인간적 유대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과 일치시켜 주는 그 유대는

## 우리의 타고난 가족과의 유대보다 강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조차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군중으로 꽉 찬 집안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한 여인이 마리아를 향한 찬미의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견해를 표명합니다.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7-28)고 대답하시며 이 말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당신을 찾아낸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한한 사랑을 담아 매우 분명하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카 2,49).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시절부터 당신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당신 아버지의 일’은 인간적인 모든 것에,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과 의무와 관계되는 모든 인간적 유대에 새로운 차원과 의미를 더하여 줍니다. 이 새로운 차원 안에서는 ‘형제’의 유대도 같은 부모에서 비롯된 ‘육신에 따른 형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모성’ 역시 하느님 나라라는 차원과 하느님의 부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20항)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모든 인간적 유대나 권한의 요구, 심지어 가정의 요구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소명에 더 충실할수록, 예수님과 우리의 유대가 우리의 자연적인 가정과의 유대보다 실제로 더 강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The Navarre Bible, note to Mark 4,31-35). 토마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형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회개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간직하도록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Commentary on St. Matthe w’s Gospel, 12, 49-50)

분명히 혈연의 유대는 강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에 기인한 유대는 더욱 강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인간관계는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맺는 일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 2. 우리 소명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초연함과 개인적인

##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에 따른 어머니에게서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어머니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대로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시도록 내버려 두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비록 이 말씀의 어조로 미루어 그러한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모성은 정확하게 마리아와 관련된다는 데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 구세주의 어머니□, 20항).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가 참으로 육신에 따라 당신의 어머니이시기에 그분을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께서 자신의 소명, 곧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셨기에 더욱더 성모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더 긴밀히 결합하십니다. 이러한 연유로 교회는 우리에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혈육의 관계나 유대를 넘어 하느님 나라를 들어 높이시며, 성모님께서 충실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셨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58항)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소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를 향하여 더욱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초연하기를 요구하시는 때에도 그 마음을 넓혀 주시고 정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소명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지라도, 이 소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더욱 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 걱정하며 예수님을 찾아 다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와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거룩한 이들이었어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보다 이해의 폭이 더 깊었습니다. 따라서 이따금 우리의 친지가 우리 소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에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새 가정이 맺는 그토록 강한 일치의 유대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명의 유대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된 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배반당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더하다” (잠언 18,19). 형제의 도움을 받는 형제는 강한 도성과 같습니다. 그 무엇도 잘 실천되는 애덕이나 형제애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애덕의 힘! 이 복된 형제 정신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나약 함도 여러분이 올곧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카드로 집을 쌓을 때 한 카드가 다른 카드들을 지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 호세 마리아, *The Way*, 462)

### 3. 예수님의 새 가정인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마도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셨거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드님과 당신 자신을 잇는 그 강한 유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유대이고, 더 나아가 마리아께서 성삼위와 이루시는 완전한 결합에 근거한 유대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이 새 가정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영원으로부터 부름 받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리아께서 믿음으로 동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아드님을 낳으셨다면, 같은 믿음으로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 기간에 계시하신 모성의 다른 차원을 깨닫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모성의 차원은 처음부터, 말하자면 아드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신 그 순간부터 마리아께 속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께서는 ‘믿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아드님의 메시아 사명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기에 더 분명해질수록, 어머니로서 자신도 당신 아드님 곁에서 자신의 ‘역할’ 이 될 그 새로운 차원의 모성에 더욱더 열린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 구세주의 어머니□, 20항)

나중에 골고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장차 모든 세기에 걸쳐 그분이 누리실 그 온전한 영적 모성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19,26).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요한을 가리키십니다. 마리아의 모성은 세례 받은 모든 이와 신앙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특별한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마리아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주님의 위대한 가족인 온 교회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C. Pozo, *Mary in the work of Salvation*, Madrid 참조)

강생과 오순절 날 교회의 탄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마리아이십니다. 나자렛의 마리아와 예루살렘 위층 방의 마리아, 두 경우에서 모두 신중하면서도 필수적인 마리아의 현존은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길을 가리켜 줍니다. 이렇게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는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의 뜻과 성령의 힘으로 교회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게 됩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24항). 교회 안에 마리아의 현존은 어머니로서의 현존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유일무이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것이듯, 마리아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관계도 유일무이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신” 요한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은,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는’ … 그 ‘모성애’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45항)

마리아께서는 마치 우리가 당신의 하나뿐인 자식 이듯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치지상에 다른 자녀는 없는 것처럼 우리 존엄과 우리 구원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마리아를 불러야 합니다. 어머니! 이 기도 시간을 마치며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마리아께 다음과 같이 말하여야 합니다. “제 어머니, 제 곁을 떠나지 마소서! 제가 늘 당신 아드님 가까이 있게 저를 도와소서.”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 13, 1-9), (마르 4,1-9); (루카 8,4-8)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 13, 1-9)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 1 씨와 길. 내적 성찰이 부족하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에서 마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앉으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 말씀을 들으러 주위에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호숫가에서 들을 수 있도록 배를 타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고깃배에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는 다양한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갈릴래아 지역은 언덕이 많고 땅이 매우 울퉁불퉁해서, 골짜기의 비좁은 땅이나 강둑의 가장자리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 특정 지역의 농업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씨를 흩뿌리기 때문에, 씨가 길에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곧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입니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라는 표현도 현실을 반영합니다. 흙이 깊지 않아 짙은 곧 돌아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바로 말라버립니다.

좋은 씨가 떨어지는 땅은 온 세상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거룩한 씨가 뿌려지는 흙입니다. 하느님께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영혼에 자신을 부어 주시며 씨를 뿌리시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또 그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씨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의 의미하는 것은 밟혀서 굳어져 버린 흙입니다. 이 굳은 흙은 오직 외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여는 허황되고 공허한 영혼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생각에 몰두하거나 감각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무질서하고 자신의 느낌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영혼들은 마치 한 번도 가꾸거나 경작되지 않은 땅과 비슷하며,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고, 마치 끊임없이 밟히는 길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악마가 쉽게 빼앗아 갑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선물을 낚아채려고 언제나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헨리 뉴만, Sermon for Sexagesima Sunday: Calls to Grace)

우리는 “씨가 떨어진 그 길처럼, 외면하고 미지근하고 경멸하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44, 3)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용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외면과 미지근함은 참회와 회개가 부족하다는 표지이며, 소죄들에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씨 뿌리는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영혼의 땅에 당신의 씨를 뿌리신 첫 시기는 세례 때입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 곁에 가까이 지나가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저의 형편없는 행동을 보시고도 저를 위한 일을 해 주셨다면, 만일 제가 주님께 잘 응답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을 한량없는 너그러움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슬피 우는 동시에 깊은 사랑으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과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각별한 대접을 받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388)

## 2 돌밭과 가시덤불. 초자연적 삶 안에서의 초연함과 희생의 필요성.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짙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이 돌밭은 내적 깊이가 거의 없는 천박한 영혼들, 인내심이 없고 항구하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귀한 성향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은총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역경에 부딪치면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자기희생의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의 결심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사그라집니다.

테레사 성녀는, 내적 생활의 첫 번째 원수들을 이겼으나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 곧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생명수가 솟는 샘을 단지 몇 발자국 남겨두고” 더 이상의 투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성녀 테레사, *The Way of Perfection*, 19,2). 우리는 주님께 변치 않는 결심과 희생정신을 간청하여, 아마도 분명히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완고함으로 거듭거듭 다시 시작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성덕의 경지에 도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찾는 일이라면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어떠한 일이라도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 다음에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Spiritual Canticle*, 3,1)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물에 대한 사랑, 권력이나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무질서한 욕망,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향한 지나친 관심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가로막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영혼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고질적 탐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세적인 것들에만 완고히 고정되어 있으며, 결국 초자연적 실재들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맙니다”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6).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 영향력, 칭송 따위에 마음이 끌린다면, 만일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최고의 안락함에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만일 우리가 일시적 기분에 굴복하여 수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느님 사랑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을 우리 마음속에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최고의 편안함을 추구하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하는 사람은 다른 죄악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가시덤불’이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허황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로 상처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The Ascent of Mount Carmel*, 3, 18, 1)

바로 성인은 누구라도 자기 마음을 현세적인 것들에 두는

사람은 그것들을 마치 절대적선으로 여김으로써 일종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골로 3,5 참조). 이 같은 영혼의 무질서는 종종 고행을 멀리하고 관능에 빠져들게 만들어,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루카 12,34). 은총의 씨는 이렇게 열악한 토양에서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 3 은총에 대한 응답. 열매 맺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더욱 넓게 마음을 열수록, 우리가 맺는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굳은 땅, 돌밭, 가시덤불이어서는 안 되고,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 우리 마음이, 행인들의 발에 짓밟힌 씨를 원수들이 새처럼 와서 먹어 버리는 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나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말라 버리는 돌밭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걱정

짓눌린 인간적 감정들의 가시덤불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Sermon, 101,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과거 삶이 어떠하였던 간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퍼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시므로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께 응답하고 변화할 태세가 되어 있는 한, 그분의 손길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라도, 비록 과거에 사막이었을지라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그분의 돌보심은 제아무리 능숙한 농부의 돌봄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은총이 부여되면, 그 결과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흙은 비옥하고, 씨 뿌리는 사람은 같으며, 씨들은 각각의 경우에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한 쪽 흙과 다른 쪽 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땅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loc cit)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좋은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영혼 속 악성종양에 관하여 특별히 양심성찰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기도 안에서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자주 함으로써 유해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영감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참회 행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미술 작품이나 조각품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술가에게 작품이 훌륭하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하기를 원했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느껴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맞추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385). 뒤로 쳐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마태 13,10-17), (마르 4,10-12); (루카 8,9-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마태 13,10-17)

## 죄의 결과. 고해성사에 대한 사랑.

### 1. 죄의 결과

죄가 되는 모든 행동은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것이 진짜 악입니다. 죄는 우리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화 은총, 곧 영혼 속에 깃든 하느님 생명을 없애 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비록 이따금 죄를 통해 우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때, 이와 관련된 이들, 이에 동조하는 이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받은 유산, 곧 인간 개개인에게 고유한 존엄이 되는 우리 은총의 유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3월 16일 강론). 죄는 영혼을 돌발으로 만들어버려, 그 영혼에 은총이 뿌리내거나 인간적인 덕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영혼을 하느님 것에서 떼어 놓습니다. 하느님을 떠나면 인간은 불행과 죽음만 발견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이의 귀에 이 말을 되풀이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죄인은 이 땅의 모든 복을 얻는다 하여도 필연적으로 불행하고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소죄조차도 미워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또 모든 이를 이끌어야 하는) 동기는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곧, 정녕 하느님께서는 악이 무한한 선에 거스르는 것이기에 당신 무한하심의 깊이에서부터 영원히 불가피하고도 철저하게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 호세 마리아, The Forge, 1024). 죄가 영혼에 남겨 놓는 고독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생지옥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 13,10-17). 주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잃고 초자연적 실재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을죄는 영혼에게서 성화 은총을 빼앗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단절을 야기합니다. 그 영혼은 어떠한 새로운 공로도 쌓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영혼은 마귀의 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착한 일을 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줄어들어 선행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따금 죽을 죄에 있는 사람은 불만, 분노, 나태, 나약한 의지 등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상태는 감정의 무질서로 이끕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온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최선을 다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의로운 이가 세계를 들어 높이듯이, 모든 죄는 “교회와 또 어떤 의미로 세계 전체를 끌어내리는 셈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죄, 철저하게 개인적인 죄라 해도, 그것을 범하는 사람 하나에게만 관계되는 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파괴력의 범위나 그것이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죄는 교회 공동체 전체와 전인류 가족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화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oenitentia), 16항).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밀접하고 신비하게 연관됩니다. 우리 죄들이 그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이 있습니다 (히브 6,6 참조).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목주 기도의 슬픔의 신비들, 십자가의 길, 십자가상, 못, 창, 성모님의 무릎 위에 누인 죽은 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과 함께 하느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값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올리브 산에서 그분께서 그토록 비통한 마음으로 묵상하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명료하심으로 우리가 배은망덕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B. Baur, In Silence with God, 50)

하느님 자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을 알아 죄의 기회라면 한 치라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감각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우리가 충실하게 지내온 시절들이나 우리가 받은 탁월한 교육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죄와 모든 고의적 잘못을 증오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식할 수 있는 섬세한 양심을 주시기를 간청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고해 성사를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죄의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저희가 무관심과 나태를 이겨낼 수 있게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에게 죄의식을 주소서. 오, 주님, 저희 안에 순수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정신에 의지의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의 희년 개막 미사 강론, 1983.3.25)

## 2. 소죄에 대한 싸움 . 고해성사에 대한 사랑.

죄에 맞서는 진지한 싸움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아무런 변명 없이, 우리의 슬픔과 후회를 털 수 있는 어떠한 타당한 핑계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에는 우리의 직업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 형제애의 부족, 하느님을 대하는 소홀한 자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판단, 시기심, 다른 이들에 대한 무시,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심의 중심이나 최고가 되려 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우리의 더욱 속적이고 무질서한 야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의지의 상태이기에 진정한 소죄들입니다. 이러한 거부가 하느님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은 우리를 그분과 갈라지게 만드는 행동이나 바람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의적인 소죄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 여정에서 우리가 뒷걸음질하게 만듭니다. 소죄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을죄를 증오하고 모든 소죄를 피하려는 우리의 바람을 아시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이 생수를 ‘갈라진 저수 동굴’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고해 성사는 영혼을 치유하고 깨끗이 하며 은총으로 채워 줍니다. 진정한 통회와 함께 고해성사를 하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시편 저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시내 되어 흐릅니다.” (시편 119,136)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죄를 미워하는 은총을 얻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성모님께 하느님 자비의 성사에 대한 큰 사랑을 청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며 우리가 사랑으로 또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받는지 살피며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마태 13,18-23), (마르 4,13-20); (루카 8,11-15)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마태 13,18-23)

# 절제의 덕

## 1. 육신과 모든 창조물의 존엄. 절제의 덕의 필요.

절제는 몸과 감각들이 우리 인간 본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기능, “그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자신의 내적 일치를 이루고자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데에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쉽게 좌우되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하느님의 씨가 뿌리내릴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덕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자기 몸, 자기 건강, 자기 외양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변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재화는, 인간 안에 가장 고결한 것의 숨을 막아 버리고 그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되고 맙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배부르면, 영혼은 하늘 나라로 타고 갈 자기 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St Peter of Alcantara, Treatise on prayer and meditation, II, 3)

우리는 ‘소비 문화’가 노래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최고 목표라고 믿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려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는 당신 계획에 충실한 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세 재화는 언제나 우리를 공허하고 허망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 2. 절제 수련을 통하여 인간은 더욱 인간답게 됩니다. 세상 재화로부터 초탈하기. 좋은 모범을 보이기.

우리 어머니인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자녀들에게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절제는 자제와 희생과 극기를 필요로 합니다.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영혼 안에 뿌리내리고 숨 막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문화가 민족들의 열망에서 십자가를 지워내려는 욕망을 특징으로 하는 향락주의, 쉬운 삶에 대한 선부른 추구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오로 6세, 1966년 4월 8일 연설). 이러한 현상은 많은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수련을 통하여 인간은 더 인간답게 됩니다. 자기 본능의 충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다름없게 됩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게 돌진하여 궤도를 이탈하고 결국 전복되어 버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향인 지성과 의지는 인간 본능의 동물적 힘과 욕구에 삼켜버리게 됩니다. 절제의 덕은 우리 욕망을 다잡고 우리 감각을 인간의 최종 목적을 향하여 이끄는 많은 작은 행동들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 덕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협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값싼 것들 없이 사는 법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희생하는 삶 덕분에 온갖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마음 깊은 데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절제 때문에 흐릿해졌던 인생의 색깔들이 산뜻하게 되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려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대의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성 호세 마리아, Friends of God, 84)

절제의 삶은 지상 것에 초연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에 합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개인적 욕심을 삼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조절하며 우리의 변덕이나 욕망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절제를 증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에 타협해 버리면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도로서 따르기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보다 오히려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 가치를 지닌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35항)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에 관하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물질적 재산에 얽매이지 않는 올바른 태도를 갖고,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양식을 취하며 … 성장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Familiaris Consortio), 1981.11.22., 37항). 또한 모든 사람은 감각에 대한 자제력을 기르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절제의 표현

절제의 덕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편의 시설부터 노동과 휴식의 수단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측면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널리 스며들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쉴 때, 보통 불필요한 과잉 지출을 하거나 여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제의 덕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한 분야는 텔레비전이나 그 밖에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간편한 오락거리의 이용과 연관됩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즐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필리 3,19) 삼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간식을 삼가려 하고 희귀한 별미나 값비싼 식사를 동경하지 않으며 과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필요 이상으로 먹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인 무거운 만복감과 불쾌감은 여러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보화를 맛볼 수 없게 만듭니다. 현세의 기준으로도 절제는 참으로 미덕입니다!” (성 호세

마리아, The Way, 682)

이러한 식탐의 징후들이 대부분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하느님을 거스르는 잘못이기에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검소하고 기쁘고 초연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게 이끕니다. 이는 하느님 씨의 숨을 막아버리는 “가시덤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냉담하고 후회하는 삶에 빠져 허덕이게 내버려 둡니다.

이 절제의 덕을 기르려면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고행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전적으로 타당하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중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음식이 하느님의 복된 선물임을 일깨워 주면서 절제에 더 고결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전후에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토마스 성인은 신중과 절제가 모든 이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이 덕들은 (이 영역에서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젊은이, 여자, (좋은 표양을 주는) 노인에게 중요하며 또한 (지혜롭게 자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봉사자와 공무원에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2-2, 149, 4)

절제는 또한 우리의 호기심, 유머 감각,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 성향의 중용과 연관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절제의 덕이

하느님께서 인간 본성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관련하여 분명한 겸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의 겸손’과 ‘마음의 겸손’을 권장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절제에 관하여(On Temperance), 1988.11.22). 우리는 허영과 허세와 관련된 유혹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 ‘소비 문화’의 공격 전술에 맞서는 탁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절제는 우리가 성령의 작용인 하느님의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 수월한 ‘좋은 땅’이 되게 준비시켜 줍니다. 이 덕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효과적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 가라지의 비유

(마태 13, 24-30)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출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 거짓 교리의 가라지

## 1 가라지 비유의 중요성

세상은 하느님께서 계속 당신 은총의 씨를 뿌리시는 밭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이 씨는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인간 본성을 취하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기쁨진 땅으로 일구시고 우리에게 당신 구원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문제의 가라지는 중앙아시아에서 곡식 단 속에 함께 자라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는 밀과 매우 비슷하여 농부의 노련한 눈에도 줄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두 식물을 구별하여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줄기가 나오면 그 마른 귀와 앙상한 낱알로 가라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해하고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빵을 망치게 됩니다 (F. Prat, Jesus Christ 참조). 밀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일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에서 전례가 없지 않은 복수의 한 형태였습니다. 주기적인 가라지 피해는 농부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확 전체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은 가라지를 거짓 교리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였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 47; 성 아우구스티노, *Catena Aurea*). 거짓 교리는 특히나 처음에는 참 교리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을 참과 섞는 것은 악마 특유의 습성이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Catena Aurea*) 오류가 허용되어 커지면 이는 언제나 하느님 백성에게 파멸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유는 그 중요성을 전혀 잃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에 빠져 원수가 활개 치며 나쁜 씨를 뿌려도 이를 용납해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신앙의 진리 가운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은 진리는 전혀 없습니다. 잡지나 텔레비전, 책, 신문 등 거짓 교리의 실질적인 원천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교리 분야에 대한 우리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소명의 모든 요건에 충실하려면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거짓 교리가 영혼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불모지처럼 되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피도록 맡기신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교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오류와 무지는 많은 재앙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선택받은 백성이 부름 받은 것에 대해 전혀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땅하리라” (호세 4,6).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상실한 채 혼돈과 혼란 속에서 죄와 고통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신 유행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생각을 따릅니다. 아니면 거의 언제나 그들 자신의 열등한 본성에 따라 거짓 논리에 이끌립니다. 하느님과 영혼들의 적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왜곡된 뉴스 보도나, 심지어 전혀 보도된 적이 없는 대형 사건들에 대하여 듣습니다. 매일 밤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텔레비전 연속물은 아주 이교적인 생활양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결과 독신 생활을

조롱하고, 낙태와 안락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조장하며, 성사들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러 오신 적이 전혀 없었던 것 마냥,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교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인생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놀라운 기세로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치 구제불능일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듯이, 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마냥 하릴없이 서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결코 예정되어 있지 않고, 물론 악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어 우리가 세상을 당신을 향하여 이끌게 하십니다. 이는 모든 이의 과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들의 정신에서 무지를 쫓아내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공공 생활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모든 기회에, 곧 우리 가정이나 친구들, 일터의 동료들 가운데에 좋은 교리의 씨를 매력적이고 우호적으로 뿌릴 수 있고 뿌려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진리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고, 거짓의 실체를 드러낼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피정이나 단체, 영성 지도처럼 양성 활동에 참여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 주제에 관한 양서를 추천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범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퍼부어 내리는 이러한 거짓 교리의 폭우에 대처할 용기를 내고, 그들 역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을 거부한 이교 세상에 대하여 묘사한 다음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지하지 않은 그들은 더 이상 증오하지 않는다.” (테르툴리아누스, Ad nationes, 1,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할 때, 신문을 읽을 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때, 자녀를 교육할 때, 직업 모임 활동에 참여할 때, 투표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많은 기회들은 바로 삶이 그러하듯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또 어떤 기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은총에 힘입어 또 우리의 타고난 능력의 도움으로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 3.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좋은 씨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를 없애야 합니다.

널리 퍼진 가라지는 매우 풍요로운 좋은 교리만이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확신을 실천하면서 선으로 악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로마 12,21 참조).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통상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성화를 추구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경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대의 악과 그 강력한 동조자들에 대해 한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교묘한 박해로 교회는 아사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공 생활 영역 밖으로 쫓아내고 특히 교회가 교육과 문화와 가정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권리들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맡겨 주시어 우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310)

많은 적든,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담대 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나서기 시작한 우리 벗들에게 스승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여야 합니다. 스승님께서서는 그들의 도움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친목 모임이나 운동 모임에서, 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총과 가르침으로 참으로 현존하시게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어떠한 양성 활동이 저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방식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과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거룩한 확고한 의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되는 고질적인 모든 것을 바꾸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고 자기 주변의 것들을 하느님 뜻에 맞추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불가피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총의 도움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자기 자리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의 말과 모범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 여러분만의 ‘어조’를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영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들의 첫 결실들을 보며 놀라워하였듯이 여러분도 놀라워하며 ‘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리라 확신합니다.” (성호세마리아, *The Way*, 376)

##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마태 13,31-35); (마르 4,30-34); (루카 13,18-21)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마태 13,31-35)

## 반죽 속 누룩

### 1. 그리스도인들은 반죽 속 누룩처럼 세상을 그 안에서부터 바꾸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이 비유에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수차례 이를 목격해 왔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섞으면 곧바로 좋은 빵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성찰할 때, 우리는 먼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 필요한 누룩이 얼마나 적은 양인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와 달리 적은 양의 누룩이 불려일으키는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큼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담대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누룩이 지닌 힘은 단지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을 고려하십니다. “누룩이 본성적으로 반죽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반죽이 부풀게 하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이 되게 합니다. 누구나 즐기는 간단하고 필수적인 음식인 빵이 만들어질 때 누룩이 하는 역할에 관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지역에서 (여러분 자신도 보았을 것입니다만) 빵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이 거의 눈으로 맛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식품을 생산해 내는 생생한 예식과도 같습니다. 시작은 되도록 최상품의 질 좋은

밀가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밀가루를 반죽통에 넣고 효모를 섞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반죽은 쉬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누룩이 제대로 작용하여 반죽을 부풀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오븐이 준비되고 나무 장작이 활활 타면서 온도를 높입니다. 부풀어 오른 반죽을 뜨거운 오븐 안에 넣어 익히면 신기하게도 부드럽고 신선한 고급 빵이 됩니다.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다른 식재료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제 역할을 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 빵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성 호세 마리아, Friends of God, 257). 이 소량의 누룩이 없었다면 밀가루 반죽은 쓸모없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빛 아니면 어둠, 기쁨 아니면 슬픔, 평화 아니면 근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족과 동료와 이웃에게 하였듯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직 활동을 위해 별다른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우리를 보며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안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나 이기심을 당신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남을 이해하고 잘 살며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데 헌신하는 법을 누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거룩한 비결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은총을 부어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우리의 부족한 말로라도 전달해야 합니다.” (성 호세 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48)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나 학교에서 누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평화롭고 기쁜 마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 2. 좋은 모범

우리는 또한 밀가루 반죽을 접할 때만 누룩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죽에서 분리해 낼 수 없고 그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누룩은 변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부는 누룩을 밀가루에 섞을 뿐만 아니라 누룩이 보이지 않게 치대어 반죽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그들과 어우러져야 합니다. … 누룩이 보이지는 않아도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반죽 전체가 차츰 차츰 적당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46, 2).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이끕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느님의 소명으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던 세상에서 누룩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들은 자기 가정과 원로원, 군대, 그리고 황궁 자체에도 신앙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집, 도시, 섬, 마을, 모임, 심지어 군대, 씨족, 교실, 궁전, 원로원,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Apologetics, 37)

평범한 일반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고 성실하며 유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진지하게 우리 의무를 이행하고 하느님의 자녀를 낳으며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더불어 우리 삶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하느님께 다다른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관습과 예의는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사회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만 흔히 친교의 겉모습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의 열매,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명으로 이러한 관습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루는 긴밀한 일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측면들 가운데 하나는 절제의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늘 이 덕의 좋은 표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실은 많은 사람들을 때료시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절제는 식사 때에, 돈을 쓰는 방식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밝히는 빛으로, 가르치는 의사로 활동하게 하시어 우리가 누룩으로서 우리 의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십니다. ...

물론 여러분 삶이 밝게 빛나면 교리를 설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행동으로 증언하면 말에 의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면 이교도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y on the First Epistle to Timothy)

평화와 기쁨, 작지만 잦은 봉사 활동, 선행의 좋은 모범은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이들을 주님께 이끄는 데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교회가 말하는 이 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우리의

고해 사도직과 관련하여 그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양떼로 되돌려 보내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힘 있는 전구자를 얻은 것입니다” (성 토마스 데 빌라누에바, Homily on Sunday ‘in albis’, 1, c, pp.900-901). 우리는 우리의 인내롭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그러한 ‘힘 있는 전구자’를 많이 얻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가 우리를 사도로 만듭니다.

우리가 활기차게 누룩으로 활동하려면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게 놓아 둘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직을 북돋우는 내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치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과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금세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행한 것과는 같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5)

“누룩이 발효에 쓰이지 않는다면, 부패하고 맵니다. 누룩이 사라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죽에 생명을 주고 사라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심과 쓸모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며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58). 그리스도인은 냉담에 굴복할 때 약해집니다. 이는 하느님 일을 꺼리고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 누룩으로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도직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누룩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와 잦은 성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사랑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람’, 내적인 생명의 사람, 기도와 희생의 사람이 될 필 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직은 ‘내면’ 생명이 흘러넘친 것이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961)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늠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담대해지려면 오로지 성모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도적 영성 생활의 완전한 모범은 사도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가정을 돌보시고 일에 파묻혀 지내시면서도 언제나 당신의 아드님과 밀접히 결합되었으며 구세주의 활동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4항)

#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마태 13,44-46)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 13,44-46)

## 매우 가치 있는 보물과 진주

1. 하느님의 부르심은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이며 큰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이 추구하여야 할 만큼 좋은 하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설명합니다. 보물과 진주는 하느님 부르심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형상들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다음 생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자 이 지상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보물은 우리가 소명으로 받은 풍요로운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 소명은 장애를 극복하고 날마다 충실하고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진주는 그 소명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큰 가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좇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 상급의 측면에서, 이 두 비유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의 발견은 이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밭에 묻힌 보물은 거의 우연히 발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F. M. Moschner, *Parables of the Kingdom of Heaven*, Madrid, 1957).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식이고 그분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의 찾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값진 진주를 찾기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바로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불안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태 19,20). 그러한 발견이 빠르든 더디든 그 상급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영광이고 거룩한 큰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이는 사랑받는 표시, 곧 하느님께서 각 시대에 보여주시는 영원으로부터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각별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18)

자기 소명을 찾은 사람은 이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부르시고 초대하시지만, 우리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주를 찾거나 보물을 발견한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이 두 비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응답입니다.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관대함과 초연함은 이내로이 소명을 따르려면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복음의 이 구절이 제영혼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구절을 수차례 읽었지만 매번 그 의미나 그 거룩한 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그 현명한 사람은 그 보물을, 귀한 영광의 진주를 얻으려고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성호세마리아, *The Forge*, 993). 이 넓은 세상에 것처럼 큰 가치를 지닌 것은 전혀 없습니다!

## 2.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참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에게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성소를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그의 지나온 삶의 이질적인 부분들이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수께끼나 신비였던 것이 이제는 분명히 이해됩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때 그러한 특별한 도움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 이해됩니다. 소명은 또한 우리의 미래 삶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F. Suarez, Mary of Nazareth, 89 참조). 우리는 이제 우리 미래 삶이 얼마나 충만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온 비유들의 주역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판다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부는 엄청난 것이어서 그 무엇도 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사랑을 쏟는 이들은 사실 이와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재화를 팔아 얻게 되는 기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파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집과 세간살이, 장신구 등 오랜 동안 일해서 장만한 물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흥정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기쁘게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대가로 얻을 보물의 가치를 매우 잘 알았기에 모두 판 것입니다. 이 부 말고는 모든 것이 그리 중요치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원으로부터 예견하신 이러한 상황들의 특성에 맞 갖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나가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른 아침에” (마태 20,1 이하 참조), 그들이 젊을 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도유망해 보이는 그들의 야망과 희망과 꿈을 요구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숙한 나이에 부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년에 부름 받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세상 한가운데 파묻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 속에 머무르기를 더 바라십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통하여 세상을 성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혼인한 이들도 부르십니다. 그들이 가정을 그 온갖 기쁨과 슬픔과 더불어 성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내적 젊음을 주시고 이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2-6)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 전망을 드높여 주는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 입니까?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가 그 나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간 계획을 따지지 않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기에 너무 늦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른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 3.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관대한 응답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그 값진 진주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그 보물을 위해 모두 포기합니다. 가장 좋은 진주의 광채가 그 사람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es on the Gospels, 11 참조)

부름 받은 이는 누구나 어떠한 처지에 있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저마다 달라서, 모든 것을 준다고 할 때에는 흔히 모든 이가 동일한 방식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나 자녀의 행복과 교육을 위한 헌신처럼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통상적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혼인 성소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은 부부의 실생활에서 이러한 ‘깨달음’은 언제나 그들의 그리스도인 소명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들의 응답은 그들이 신앙에 전적으로 순명 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P. Rodriguez, Vocation, Work, Contemplation, Pamplona, 1986)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좁은 세상에 머무는 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분명한 빛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 마음에 추호의 의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속속들이 변화시키려면 그 상황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을 키워 많은 영혼들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호숫가에서 부르신 이들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

삶의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소 변함없는 일을 즐기고 자기 삶이 정해진 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의 합당한 몫이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사람은 이러한 그릇된 안정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틀에 박힌 일상을 깨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며 타협의 삶을 뛰어넘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부르심을 통해 우리 일상에 깊은 변화를 경험하라는 도전 과제를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도 전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금껏 개선할 수 없다고 여겨온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약점이 위대한 가치의 진주를 얻는 값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또 남은 전 생애에 걸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데에 필요한 은총도 함께 주십니다.

요셉 성인은 이곳 지상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돌보는 자신의 사명 안에서 자기 삶의 보물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실천할 수 있게 요셉 성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이행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물의 비유

(마태 13,47-50)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 13,47-50)

## 큰 그물

1. 그물은 의인과 죄인들을 둘 다 포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하늘 나라와 관련된 많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곧,

숨겨진 보물, 상인이 찾은 값진 진주, 바다에 던져져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는 커다란 그물입니다. 어부는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은 의인과 죄인을 모두 품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 경우에 이와 동일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벗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저버리고 세례로 받은 유산을 허비하는 이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모두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신”(히브 7,26) 그리스도께서 죄를 모르셨지만(2 코린 5,21참조) 오로지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셨으므로 (히브 2,17 참조),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8항). 죄인들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영적 재화가 여전히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재화에는 세례와 견진 때에 받은 지워지지 않는 인호, 거룩한 이들이 되고자 분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들에게 가닿는 사랑과 더불어 ... 믿음과 희망의 향주덕이 있습니다. 몸의 병들거나 마비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기 자녀들 안에서도

계속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악에 맞서 작용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자기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지키고, 교회의 사랑으로 그들을 되살리기 위해 싸웁니다. 교회는 쉽게 내버릴 수 없는 보화를 지키듯 그들을 지킵니다. 이는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내와 친절과 용서의 힘으로 그 죄인이 교회로 되돌아오기만을 희망합니다. 이는 수액의 부족으로 시들어 다시 싱싱해지고 꽃을 피우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C. Journet, Theology of the Church). 교회는 자신이 어머니라는 것을 다 하루도 잊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픈 자기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무한한 인내로 기다립니다. 교회는 풍부한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교회에 속하지만 온전히 은총의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일과 기쁨과 고통을 맡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이들 가운데 충만한 영성 생활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 교회는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소명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이따금 큰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회

자신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오셨듯 교회의 기원도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 교회의 이 거룩함은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맺어 주시는 은총의 열매로 끊임없이 드러나며 또 드러나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자기 삶에서 사랑의 완덕을 지향하며 남들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됩니다” (교회 헌장, 39항).

교회는 자신이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나 정치 제도나 학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삶과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교회는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이 보화를 맡으셨습니다” (M. Schmaus, Dogmatic Theology, vol IV, 603).

죄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교회에 속합니다. 그들은 언제든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기에 가장 심각한 죄조차도 지우지 못하는 화해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녀들 안에서 발견하는 죄는 교회의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의 원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바탕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를 하느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낳아 준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자기 설립자와 자기 활동과 교리와 관련하여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죄 있는 사람들로도 구성됩니다. 교회 생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교회가 충실한 썰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비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 Homily in Barcelona, 1982.11.7)

사람들이 이른바 지난 시절이나 현재에 교회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초자연적 제도의 본성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20,28)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 토대부터 지켜보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페 5,27). 바오로 성인이 티모테오에게 쓰신 대로, 교회는 “하느님의 집...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1티모 3,15)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일부 자녀의 나약함을 어머니의

잘못처럼 떠벌리는 병적인 관심이 우리 안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결코 ‘제 탓이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오직 참된 ‘제 탓’은 개인적인 것이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 안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비롯되는 인간적 결함을 지적하고 과장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본연의 건설적인 성화라 부르는 것을 결코 파괴할 수도 없고 심지어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 호세 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7)

### 3. 성덕의 열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덕의 원천입니다. 교회는 인간에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낳고 기르는 성사들을 통해서 흠 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의 믿음으로, 교회가 모든 이에게 명령하는 교회의 지극히 거룩한 법들을 통하여, 또한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제안하는 교회의 복음적 권고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 무한한 풍요로운 결실로 순교자와 동정녀와 증거자의 무리를 양산하는 그 천상 은총과 은사를 통해, 교회는 흠 없이 빛나는 것입니다.” (비오 12세, 회칙

'신비체'(Mystici Corporis), 1943.6.29., 30항)

성덕의 원천인 교회는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성인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 사랑 때문에 자기 생애를 바쳐 곤궁한 이들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람 가운데 교회가 어머니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수많은 부모가 그들의 거룩한 소명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조용한 희생의 영웅적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적 독신의 삶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남녀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교계에 소속된 사람이든 교계의 사목을 받는 사람이든 다 거룩함으로 부름 받고 있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9항)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 창립자의 거룩함에 힘입어 “티 없이 … 흠 없게” (에페 5,25-27). 영원히 젊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느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타고난 특성, 교회 본성의 일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수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투신의 깊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활동 때문에 거룩합니다. “저는 인간적 실패가 용기 있는 행위보다 더 많을지라도 교회의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신비적 실재는 감각으로 인식하지는 못해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늘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활동이며 아버지의 사랑하는 현존입니다.” (성 호세 마리아,  
In Love with the Church, 22)

하느님 백성의 독실한 구성원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교회의 합당한 자녀들이 되도록 ‘개인 성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키워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유럽에 복음화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숭고한 사명을 위하여, 오늘날 특별한  
준비를 한 복음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전문가이고,  
현대인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들의 기쁨과 희망, 고뇌와 슬픔에  
공감하며, 동시에 하느님 사랑으로 관상할 줄 아는 복음의 전령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서 새로운 성인들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훌륭한 복음화 일꾼들은 성인들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성화 정신을 길러 주시고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성인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유럽 주교회의 연합회 심포지엄에 한 연설,  
1985.10.11)

##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마태 13,54-58); (마르 6,1-6); (루카 4,16-30)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마태 13,54-58)

# 인간적 측면을 뛰어넘어

## 1.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기를 내기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많은 이웃들과 친지들은 그분을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르 3,21). 우리가 복음에서 봉독한대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분 친척들은 그분 안에서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속에는 시기심이 스며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비겁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극심한 모욕과 험담의 물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적인 측면 없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우는 중상과 공개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결국 사형에 처하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굳셈은 심지어 적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태 22,1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당신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들여 쌓은 전문적 도덕적 사회적 명망을 축진하고 수호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간 존엄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망은 우리 개인 사도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교 도덕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이들과 무뎠진 신앙을 실천하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평판과 심지어 삶 자체도 희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 뜻을 수행하고자 분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올곧은 행동이 비판이나 거부를 받으며 ‘평지풍파를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이교 환경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숨기려 하는 이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태 10,32).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결과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당신 제자가 되는 필요조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 대부분이 취한 행동 방식입니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는 주님의 숨은 제자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섰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들은 겁먹어 움츠러드는 순간에 권위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841). 이것이 최고 의회와 이교적 박해 앞에서 그들이 행동한 방식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1코린 1,18). 담대한 바오로 성인이 그의 제자 티모테오에게 써 보낸 대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2티모 1,7-8). 이는 오늘날 상황이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스승에게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 2. 인간적 측면을 극복하는 것은 용기의 덕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범한 환경에서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답지만 이와 다른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존엄을 떨어뜨리는 적 그리스도교 적인 일련의 행동과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대조가 더 두드러질 것임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비신자들이나 종교무차별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비웃기까지 한다고 해서 놀라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복음을 위하여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소문과 증상, 조롱, 일에서의 차별, 경제적 기회의 박탈이나 알팍한 우정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믿음을 항구히 지키기 위해 초자연적 용기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쉬운 길을 버리고 ‘포기’하고픈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거부와 몰이해와 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도 잃고 나중에 다시 열 수 없는 문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참 신원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게끔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유혹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좇아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어떤 길인지 궁리하 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충실한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기를 얻고픈 우리의 바람은 자기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희생을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과 우리 자신만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선택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침묵이나 몇 마디 말, 몸짓이나 태도로 표현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을 입증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희생의 필요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악마의 첫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적 측면입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Sermon on Temptations). 우리는 모두 다른 이들 앞에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우리가 실행하기만 하면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교 믿음에 충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 **3.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우리의 좋은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모범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친근하고 다정하고 신앙에 확고한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이따금

우리는 교황님의 가르침을 공격하거나 중절이나 피임을 옹호하는 ‘대담한’ 기사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참으로 담대한 것은 신앙과 도덕에 속하는 사안에서 교황의 가르침은 권위를 옹호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수호하며 하느님 뜻이라면 대가족을 이루고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한 사람의 모습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하느님을 없애거나 하느님을 ‘뒷전에 두는 일’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릇된 사람들이 보편 도덕률을 개인 ‘양심’의 밀실로 제쳐 버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모르는 체 넘어 가고픈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성인도 교회의 수장으로 확인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유대인 동료의 인간적 측면에 굴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베드로 성인을 바로잡은 이는 다름 아닌 바오로 성인이었습니다 (갈라 2,11-14 참조). 이 유명한 대립은 교회의 거룩함과 일치성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들의 완전한 일치, 교회의 가시적인 수장을 향한 바오로 성인의 존경,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는 베드로 성인의 큰 겸손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교회 초기에 그러하였 듯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형제적 권면을 실천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여야 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나자렛의 슬픈 그날부터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당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의견에 맞추어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단 하나는 당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염탐꾼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도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르 3,2 참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지를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모습도, 심지어 결심을 바꾸시는 모습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는 주님께는 매우 인간적인 그 분만의 방식입니다. 경솔하거나 성급한 행동, 우유부단, 타협이나 협상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존재 전체가 ‘예’ 아니면 ‘아니오’ 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사람, 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한 인식이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결코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K. Adam, The Son of God, 80)

우리가 언제나 변덕스러운 인간의 뜻보다는 변함없는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이끄는 힘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마르 1,21-28); (루카 4,31-37)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이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루카 4,31-37)

#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 1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권능과 힘으로 가르치십니다.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이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불려일으킨 놀라운 반응들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르 9,6; 6,51 등 참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르 9,32 참조). 그들이 감히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매혹시킨 존경에 찬 경외심의 표시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반영된 위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어서 마르코 성인은 또 다른 기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몹시 놀라워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마르 1,22) 입니다. 삼위일체의 제2격이신 성자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인성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사람들은 그분의 놀라우신 권위를 깨닫고는 그들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유명한 인물들과 그분을 동일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마태 16,14 참조). 그들은 모두 진실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그리스도께서 교리를 설파하시는 방식, 곧

명확하고 생생하게 가르치는 방식 사이에는 확실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하나의 견해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며, 불확실성이나 의심의 기색을 보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The Navarre Bible, note to Matt 7,28-29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또 다른 예언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관계의 본성을 가르치시며, 기적으로 당신의 가르침들을 뒷받침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3,11 참조) 당신의 가르침을 간결하면서 단호하게 설명하시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논쟁을 벌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스스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존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지혜를 인정할 만큼 깨끗할 때, 여러분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비교하거나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그 지혜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분 이전에는 모든 것은 먼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은

생명이심을. 태양이 뜨고 별이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견해도 그러합니다. 주님, 저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십니다.” (J. Leclercq, *Thirty meditations on the Christian Life*, pp.53-54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내밀한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패나 슬픔을 포함하여 그날의 수많은 사건들 안에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복음을 펼칠 때, 거기에 쓰여 있는 것 -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 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 모든 점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상황 안에서 그것을 살아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당신을 가까이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바로 그 거룩한 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곳에서 발견하여야 합니다. ... 날마다 복음을 들어, 그것을 읽고, 확고한 규범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754)

## 2 매일의 복음 읽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과 권위가 넘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이전에 그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였습니다. (루카 19,48; 요한 7,46 참조). 베다 성인은 성서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것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으로서, 또 모세 자신의 주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 베다, Commentary on St Mark's Gospel, 1, 21)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가리키자, 그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대화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사가 요한 성인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오후 약 4시쯤인 '열 시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가 복음서를 썼을 때, 그는 '스승과 처음 만났던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영원히 남기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랐던 또다른 제자인 안드레아의 말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 하고 그는 형인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는 주님을 잡으려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 7,46 이하).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하고 바리사이들이 힐난하며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이가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교리는 친숙한 개념들과 표상들로 가득하여 그 말씀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작고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신비롭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새로운 가르침의 가장 숭고한 특징들을 표현하는 데 이용됩니다.

주님의 삶 전체가 중단 없는 가르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그분의 기적, 그분의 행동거지, 기도, 사람들을 위하시는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각별한 애정,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바치는 전적인 희생을 쾌히 감당하시는 자세, 그분의 부활, 이 모두가 당신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체현(體現)이었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 이 같은 관점들은 … 스승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호감을 더욱 굳게 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그분은 하느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인간을 인간 자신에게 계시하시는 스승이십니다.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스승, 살아 계시는 스승, 말을 하시고 일깨우시고 밀어주시고 고쳐 주시고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스승,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역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며 장차 영광을 떨치며 오실 스승이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Catechesi Tradendae), 1979.10.16., 9항)

우리는 매일의 복음 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읽을 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저자이신 성령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도록 요청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읽는 장면에서 또 한 명의 주역이 되고, 그 날을 위해 작지만 확고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 복음 읽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Commentary on the Psalms, 85, 7).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 삶의 본보기를 주시어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당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 무엇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작은 모욕들을 용서하도록 권유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용해 주고자 기다리시는 잦은 고해를 위해 준비를 잘 하게 해 주시며, 당신 자신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웃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성화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자렛에서 여러 해를 보내시며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떤 견해나 생각,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결심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몇 분간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서서 복음을 읽습니다. 이는 미사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초기 그리스도교 관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주제를 복음에서 이끌어내고자 복음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작은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또는 문간에 서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성경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한 부분이나 대화의 몇 마디만을 겨우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마르 10,51) 하고 말하거나 소리쳤던 사람들처럼, 주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영혼에 빛을 주시며, 저를 불타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루카 18,13)라고 한 세리의 말이나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요한 21,17)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우리 마음에 메아리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채워줄 사랑과 평화의 감정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자주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묵상할 것이고, 그분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면서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자렛에서 요셉 성인을 도와 일하시는 예수님, 나중에는 어머니를 돌보시는 예수님, 또는 오랜 여정에 지치거나 장시간의 설교로 지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뵈고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맙시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갑니다.’ … 클레오파스와 그의 동료의 기도가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 목을 짓을 권유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671)

#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마태 14, 1-12), (마르 6,17-29)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 14, 4-5)

## 말할 때를 알기

1. 필요할 때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고 암묵적 동의를 피하십시오.

세례자 요한 성인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마태 14,1-12)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지라도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이 헛되이 버려지게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연연 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마다 신앙에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나 혼인과 가정의 비하 같은 범죄 앞에서 침묵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이 교육에서 하느님을 제외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들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황님과 성모 마리아 또는 교회 제도들에 대한 공격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악에 협력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동의를 함축한다고 다른 이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필요할 때 말하고, 가톨릭에 반대되는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거부하면, 이러한 사업이 번성하기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경우가 등하교나 출퇴근 길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에게 편지로 좋은 기사는 칭찬하고 나쁜 기사는 비판하는 글을 써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참된 사랑이 용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는 의향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 2. 일상 삶에서의 용기와 힘. 신앙과 우리 소명의 요구를

## 충실히 실천하십시오.

요한 세례자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침묵을 지켰다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면 헤로데에게 참수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소명에 자기 원칙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가 침묵을 지켰다면 몇 년 더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첫 제자들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사가 가 예언한 대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곧게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침묵을 지켰다면 그는 자기 소명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마도 당신을 위한 순교자의 죽음에 고통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요구들에 대처하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안 좋은 텔레비전 쇼를 그만 보고 사도직 대화를 나누는 일을 늦추지 않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사도직 활동을 해야 할 때 핑계를 대며 그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선을 사랑하고 그러한 선함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기쁜 가정과 젊음이다운 사랑의 모범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다른 종류의 비겁한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키는 침묵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그를 우리  
옆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히 우리의 영성 지도자와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먼저 용기를 내지 못하면 이 삶의 모든  
것에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 상상하기란 힘듭니다.

우리의 많은 친구들은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알 때 신앙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첫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목격한 다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오늘을 바치며,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여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마태 14,13-14); (마르 6,30-34), (루카 9,1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코 6,30-34)

# 안식일과 여가

## 1. 휴식과 여가의 성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묻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제자들의 삶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는 노동의 삶이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피로를 느끼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봉사를 하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유 시간을 가져 기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의 질에도, 우리 사도직 임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자녀와 배우자, 우리 형제자매들, 친구들에게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 사도직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하는 일이 전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따금 우리는 쉬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에 따르면, 어떤 끈도 지속적인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궁수가 다음에도 계속 활을 잡아당길 수 있게 하려면 활의 양끝을 느슨하게 풀어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Prayer 26).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에 관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신경쓰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쉴 때에는 그분께서도 쉬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Commentary on the Psalms, 131, 12)

그러나 착한 그리스도인들 답게 쉬어야 합니다. 기력을 상실한 우리 자신을 성화하고, 상황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쉬 없이 일하라고 강요할 때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특별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마치신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 2. 그리스도인의 여가 자세

매우 흔히, 아마도 오랜 동안, 우리는 건강이 좋지 못해도 노동이나 가사나 학업에 계속 매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간 조건의 일부고 흔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간단한 징표입니다. 데레사 성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말합니다. “단 한마디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져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픈 날들이 옵니다” (성녀 데레사, The Way of Perfection, 38, 6). 이러한 순간들은 하느님께 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적절한 치유를 받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의사의 말을 따르라는 뜻이거나, 잠을 좀 더 충분히 자라는 의미이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건강에 좀 더 주의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며 더 성숙하라고, 또는 매우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웃도록 노력하라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메말랐다고 느끼거나 신심 실천에 아무런 감응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 가서 좀 쉬어라.” 스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휴식은 결코 우리 자신 안에만 사로잡혀 있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기회입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은 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듯, “인간의 영혼이 나아가는 그 어떠한 길도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만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Confessions, 4, 10, 15). 적어도 하느님을 옆으로 제쳐 두는 고통에 마주칠 것입니다.

휴일의 시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휴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힘을 얻고 생각을 다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다른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힘으로 일상 업무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514 참조)

휴일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때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심 실천과 겸손한 봉사 활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삶을 더 즐겁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때입니다. 그들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휴식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의 초자연적 생활은 한쪽으로 완전히 제쳐 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잘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찾기 어려운 매우 세속화된 휴양지를 선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휴일을 보내며 그러한 환경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하느님을 극심히 모독하는 자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나 식구에게 이를 허락하여 결국 그들 영혼에 회복 불가능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감수하는 부모의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때 부모는 그들 자신의 죄와 자녀의 죄에 대해 양심에 거리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들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휴식을 추구하고 있는 곳에 휴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휴식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휴식을 찾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휴식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죽음의 장소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삶이 전혀 없는 바로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노, Confessions, 4,12,18; 참조: Commentary on the Psalms, 33, 2)

일부 환경에서 사람들은 악에 협력하는 것에 대한 도덕의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정신을 맑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의 의무가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행복과 우리 이웃의 영적 행복은 육체적 행복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려면, 육체적 기력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언제나 약간의 선의만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가까이 우리 영혼 안에 은혜로이 현존하시는 가운데 휴식을 취하는 길과 수단을 찾고 정립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간을 깊은 우정을 쌓고 풍성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시기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 3. 안식일 준수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고유한 문화 행사나 집단 활동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에 젖어들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현장, 61항).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주중 일하는 날은 줄고 주말과 휴일이 길어진 경향 덕분에 더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것처럼 늘어난 여가를 활용하는 데에 올바르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무 휴일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의 의미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성격이 없으면, 성탄절, 성주간, 주일들, 주님 축일들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들과 같은 매우 특별한 날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는 시급한 사도직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날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일상 의무에서 벗어나 또한 아마도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거룩한 날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은총의 작용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고 “이에 더욱 기꺼이 응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교 축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이루는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를, 곧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첫 의무를 간과하거나, 약간의 남은 시간에 ‘맞추려고’ 내버려 두고 그 날의 나머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로 채우면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자기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적어도 냉담의 한 표징이 됩니다. 우리는 특히 축일만큼은 하느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대해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데에서 우리나라오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떠나 잠시 쉬시고자 당신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이 향하는 곳을 보고 육로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고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도 그분 제자들도 잠시 쉬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필요가 우리 자신의 것보다 앞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우리의 보살핌과 관심을 기대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의 휴식을 뒤로 미루고 이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계획을 접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군중을 보살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적응시켜야 할 초연함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 오천 명을 먹이시다

(마태 14, 15-21); (마르 6,35-44); (루카 9,10-17);  
(요한 6,1-14)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 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마태 14, 15-21)

## 빵을 많게 한 기적.

###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그분을 따라나섰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부탁도 받지 않으셨는데도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멀리 왔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르코 성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이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늦은 시간에 외딴곳에 있다는 생각에 다소 불안해하면서, 스승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들을 돌려 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았습니다. 거기 있던 이들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음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약간의 빵과 물고기로, 또 당신 제자들의 순종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신 다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물질적 필요에서도 우리 인간을 돌보시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여라 하더라도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십니다. “사도들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이 사소한 것으로라도 주님을 돕는다면, 주님께서서는 기꺼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특별한 은혜로 빵을 많게 하시고 의향을 바꾸시며 몽매한 정신에 빛을 밝혀 주시고 나쁜 사람을 옳은 이가 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을 도울 때, 그분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니 그 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675). 이제 우리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5.37-39)

그 무엇도 우리 스승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 고통, 질병 등) 개인 삶의 그 어떠한 역경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길 꺼리는 거부감, 십자가와 모든 희생을 회피하는 적대감 등) 사도직의 여러 어려움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힘을 얻을 것입니다.

## 2. 이 기적은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신 성체성사의 예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실 때, 나중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며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과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마태 26,26; 마르 14,22; 루카 22,19; 1코린 11,25 참조). 이 기적은 하느님 자비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요한 6,26-59 참조) 성체성사의 예형이기도 합니다. (The Navarre Bible, notes to John 6:11 and Mark 6:41 참조). 많은 교부들도 이러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사 전례에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신 주님의 몸짓을 상기시킵니다. 감사 기도 제1양식에는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Et elevatis oculis in caelum, ad Te Deum Patrem

suum omnipotentem”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더 큰 기적을 준비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몸으로 빵을 변화시키신 그 기적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영적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호숫가에서의 그 기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권능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성체성사를 위한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바로 이 성체가 수많은 신자들의 양식이 됩니다. 토마스 성인이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를 위하여 작성한 부속가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도 천 사람도, 같은 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 없습니다. …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기적은 그 실재의 손상 없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것이지만 기대한 것 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 됩니다. 이는 자기 양떼를 먹이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이는 새로운 질서의 전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 잔치에 참석하러 오고 이 잔치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매우 탁월한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M. J. Indart, Jesus in his World, Barcelona, 1963)

우리 주님을 찾는 군중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큰길과 마을을 떠나 머나먼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아무런 채비도 없이 여행합니다. 서둘러 주님을 뵙고자 한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성체나 성체 조배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스승님과 만나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성인은 그 기적의 결과로서 균중이 매우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요한 6,14). “빵을 많게 한 일이 매우 큰 기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두 빵 한 조각에 매우 열광하고 기꺼이 주님을 칭송하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총에 합당하게,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선물에 합당하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304)

영성체 때에 우리는 마리아의 아드님, 오래 전에 그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받아 보십니다. “성체 안에 구원의 모든 신비의 그리스도, 마리아 막달레나와 돌아온 아들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현존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 그분께서는 여기에,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M. M. Philipon, *The Sacraments in Christian Life*).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 3. 우리는 영성체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영성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매번 영성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십니다.” 오늘 화답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15-16)

성체성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사에 무한한 초자연적 효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제약에 봉착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자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영성체 안에서 그분을 알아 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청하도록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에게서 떼어 놓을 수 있는 위험이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영성체는 우리가 인간적 품위와 초자연적 전망을 가지고 일상 생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은총의 샘이고 새로운 빛이며 새로운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얼마나 많이 얻는지는 상당 부분 우리 내적 의향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성사들은 “받는 사람의 좋은 의향에 준하여 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 비오 10세, 훈령 Sacra Tridentina Synodus, 1905.12.20).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볼 때 우리는 더 큰 성덕을 향한 우리의 의향, 우리의 바람을 키웁니다. 요한 바오로 2 세가 스페인을 사목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랑은 여러분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성체성사가 우리를 고해성사로 이끌 듯, 우리를 성체성사로 이끄는 고해성사를 선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2년 10월 31일 연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는 둘 다 영혼이 더 세심하고 정화되고 순수한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돕습니다.

영성체 전에, 치유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단 한 번 영성체를 하러 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받아 모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토록 쉽게 당신께 갈 수 있게 해 주셨기에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더 잘 받아 모실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의 고마움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828). 우리의 마지막 영성체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 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사적으로 결합된 주님을 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행위에 예수님께서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 오천 명을 먹이다2

(마태 14,19-21); (마르 6,42-44); (루카 9,16-17),  
(요한 6,11-13)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요한 6,11-13)

## 작은 일에 성실한 자세

1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현재 실재를 성화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갈릴래아 호숫가 주변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모두 자기의 피곤함도 잊고 몇 시간째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으며 식량도 부족하고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그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매료되어 있었습시다. 그들은 배고픔도 그들의 여정도 잊었습시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청중의 물질적 필요를 마음에 두셨습시다. 그분께서는 수일동안 당신을 따르고 있는 지친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셨습시다. 그래서 그분은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시다.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사도들과 또 우리에게 작은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시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관대하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시습시다.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심으로써, 또 다른 하나는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일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드넓으신 마음은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서 드러납니다. “남은 조각들을 모으는 행위는, 정리정돈이나 청결이나 완전한 뒷마무리처럼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는 작은 일들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방식입니다.” (The Navarre Bible, note to Mark 6,42). 그리스도께서는 삼십 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에 젖어 사셨습니다. 사람의 아드님께서는 소박한 작업장에서 일하셨지만 인류의 구원에 몸담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동안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주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 곧바로 이를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요한 11,44).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이 좀 쉬어야 할 때를 감지하셨습니다 (마르 6,31).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상황을 그에 맞갖은 중요성에 따라 대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관심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깨워 줍니다. 곧,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에페 4,16).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는 즐거운 삶을 만들어 주는 덕들을 실천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 2. 우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작은 일의 가치.

“남은 조각을 모아라.” 이는 눈부신 기적에 비해 덜 중요한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요청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온 생애는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많은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날마다 힘든 노력을 통해 덕들을 길러갑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행동! 그리고 주님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계속 말씀드리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자주 주님께 이 말씀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은총으로 무엇보다도 저희 행동이 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날마다의 소소한 일들이 주님에 대한 저희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소리 없이 외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98)

주님께서는 질서와 정확한 시간관념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들과 우리가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에 가치를 두십니다. 또한 동료를 향한 호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에 대한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 일에서 판에 박힌 타성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해마다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날과 모든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타성에 굴복할 때에 삶은 지겨워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봉사 정신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고행을 실천하는 폭넓은 자리를 날마다 우리 일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하여야 하는 도전을 받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가능하지만 매우 기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기회는 사실상 날마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고, 피곤하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가족에게 격려의 말을 해 주며,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전혀 재미없는 사람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근한 인사나 작은 호의나 감사 편지 등) 소소한 행동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다른 사람들 안에 낳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의 바른 간단한 행동 덕분에, 상대방은 자신이 필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생활은 하느님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간 존엄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들을 경시하며 서로를 단순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은 모든 덕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도심 한복판에서 지성소 곁을 지나갈 때 잠시나마 사랑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대화를 중단시킬 때마다, 우리 믿음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일 때마다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하고 우리의 근면 함과 ‘스포츠 정신’으로 성화시켜야 하는 ‘참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보화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주인공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마태 25,21)

**3.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덜 중요해 보이는 분야에도 성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삶은 많은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행동을 하느님 뜻에 맞출 때 이 행동들은 우리를 매우 멀리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 여정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그 어떤 커다란 유혹에 직면해도 강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루카 16,10 참조). 집회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집회 19,1)

하느님께서서는 매순간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은총에 응답하면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더 많은 은총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성실하면, 하나의 은총이 또 다른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허영심을 누그러뜨리는 또 다른 혜택을 봅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영예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질서를 지킨다고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미소 짓는 어머니에게, 매번 정성껏 강의 준비를 하는 교수에게, 열심히 시험공부를 한 학생에게, 환자의 존엄을 존중하며 치료하는 의사에게 누가 기념비를 세워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봉헌할 때, 우리는 작은 일을 큰 일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소소한 일상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더 크나큰 신심으로 ‘아침 봉헌’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삶 속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일치를 통해 우리는 차츰차츰 하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려면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원의, 일상생활의 평범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렬한 바람을 북돋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 줍니다.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다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세부적인 것도 배려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고 하느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마태 14,23)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마르 1,35)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루카 5, 15-16)

# 질문하는 법 배우기

## 1. 하느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자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침 일찍 외딴곳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누시는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 계신 모습을 자주 뵈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루카11,1-3). 우리도 이와 같이 청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주님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 요청하여야 할 바를 저희에게 일러 주소서. …’ 우리가 자주 하느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기에 이러한 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의 청에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말마디를 신중히 발음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줄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아마도 무언가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로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간청에 주의를 기울이시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더욱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잘못이나 태만에 점점 더 젖어들어 가면 이는 그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루카 1,53). 우리는 신약에서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곤 하였듯이 바로 그렇게 감실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인간 삶의 일부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한밤중에 벋을 깨워 빵을 청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빵의 필요는 어느 모로는 모든 물질적 필요의 상징입니다. 인간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 곧 인간이 육신을 지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이 실존 자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범위는 더 광범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7월 27일 강론)

겸손은 하느님과 나누는 신뢰의 대화에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우리 한계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 배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실재를 그 말의 온전한 의미에서 그 온전한 차원에서 배우면 모든 것을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배우다는 것은 절대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배우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 무엇도 절대 거부하실 줄 모르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거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 2. 우리는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영적 물질적 재화를 청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에서 우리가 그분께 찾아야 하는 첫 번째는 영적 재화입니다. 곧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성화에 대한 진정한 바람을 갖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데 이바지하는 물질 재화를 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화에는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행복, 취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세 재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앞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청했는데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받았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은 작은 아이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가 울며 조른다고 해서 장난감으로 칼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이가 즐라도 현명하게 거절하고 그의 응석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여러분 말을 타겠다고 조른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말 타는 법을 몰라 결국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작은 것들에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자신의 좋은 것을 온전히 간직한 채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80, 2, 7-8).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법입니다. 매우 수차례 우리는 자신이 뭘 청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언제나 인간이 하느님 뜻에 완전히 동일시할 때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따금 인간의 관점에서 매우 매력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 세 복자께서는 자신이 바르샤바 봉기 때에 한 병원에서 만난 한 남자가 보여준 유쾌한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에 이른 것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면 그리 행복하고 기분 좋을 이유도,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여길 이유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성의 또 다른 측면에서 그의 말이 들어진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7월 27일 강론). 그의 인간적 의지와 하느님 뜻을 동일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열망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따라야 할 최선의 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말고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께 지금 청하고 있는 것들도 저를 당신 뜻에서 한 치라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허락하지 마소서” (성 호세 마리아, The Forge, 512).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다면 제가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압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복음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청원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곳에서 효과적인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간청합니다.

#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 22-36); (마르 6,45-52); (요한 6,16-21)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 14, 24-36)

## 믿음의 사람들

1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단 한 발자욱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신 다음 주님께서서는 군중을 떠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분명히 늦은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신 긴 하루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까운 산에 오르시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머무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위에서 제자들의 배가 물에서 떨어져 있고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보셨습니다. 과일절이 가까워져 보름달이 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를 알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 4 시, 새벽 3 시경, 일출 전에 그분께서는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에 시달리는 그들 쪽으로 호수 위를

걸어오는 어렵פות한 모습을 보고서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현존하시며 용기와 평온함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사랑에 이끌려, 스승님 가까이 가려는 바람에 이끌려, 베드로는 예기치 않은 요구를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사랑의 담대함은 한계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구를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분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동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배의 안전함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배 옆에 매달리지 않고 제자들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출렁이는 파도 위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를 지탱하는 전부입니다.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간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량이 높고 바람이 강하다는 것도, 그리고 사람이 물위를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공경의 덕입니다. 기도와 성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머무른다면 우리는 바른 길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단단한 땅위에서조차 단 한 발자욱도 땄 수 없을 것입니다.

## 2 믿음이 줄어들 때, 어려움은 더 커져 보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처음에는 컸지만 이내 줄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물위를 걷기에는 불가능한 풍랑과 바람의 세기를 깨달았습니다. 요한 성인은 바람이 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려움을 걱정하고 자신이 물위에 떠 있을 수 있게 한 유일한 것인 주님 말씀을 잊고 맙니다. 그는 걸림돌에 신경 쓰다 보니 믿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따금 하느님께서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행동할 때 현실이 되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오푸스데이’의 설립자인 호세마리아 성인은 사도직 활동을 시작하며 있기 마련인 여러 어려움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가는 회원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매님, 제가 뭔가 요청할 때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오푸스테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 주님께서는 제게 수차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P. Berglar, Opus Dei - Life and work of the Founder).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도직 활동이 수행되고 성소가 개발되고 많은 이들이 매우 관대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사도직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여러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 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활동은 거듭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활동이 지상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것이 교회 역사상 늘 이루어져 온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계속 떠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이상에 반대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시어 우리가 물위를 걷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를 산란하게 만드는 걸림돌과 유혹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복음 해설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가르치셨고 베드로의 모든 용기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방식에 맡길 때에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비참함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the St Matthew's Gospel, 50). “우리의 협력이 부족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돕는 것을 멈추십니다.” 베드로가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신앙이 감소할 때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 삶의 위대한 증인이신 유일한 분으로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친구로 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또 그분께서 제 인생에 친근한 분이려면, 제가 그분 가까이 살아간다면, 저는 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신앙은 하느님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느님을 잊으면, 또 그분을 제 삶 밖에 두거나 제가 순전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몰입한다면, 제 눈앞의 즉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하느님이 제 안에서 희미해진다면,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대화하지 않으면 제 신앙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신앙 생활의 모든 걸림돌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없애고 말아 우리가 더 이상 하느님을 마주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P. Rodriguez, Faith and Life of faith, Pamplona, 1974).

그럴 때 유혹과 걸림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확신의 눈길을 주님께에서 돌리지 않았다면 물 위에 단단히 서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 밖에서 일어난 폭풍, 이 모든 폭풍은 우리가 확고히 기도에 의지하는 한 우리를 결코 뒤흔들 수 없습니다. 기도를 저버리는 것 또 내밀하고 진실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과 비관주의와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온갖 권력으로 여러분을 반대한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 앞서 나아가십시오!

시편 말씀을 되풀이하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적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480).

### 3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위험과 결림돌 한가운데에서 또 의심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싸움터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히브리 서간에서 읽은 대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 12,1-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하고도 명확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수없이 바라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그날 밤 그랬듯 그분을 어떤 유령으로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과 목소리와 눈빛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수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이요 정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당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12,1-2). 기도와 성사를 통해 습관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 하느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두 발로 계속 서 있게 하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거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싸울 때 우리 믿음과 희망은 강해지고 우리는 그분과 더 긴밀히 결합됩니다. “그들이 드리운 안락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이와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들은 약하고

상처입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꼭대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거센 바람에 뒤흔들리고 계속 거친 환경에 노출되어 세찬 폭풍우에 시달리고 눈으로 뒤덮이기도 하지만 강철만큼 강하게 자라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y on the glory of tribulation).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그만 바라보았기에 물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그분께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온힘을 다해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유혹과 어려움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작은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우리가 물에 빠져 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옆에 수호천사를 보내 주십니다. 수호천사는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고 하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여정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 벼를 신뢰합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위해 필요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 생명의 빵

(요한 6, 48-51)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 48-51)

## 살아 있는 빵

### 1. 성체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효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유혹을 이기고,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 생활을 더욱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받아 모셔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상기시켜 주십니다. 누구든 은총 상태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거룩한 미사의 결실에 참여하여, 영성체에만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이며 가장 위대한 성사입니다. 이 성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 현존은 성체성사에 무한한 초자연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현세에서 주님을 받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가 아는 무언가를 줌으로써 더 깊은 애정이나 사랑의 태도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한계를 느낍니다.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권능은 모든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체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십니다. 이 성사 안에서 사랑의 이상이 완성됩니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대상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밀랍이 불 속에 들어가 녹으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성혈을 먹고 마실 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칠로, Commentary on St John’s Gospel, 10,2).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경건히 받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려 애쓰면서 성체성사의 풍요로움을 자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성체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허약함과 죽음을 막아주듯, 성체는 영혼을 나약하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소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를 막아줍니다. “찾은 영성체나 매일의 영성체를 통하여 영성 생활은 더욱 충만해지고, 영혼은 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표징을 받는 것입니다.” (바오로 6세, 훈령 Eucharistic Mysterium, 1967.8.15., 37항). 음식이 육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듯, 성체는 우리의 성성(聖性)을 길러주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 대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훈령, 7항).

성체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도록 해줍니다. 또한 노동의 기쁨과 완성도를 높여주며, 인간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의연함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들과 실수들을 견디어 낼 힘을 줍니다.

“스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요한 11,28).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외면하지 맙시다.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우리는 그 만남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 2 자주 또는 날마다 하는 영성체. 성체 조배. 신영성체

우리는 많은 나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체 안에 계신 스승님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루카 14,16)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지만,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핑계를 무효로 만듭니다.

신영성체로써 온종일 영성체에 대한 갈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영성체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려는 뜨거운 열망이며, 마치 그분을 영접하듯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Visit to the Blessed Sacrament, 1965.9.3., 67항).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노동의 향상과 타인에 대한 봉사에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사를 우리의 하루의 중심에 두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성체 조배’도 매우 유익한 실천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사랑과 흠숭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6세, 회칙, 「신앙의 신비」 (Mysterium Fidei), 1965.9.3., 67항). 그리스도와의 항구한 일치를 위해 요구되는 친밀한 인격적 대화를 위해서는 감실 앞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성인전에도 나와 있듯이, 그곳은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직장에서나 거리, 어느 곳에서든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촉구하는 곳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서는 더욱 다정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쉽 없이 뛰고 있는 그분의 심장은 “모든 생명과 거룩함의 원천”입니다. (성심 호칭기도; 비오 12세, 회칙, Haurietis aquas, 1956.5.15., 20항, 34항 참조). 성체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당신을 방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적한 곳으로 떠나와 잠시 쉬어가거라.”

그분 곁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평화를 찾게 될 것이고, 목전의 일을 잘 마칠 힘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체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여러분은 묻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흠송하며, 그분께 감사드리며, 청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환자가 의사 앞에서 무엇을 하지요? 수정처럼 맑은 샘을 보고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위와 같은 곳)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모님을 따라 ‘정결과 겸손과 헌신으로, 성인들의 기개와 열정으로’ 주님을 받아 모시는 법을 알려 달라고 성모님께 청합시다.

#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요한 6, 60-7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열들을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요한 6, 61-70)

## 그리스도를 따르기

**1 사도들처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목표인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난 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을 떠났습니다. 성체성사의 신비에 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았

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 남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당신께 대한 충성과 무조건적인 신뢰를 재확인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를 대표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기록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의 염원을 누가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언제나 ‘예’라고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 생명, 사랑을 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것의 유일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신 그 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될 목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다른 많은 기회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대한 우리 순종의 진정성을 성찰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물리치는지 알아보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저도 양심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성덕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합니까?”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4).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그러겠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길들,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아니오’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 2 길 위의 표지들. 그것들을 따를 우리의 자유

카파르나움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충실한 지지를 재천명한 제자들처럼, 어느 시대 어디 곳에서도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걷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 앞에 천국으로 향하는 활짝 펼쳐진 길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해진 준거도 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자유가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주며,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거부하는 자유의 놀랍도록 유쾌한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자유는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이 필요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6). 우리 자유의 북극성, 매 순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의 날들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면 지푸라기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란 자신의 열정에 몸을 맡기거나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는 자신의

충동이나 본능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가 명백히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그럼에도 자유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인정하고 선 자체를 갈망하면서 책임 있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요한 바오로 2세, 1988년 6월 6일 연설)는 것을 망각합니다.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고 약화시킨 사람은 모든 인간에게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목적이 자유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 Burke, Conscience and Freedom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진정 그리스도이시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여정의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갈라놓는 장애물들을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엄청난 은혜이자 확실한 길잡이로 여기며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신중하게 지도를 보고,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표지를 따라갑니다. 그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지도나 표지, 길잡이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확신이 없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가 만나는 표지들은 그에게

안도와 위안을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상 믿지 못할 우리 자신의 방향 감각보다는 지도나 표지에 훨씬 더 자주 의존합니다. 표지를 따를 때 우리는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크나큰 도움으로, 곧장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계명, 교회의 법과 가르침, 영성 지도 때 받는 충고나 힘든 상황에서 갈구하는 조언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자유, 곧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다른 길들은 탐험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해 주는 표지와 같습니다. “신앙과 도덕에 대한 가르침에서 교회의 권위는 하나의 ‘봉사’입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이끄는 길 위의 표지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권위를 누리기 때문에 마땅히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 권위는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음)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하느님의 표지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나 도로를 포기하고 대신 더 가파르고 좁고 힘든 다른 길들을 따르도록 권유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도록 요청받을지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기뻐할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가 오래 전에 선택했던 불과 며칠 전에 선택했던 우리의 삶 앞에 이루기 힘든 목표가 놓여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 3 참된 자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내맡기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지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인류에게 강요된 구속이 아니며, 성가신 짐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고 더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추어 주는 빛의 원천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진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참된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마침내 자신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계명들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나는 요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계명들에 기꺼이, ‘자유로이’ 복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충만히 자아를 실현하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8년 6월 6일 연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일, 건전한 오락, 가정생활, 우정, 모든 고귀한 것들에서 선익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따라서 우리가 요청받은 존재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세상에 대한 자기 존재의 초월성과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진정 자유로울 수 없거나 참된 자유를 증진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창조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요한 8,36). 또 사도 바오로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2코린 3,17).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남아 있다면 불의, 공포, 억압, 고통에서의 해방은 아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 자유롭게 위해서 인간은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자유는 이처럼 가장 깊은 차원,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차원에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종속, 자유에 대한 온갖 침해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평화의 날 담화, 1980년 12월 8일, 11항)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쁨, 우리 자유의 확대를 더욱 강하게 체험하는 동시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느님께 등을 돌렸거나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예 상태를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노예와 하느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딜레마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교만의 노예, 관능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진리와 정의와 선의 길을 닦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저의 자유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수많은 사슬이 풀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38).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도우심을 신뢰하며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고 ‘저의 자유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재천명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말한 성모님을 본받도록 합시다.

##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마태 15,1-20); (마르 7,1-23)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마르 7,1-8)

## 참된 정결

### 1 깨끗한 영혼

주로 이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썼던 마르코 성인은 여러 구절에서 자기 독자들을 위하여 유대인의 일부 관습들이 지닌 의미와 돈의 가치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결 예식은 단지 위생적인 이유나 예의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요구된 도덕적 결백을 상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로 들어가는 전례 예식의 일부였던 시편 24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시편 24,3-4 참조). 마음의 결백은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 예배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순전히 외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마음의 깨끗함과 같은 근본적인 측면들은 무시하면서 복잡한 예식을 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호이고 상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12.10. 참조)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운데 일부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놀라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겉치레의 형식적인 태도에 격한 반응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참된 정결 -시편 24 편의 ‘깨끗한 손’ (라틴어로는 *innocens manibus*)은 ‘씻은 손’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 간통,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사악함, 사기, 방종, 질투, 비방, 오만,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전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욕정, 곧 대죄인 색욕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결의 유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질적 재화에 대한 무절제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음모와 질투, 증오로 이끄는 태도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 하느님의 존재를 폄하하는 공상과 환상의 발단인 영혼의 나태함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외적 행동은 우리의 내적 성향으로 물듭니다. 사랑에 반하는 수많은 외적 결함들은 과민함이나 성냄과 같은

감정들에서 연유하므로 이러한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즉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이러한 모든 규범들 이면에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때까지 그 규범들은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결백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너무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기질들에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도록 예수님께 청합시다.

## 2 일상생활에서의 결백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마음의 결백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와는 거리가 멍니다. 우리는 마음은 씻지 않은 채 손과 접시를 ‘씻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백(관능의 영역에서의 정숙, 우리의 다른 감정과 성향들에서의 정직)은 진정 높이 평가받아야 하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 노력의 토대를 하느님의 은총에 두고, 이를 기쁘게 추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깨끗함(모든 사랑의 필수적 요소)은 일생의 즐겁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영혼이 하느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멀어지게 하는 태도와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일의 양심 성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혼은 또한 참회 성사를 자주 또 합당하게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해야 합니다. 이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당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며,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순수함은 사랑을 강화하고 성장시켜 주며, 인간의 존엄을 그 본래의 위치로 드높여 줍니다. 이러한 인간 존엄(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 선언, 1항 참조)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흔히 인간이 그것을 너무도 자주 포기한 듯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불순함의 원인이며 근원이라고 비난하셨던 그러한 욕구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행동에 자주 영향을 미치는 천박한 동기인 모든 형태의 이기심과 악의적 의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현상(인간 사랑의 변질, 전 세계적인 불순과 육욕의 공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가치 하락은 인간 존재의 핵심, 인간 인격의 본질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고려할 때 이는 전례 없는 역사적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J. Orlandis, *The Eight Beatitudes*, pp.114-115)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남자와 여자, 성인과 청소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누구나 하느님께서 주신 신분 조건에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삶의 모범과 말로써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순결은 “사랑의 요구이자 인간 마음 안에 있는 내적 진리의 차원”(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12.3)이며, 그것 없이는 하느님이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투신에 충실함, 용덕, 일반적인 상식,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를 지혜롭게 행동하고, 영혼의 건강과 온전한 영성 생활을 해치는 기회들을 피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감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빠지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음담패설에 끼어드는 것을 거부하고 대화의 격조를 높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옷을 입는 방식에서, 개인적 청결에서, 놀이를 할 때에 우리는 단정함과 검소함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모습을 비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행이거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는 장소라 해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도덕한 행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콤플렉스도 가지지 말도록 요청 받습니다. ‘외설’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에서 온 것이며, 그 은밀한 성격 때문에 관중들을 존중하여 “무대에서 공연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에 매우 관대하였던 이교 문화조차도 공개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시각을 잃어버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또는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 ‘이교적 자연스러움’을 따르며 시류에 이끌려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범속함과 인성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승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 3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잦은 고해의 역할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인격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원천을 이끌어내고 싶어하십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 (그리고 동시에 내면생활의 결실 가운데 하나)는 정결의 덕, 특히 순결의 덕입니다. (S. Pinckaers, *In search of happiness*, 141-142쪽 참조). 영어와 다른 언어들에서 ‘정결’은 ‘순결’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일반 알현, 1980.12.10. 참조). 그리스도교의 정결, 순결은 교회의 영광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 성덕의 가장 분명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에서와 같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화되지 않고도 “하늘 나라 때문에” (마태 19,12). 독신이나 동정 생활의 삶을 사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상태에서도 정숙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 가정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독신이든 기혼이든 양쪽 모두 각자의 성소에 맞는 같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듯이, “혼인과 동정 또는 독신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계약의 신비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Familiaris consortio), 16항)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부여 받은 신분 (독신, 기혼, 과부, 홀아비, 사제) 안에서 오늘날 하느님께 고귀하고 깨끗한 마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들 모두를 하느님께 이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청합시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주저 앉지 않도록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애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려 주시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이제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염원은 성령강림 대축일 전례 때 성령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로마 미사 경본, 성령 강림 대축일, 부속가 참조)

이러한 청원과 함께, 우리 마음이 불순한 생각과 욕망 뿐 아니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려는 실질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이나 불만을 품지 않도록 결심합시다. 온힘을 다해 질투와 시기, 영혼을 더럽히고 슬프게 하거나 외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마음을 언제나 점점 더 정화시켜 주고 선행을 위해 활짝 열려 있게 하는 참회 성사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잉태의 첫 순간부터 은총이 가득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맑게 하며 당신 아드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태 15, 21-28); (마르 7,24-30)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마태 15,21-28)

## 겸손의 미덕

### 1 이민족 여인의 겸손

마태오 성인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민족의 땅인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 고장에서 어떤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받아들이셨기에 대꾸하지 않으셨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부인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겸허한 인내로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도록 침묵하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154 A, 4)

그 부인은 아마도 오랫동안 졸라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녀의 노력에 질려 스승님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먼저 유대인에게 설교하러 오셨다고 그 여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대답에도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부인의 끈기에 이끌려 우리 주님께서서는 그녀가 즉시 알아듣는 비유를 들어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분께서는 또 한 번 당신이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 파견되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환영의 몸짓이 그분께서 사용하신 표현에서 풍기는 어떤 가혹함도 없애주었을 것입니다. 그분 말씀은 그 여자를 확신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크나큰 겸손으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 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참된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서 자녀들이라 부르는 이들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60 A, 2-4).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 여자가 “겸손을 통해 변화되었고” 자녀들의 식탁에 앉을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큰 칭찬뿐만 아니라 자신이 요구한 은총도 받게 됩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대로 될 것이다.” 나중에, 그녀는 분명히 신앙을 받아들인 첫 이민족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우리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와 사랑을 간직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 여자와 같은 믿음과 겸손이 없는 우리도 스승님께 열렬히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사도가 되어야 한다면 저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태양이 닿는 모든 것이 빛에 휩싸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명료함으로 채워 주시고 당신 거룩함에 잠기게 하시어 제 뜻이 드높은 당신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저를 당신께서 바라시는 도구로 삼아 주소서. 주님께서 받은 모욕을 참아 받는 어리석음을 저에게 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어 가난한 이로 태어나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고 십자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수치를 참아 받으시고 이제 복된 성사 안에 드러나지 않게 계시나이다.

제가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제가 제 자신을 알고 당신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성 호세 마리아, Furrow, 273). 이럴 때에야 비로소 저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또 제가 바라는 대로, 깊은 믿음과 큰 사랑으로, 당신을 따르는 길에 어떠한 걸림돌도 놓지 않고, 당신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2 겸손의 능동적인 특성

안토니오 아빠스 성인의 생애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악마가 사람들을 육아 매고자 준비한 올가미로 뒤덮인 세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이러한 환시로 두려움에 쌓여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주님, 그 수많은 올가미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에 응답하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토니오야, 겸손한 사람이 이를 피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에게 당신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만한 이는 악마가 놓은 덫에 빠지고 만다. 악마는 겸손한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꾸준히 겸손의 덕을 바라고 간청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이 덕을 바란다면 우리는 겸손의 반대인 교만의 중죄가 주님께 받은 우리 소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정생활과 친교를 해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행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악마의 가장 큰 협력자이고, 이로써 악마는 성령께서 계속 수행하고 계신 활동을 무산시키려 합니다.

겸손의 덕을 실천한다는 것은 교만과 이기주의와 허영의 조짐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겸손의 덕을 충만히 지니시고 교만으로 기우는 성향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humility)이라는 말은 ‘흠’ 또는

‘땅’이라는 뜻인 라틴어humus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상으로 ‘겸손한’(humble)이라는 말은 땅을 향해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덕은 하느님 앞에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 앞에 고개 숙인다는 것입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Three Age s of the Interior Life, vol II, p.670).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열등함,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궁핍함을 인정하게 이끕니다. 성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큰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성인들은 오직 하느님만 위대하시고 이에 비해 모든 인간적인 위대함은 공허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성녀 테레사, The Interior Castle, VI, 10). 무엇보다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거리가 무한하다는 위대한 진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자주 시간을 내어, 우리 안의 선한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느님께서 제안하시고 그분 은총의 도움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힘과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한마디 열망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1코린 12,3). 우리의 것은 결합과 죄와 이기 주의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성향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이는 일종의 무질서이고 우리 영혼을 참으로 끔찍한 상태로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Three Age s of the Interior Life, vol II, p.674). 반면에, 은총은 우리 영혼이 빛나게

해주어 천사들도 하느님 은총의 광채에 눈부셔 합니다.

그 가나안 부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비교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했고 선택받은 백성에 비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겸손했기 때문에 명백한 거부에도 인내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겸손과 용기와 인내 덕분에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겸손은 수줍음이나 우유부단함, 야망없는 평범한 삶과는 무관합니다. 겸손은 자연 질서에서나 은총의 순서에서나 우리 안의 선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한 것임을 밝혀 줍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느님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코린 1,4). 그러한 풍성한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 겸손의 길

“‘제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 하느님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전망과 겸손에서 비롯되는 품위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E. Boylan, *This Tremendous Lover*, p.81).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이 겸손의 덕을 바라고 끊임없이 청하여야 합니다. 겸손의 덕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힘이 없어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청원과 더불어 우리는 대부분 사소하지만 날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식할 때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그러합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책을 읽다가 문법적으로 잘못 읽었다고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적받은 대로 고쳤습니다. 나중에 그의 동료들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음을 그 자신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고쳐 읽었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문법의 오류가 복종이나 겸손의 결함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서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의 활동에 대한 칭찬이나 공치사가 없어도 일합니다. 그의 희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의 모든 부와 행복의 샘이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서로 칭찬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그들 자신의 눈이나 다른 이들의 눈에 그들을 낮추는 모든 것에 분개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 밖에서는 행복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자주 과민하고, 자신이 비판 받을 때 매우 분개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매우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의 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너무 바라고, 칭찬받고자 전전긍긍하며, 자기 주위를 통제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난파당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부여잡으려는 사람처럼 혼자 일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그들은 점점 더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같은 책, p.82)

겸손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이를 모든 선한 것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면서 자신을 잇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작은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굳센 손에서 모든 힘을 얻도록 이끕니다.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수많은 굴욕 앞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숙고하며, 예언 말씀처럼 그분께서 하신 대로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되고자 하면서, 우리는 겸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사 53,7).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의 겸손을 묵상하며 겸손을 배웁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아와 당신과 대화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당신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시는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길 바라는 모든 이를 받아들이십니다. 그토록 수많은 모욕을 참아

받으신 그분의 인내를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바람이 없으셨던 주님의 종 마리아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겸손의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며 온 생애를 예수님과 마리아를 위해 보낸 요셉 성인도 묵상해 봅시다.

#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마르 7,31-37)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르 7,31-37)

##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이야기하기

### 1 귀먹고 말 더듬는 이의 기적적 치유

복음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가락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뜻하며, (탈출 8,19; 아가 8,4; 루카 11,20 참조) 침은 상처 치유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치유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일지라도, 주님께서서는 다른 경우들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 방법을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어떤 점에서 성사들이 나중에 영혼들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더욱 심오한 영향을 표현하려는 의도이셨습니다. (M. Schmaus, Dogmatic Theology, VI, The Sacraments 참조). 이미 초 세기들에, 그리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A. G. Martimort, The Church at Prayer, Barcelona 참조) 교회는 세례 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동작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는 세례받을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귀와 입을 열어 주시어 뿔힌 이들이 귀로 들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유아 세례 예식 참조)

우리는 주님의 이 치유에서 영혼들에게 하시는 그분의 행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혀를 풀어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찬미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세례 때에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손의 손가락”(Veni Creator (성령 송가) 참조)이신 성령께서는, 전례에서 선포하는 대로, 우리 귀를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혀를 풀어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전 생애 동안 계속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복음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느님과 결합된 사람의 혀는 “좋으신 분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고, 갈라진 사람들을 일치시킬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널리 선포되실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311, 11). 만일 우리가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께 바짝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인간적 측면에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하느님에 관하여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 2 우리는 종교적 무지의 상황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귀가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영혼의 귀가 먹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귀가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도 많고,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은총의 초대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내로워야 하고, 집요해야 하며, 이해심이 넘쳐야 하고,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그들 자신도 모든 곳에서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도들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3항 참조)

도인들은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해야 할 때에 병어리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아 때부터 기도와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적절한 기회에, 필요하다면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동료에게 말과 행동으로 본받을 만한 쾌활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들 사이에서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하신 무수한 기회에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성덕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때조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환자 방문(만일 우리가 환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어떤 지향으로, 교회나 교황을 위하여 봉헌하라고 요청한다면, 그 환자에게 더 넓은 지평이 열릴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비방 기사에 관한 대화 등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모시는 무한한 기쁨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례 때에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쓰레기 더미 같은 교리적 오류와 견해들 때문에 어느 누구의 신앙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과 교회의 원수들은, 악마의 끊임없는 증오의 조종을 받아, 활동과 조직에서 어떠한 사정도 봐주지 않습니다. ‘모범적’ 초지일관으로, 그들은 임원진을 구성하고 학교들을 운영하며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선동가들을 배치합니다. 비밀스럽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퍼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정교하게 신앙 파괴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언제나 진리에 충실하게 하느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66). 어쩌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은가요? 세례를 받던 그날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온 생애에 걸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 3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영적인 방향 제시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였듯이,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며,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는’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적들은 예언자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 순종하는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간청하며, 또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위업을 명료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담대해질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사도 2,1 이하 참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나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에게로 끌어당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윗의 노래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기록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시편 97,12). [\* 영문은 Prov 21:28 곧 잠언 21 장 28 절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비슷한 내용의 시편으로 교체 - 역자 주] 이때에 계산적이 되거나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동원 가능한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을 얻으십시오. 되도록 점잖으면서도 재치 있게 그들에게 권고하고

참아주며 부탁하고 토론하며 신앙적 사안들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노, Commentary on the Psalms, 33:6-7). 하느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침묵을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르코 성인은 ‘열려라’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에파타’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명령형 충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없이 많이 우리 영혼 깊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열려야 했고, 우리의 혀는 풀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 상태에 관하여 참으로 성실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원수의 유혹, 우리의 작은 승리와 좌절에 관하여 무엇이든지 단순하게 설명하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지도에서 제시하신 수많은 제안들과 가르침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로 잘 들어야 했습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Three Ages of the Interior Life, I, p.295 etc 참조)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든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속임수와 고립과 독선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언제나 파격적일 수 있는 수단들을 선정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빈센트 페러 성인은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누군가에 의지하면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을 경멸하고, 스스로 만족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노력만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 또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모든 일에서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홀로 날카로운 지성을 지니고 수준 높은 영성 서적들을 가까이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성 빈센트 페러, *Treatise on the Spiritual Life*, II, 1)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에게서 우리는 하느님의 요청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히 투신하여 실천에 옮기시는 완벽한 본보기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주님 탄생 예고에서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께 ‘믿음의 순종’을 드러내시면서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계시 현장, 5항)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1987.3.25., 13항).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성모님께 가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사 하고 간청합시다.

#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태 16,13-20); (마르 8,27-30); (루카 9,18-21)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마태 16,13-20)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다 영토의 북쪽 국경 지경인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계셨습니다. 이곳 인구의 다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전적인 신뢰심을 가지시고 당신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던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 말씀을 들은 이들은 대부분 그분을 높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참으로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스승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애정을 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그분께서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변할 수 있는 피상적인 여론에 동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새 삶을 살고자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고 알려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분 신성에 대한 분명한 천명입니다. 예수님의 답변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스승님의 이 말씀에 분명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과 사명에 관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 세기가 넘게 교회가 설교와 사도직을 수행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참 신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도 확고하게, 신앙의 초자연적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여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하느님이시고 저의 임금이십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주와 역사의 중심”,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 (Redemptor hominis), 1항) 제 삶의 중심이시고 제 모든 행동의 동기이고 이유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기에 앞서 수난을 받으실 때 대사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르 14,61-62). 이 대답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천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에 대한 다니엘 예언자의 예언을 당신 자신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신적 초월성을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니 7,13-14 참조). 주님께서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말을 사용하여 당신 신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그분께서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단죄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확고한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한없이 우월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 줍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로마 미사 전례서-(Roman Missal), 니케아 신경). 그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지만 (요한 8,42 참조) 그분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십니다. 그분께서는 같은 신성을 지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와 일치하시어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요한 15,26 참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모두 성자의 것이듯, 성자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성령의 것입니다. (요한 16,11-15 참조)

그분께서는 최고의 율법 수여자로서 오십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마태 5,21-48). 옛 율법에서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시며 또 다른 이름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인간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계율을 제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힘을 발휘하십니다. (마태 11,28 참조).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듯이, 이 힘은 하느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매고 푸는 열쇠의 권한, 단속하고 용서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마태 18,18 참조). 그분께서는 세상 끝날 산 이와 죽은 이의 유일한 심판자로 앉아 계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마르 14,62 참조).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엄청난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감히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당신 인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요구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 10,38).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께 간청하신 대로 당신 스스로에게도 굳은 믿음과 무한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K. Adam, Jesus Christ, p.171 참조)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감실 앞에서 베드로 성인과 함께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좋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다른 선보다 탁월한 선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온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참으로 궁핍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부자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 -준주성범- (Imitation of Christ), II, 8:2). 그분을 절대 떠나지 맙시다. 많은 신앙 활동으로, 또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을 알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사랑을 굳게 다잡시다.

## 2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예수님께서서는 신앙의 초자연적 은총이 부족하거나 흐릿하고 모호한 채로 냉담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계십니다. 사도들이 그날 대답한 그대로 우리도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스승님을 높은

이상의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 라고 합니다.” 요한 세례자의 말이 오늘날에도 울려 퍼집니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 1,26)

오로지 신앙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는 교회 교도권과 일치되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시고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심을 믿습니다.”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Creed of the People of God), 1968.6.3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곧 구별되지만 나눌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한 위격, 성삼의 두 번째 위격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영원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의 가장 순결한 태중에 잉태되어 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극심한 가난 속에 태어나시니 하늘의 천사들께 찬송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함을 느끼셨고 여러 번 바위 위나 우물가에서 쉬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지쳐서 어부의 배를 타고 바다에서 잠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슬픔에 압도되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만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신 이 가장 거룩한 인성으로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습니까?” (루카 24,5 참조).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때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히브 13,8).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사도들과 당시 사람들을 위하여 어제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똑같이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엾은 인간은 때때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다른 곳들을 보느라 지쳐 있고 또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호세 마리아, Friends of God, 127).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 시야가 흐려집니다.

### 3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고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냉담이나 가려진 교만으로 악화될 때 그리스도인 삶이 성숙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긴밀히 따르려는 것은 그분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것처럼 친근하고 긴밀한 결합은 우리가 그분 계명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따르도록 이끕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많은 시도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린

자신의 경험을 우리와 나눕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기 위한 힘을 얻고자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신 분,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히 복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마침내 그 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 고백록 -(Confessions), 7,18). 우리는 한 인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요한 14,6 참조).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초자연적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미사 성제에서 이를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로지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흠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장 거룩한 인성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완전한 절대 진리, 창조되지 않은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우리네 삶은 방대한 거짓이 되어버릴 겁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손을 들어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와 목마른 그의 모든 백성이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민수 20,1-13 참조). 이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 4,14; 7,28 참조).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은총, 우리 영혼을 위한 초자연적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총, 타락하였다가 구원된 온 인류의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는 많은 방식으로 은총을 받지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샘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말씀의 위격과 결합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니계시면 내 삶은 완전히 공허해지고 나를 잃을 것입니다.

#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마태 16,21-23); (마르 8,31-33); (루카 9,22)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 16,21-23)

## 우리 삶의 십자가

1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금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즉시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당신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유다인들 손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마침내 사흘날에 되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 나라를 정치적 관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크나큰 사랑에 휩싸여, 시몬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길이 인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지임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했고, 수난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그에게는 모욕적이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54, 4)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이 비참에서 구해줄 더 적합한 방법은 없었다.”(성 아우구스티노, De Trinitate, 12-15)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막에서 악마에게 그러하셨듯 크게 화를 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카이사리아에서는 성령의 충동에 이끌려 말을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속물적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행, 희생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고 구원의 수단이라는 개념은, 베드로처럼 이런 경우에 사물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과 언제나 불협화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베드로 성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필리 3,18-19)

우리가 단지 세속적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경험상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갈망합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끔찍하거나 지속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본능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고행의 실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R. M. de Balbín, *Sacrifice and Joy*, Madrid 참조)

신앙은 우리가 희생 없이는 참된 사랑도, 참된 기쁨도, 영원한 평화도 얻지 못하고, 하느님을 소유하지도 못할 것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성덕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모든 사도직은 십자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살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4월 1일 연설). 날마다 우리는 그 책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할지 배웁니다.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 현대의 이교와 무조건적인 물질적 행복의 추구. 고통에 대한 두려움

“...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나중에 고통과 희생의 의미를 절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사도 5,41 참조)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은 고통과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결실 풍부한 삶과 같은 것이 있을까요? “결혼한 부부는 함께 고생해 보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정은 함께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단순히 힘든 일이나 노고, 등반의 위험을 함께 겪음으로써 단단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J. Leclercq, *Thirty meditations on the Christian life*, pp.217-218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 길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침착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내적으로 정화시켜 주는 자발적인 금욕에 관대할 때 삶의 초월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도 시대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1코린 1,23 참조)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 지상의 것들, 물질적인 행복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냥 오로지 물질적 행복만을 쫓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스며들어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집어 삼키려고 하는 물질만능주의의 공세에 인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교는 무조건적인 물질적 행복 추구하고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시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 참된 공포) 로 특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 죄, 십자가, 고행, 영원한 생명 등과 같은 단어들은 그 말들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Blessed A. del Portillo, Pastoral Letter, 1985.12.25., 4)

즐거움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쾌락 추구의 사고는, 복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상기시키셨듯이,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의 관습과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또한 “빈곤국들 내에 증대하는 집단들의 생활양식”(요한 바오로 2세, Homily in Yankee Stadium, 1979.10.2., 6)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물질주의는 민족과 개인들의 종교적 감각을 질식시키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우리는 오늘 미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을 따르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그리스도의 권유를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는 고통, 자발적 희생, 빈곤, 예기치 않은 질병을 이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기는커녕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일치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죽음의 수수께끼가 밝혀진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22항)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의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혁신은 괴로움을 생산적 고통으로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악마에게서 이러한 무기를 빼앗았으며, 그것으로 영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성 호세마리아, Furrow, 887)

### 3 인간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도직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승의 삶의 모든 것은 덧없고, 늙어가며, 한순간만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의복처럼 낡아버릴 것입니다. (히브 1,11). 하느님을 인지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영혼만이 그 창조주와 최후에 만나는 순간까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버립니다. 너무도 빨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하찮은 일들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구원, 실로 지상의 행복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열망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눈에서 사라지며,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도 한낱 무대 소품과 화면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야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00)

세상과 세상의 부는 결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현세적 목적조차도 엄밀히 말해 물질적 업적들 (기술, 과학, 산업의 성취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적 차원, 곧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위해 쓰여야 하는 노동과 물질적 재화를 매개로 한 인간의 능력, 사회적 관계, 문화적 가치들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사심 없는 사랑, 극기를 통해 정화되고 절제된 사랑만이 지상 재화를 합당하게 얻으려는 노력에 타당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의 중심이시라면, 그러한 사랑은 일상생활에 많은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혼인은

그것의 첫 번째 목적인 하느님을 위해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부부 간에 서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실 때에만 예술과 대중오락은 인간에게 가치가 있고, 인간 정신의 풍요로움을 참되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만 도덕성의 객관적 토대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고, 국가의 법이 하느님의 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인간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불가피성 안에서만 인간은 정화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구원의 원천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용과 희생에 뿌리박은 사랑만이 인간에게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해줄 것입니다.

#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마태 16, 24-28); (마르 8,34-9,1); (루카 9,23-2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마태 16, 24-28)

# 사랑과 십자가

## 1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이 고을 저 고을로 스승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피곤, 굶주림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따금 그들은 그들 평판을 걸고 사실 그들 목숨 자체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외적으로 그분을 따랐지만 차츰차츰 마음속 깊이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의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더욱 깊이 열린 마음은 단순한 초연함보다 더한 어떤 것, 곧 집과 가정과 물질 재화를 버리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관심의 중심으로 삼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제자는 그리스도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하루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꺼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리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단호한 결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걸림돌을 놓지 않고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무한한 가치와 사랑의 예물로 바치신 해골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자주 묵상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행하신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도, 어린이였을 때의 무의미한 행동조차도 모든 세대에 모든 인간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만큼 충분히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이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얻어 주시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기꺼이 당신 수난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당신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따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 영혼을 가득 채운 절실함에 대해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루카 12,50). 성령께서는 요한 성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요한 3,1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랑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는 원의를 참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외적으로가 아니라 깊게,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과 자기 증여와 밀접히 관련된 그 희생 제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 참 사랑,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고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일치시킬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투명해지며 거룩해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766)

## 2 고통의 의미와 열매

어떤 거룩한 사람이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잇따른 재앙이 그에게 닥쳤고 갈수록 더 나쁜 재난만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침내, 그 영혼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했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당신께 무슨 일을 해 드렸습니까?” 그러자 마음속 깊이에서 이러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였다.” 그는 골고타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자 하시고 하느님께서 멀어져 잃어버린 많은 이들의 구원에 가까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자 하셨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R. Garrigou-Lagrange, *The Saviour*, p.311)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여러 슬픔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들이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확신하십시오.” (성호세마리아, *The Forge*, 815). 이는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너에게 나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망치는 고통스러운 질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닥친 불운일 수도 있으며, 일종의 직업적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 드렸습니까?”라고 우리는 여쭙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끝없이 받아들여 지기를 바라신다고, 또 당신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는 다르다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버릴 때 우리는 아마 나중이라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위대한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까! (J. Tissot, The Interior Life, p.318)

그러나 우리는 흔히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시련 속에서 십자가를 찾습니다. 피곤하거나, 하고픈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세운 즐거운 계획들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결점이나 그와 관련하여 작고 기대치 못한 모욕을 참아내야 할 때, 기도의 메마름을 느낄 때가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러한 크고 작은 상황들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소중한 보물로 바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상황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을 때, 이러한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많은 죄와 우리의 죄를 보상하는 한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슬픔을 사랑으로 또 사랑을 위해 견뎌낼 때, 이 슬픔은 또 다른 많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우리 죄를 보상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는 우리 영혼을 정화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우리의 특성과 개성을 깊고 굳게 해 줍니다. 이는 우리 이웃을 향한 어떤 특별한 이해와 연민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적 생명으로 마음을 열게 해 주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더 긴밀히 결합되게 해 줍니다. 자주, 깊은 고통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시기를 수놓고 우리를 새로운 열정과

희망으로 이끅니다.” (E. Boylan, This Tremendous Lover, p.119).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게 해 주는 더 충만하고 더 깊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끅니다. 고통과 고난은 슬픔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영혼은 온갓 시련 가운데서도 평화와 깊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성인들의 삶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한 기쁨은 하느님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 3 고행을 추구하십시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의 목숨조차도 이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곧 그분을 닮고, 그분께서 지상에서 느끼신 바람과 감정들 우리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을 인내로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는 그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과 일치시키며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령 Paenitemini, 1966.2.17., 1)

그러나 우리가 시련과 반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버티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에는 너그러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에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고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충분히 슬픈 일로 넘칩니다. 저도 이미 충분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삶은 고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행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고행은 중요하고 값지지만, 진정한 참회 정신의 표지인 너그러운 자발적 희생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오리다. 주님,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다’(시편 53,8).” (R.M. Balbin, *Sacrifice and Joy*, Madrid, 1975)

교회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스도 수난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참회적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제안합니다. 이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생애의 슬픈 신비를 더 큰 주의를 기울여 숙고하거나 그리스도 수난에 대해 독서나 묵상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대를 참아내는 방법이나 관대함에 대해 더 신중히 살펴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관대함으로 우리는 작은 일들에서 자발적인 고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이나 나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욕심,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법에 대해서도 숙고해 봅니다. 또 다른 성찰거리로는 다른 이들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고행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일, 통명스러운

태도로 표출되는 안 좋은 기분에 휩싸이지 않는 일 , 더 심각해지려 할 때 미소 짓는 일 , 일이나 연구를 정확히 하는 일 ,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덜 먹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조금 더 먹는 일 , 간식을 먹지 않는 일, 우리 책상이나 옷장, 방을 깨끗이 정돈하는 일 , 호기심에 넘어가지 않는 일 , 우리 감각을 바르게 이끄는 일 , 지나치게 덥거나 춥다고 투덜대거나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불평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키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 없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서처럼 여기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키레네 사람 시몬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어떠한 시련에도 기죽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제 십자가가 지루함이나 슬픔이라면 어찌합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주님께 당신과 함께 기쁘게 슬퍼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252). 제가 당신을 잃지 않는 한, 어떠한 슬픔도 전혀 슬픔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책, 253)

# 어떤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다

(마태 17,14-20); (마르 9,14-29) ; (루카 9,37-43)

"그들이 군중에게 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 17,14-20)

## 믿음의 힘

**1 믿음은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태도와 말은 그의 기도가 겸손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능이 아닌 그분의 연민에 호소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지도 값진 어떤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비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을 찾는 것은 언제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고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왜 그들은 그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 14,12-14).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주해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나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그를 통하여 지금 나 혼자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Commentary on St. John’s Gospel, 72,1)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미사 복음 구절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그들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속담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날마다 교회안에서 그대로 아니 그 이상 성취됩니다. 일부 교부들은 어떤 사람이 은총의 도움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이를 수 없는 것을 이를 때마다 ‘산을 옮긴다’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그리고 사도직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인격적 성화 활동도 이와

같습니다. 모르고 지나칠지라도 이 활동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많은 거룩한 영혼들의 삶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들과 다른 성인들은 수세기에 걸쳐 물리적 질서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기적은, 무지로든 영적 세속화로든 죄의 죽음에 빠져 있던 영혼들이 하느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The Navarre Bible, in loc).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

“스승님의 이 말씀에 담긴 약속은” (성 호세마리아, The Way, 585). 바로 우리의 내적 삶, 사도직,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 2 장애물이 클수록 은총도 큽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당신 이름으로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마르코 사도와 (마르 9,29) 이 구절을 기록한 다른 수사가들은 우리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사도들은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죄나 종교적 무지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이러한 기도나 단식의 수단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해 온도가 다른 여러 종류의 금속도 이와 유사합니다. 나쁜 습관에 젖어든 일부 영혼의 굳은 마음은 더 강한 초자연적 수단을 요구합니다. 이 영혼들이 기도와 단식의 결여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초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수단들을 기꺼이 활용하도록 우리를 다그치는 그러한 믿음을 청하십시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1요한 5,4).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길에 마주치는 가장 큰 장애물인 산이 우리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싸움에서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in nomine Domini) 기뻐하며 안전하게 걸어갑시다. 결코 비관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느님 은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더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은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도움은 세상과 악이 사도직 활동을 막고자 세워 놓은 장애물에 비례합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로 저는 감히 어려움이 선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도움도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로마 5,20).” (Blessed A. del Portillo, Letter , 1987.5.31., 22)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으로 영혼들 안에서 수행하시고자 하는 기적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인간적 전망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 친구와 지인들과 친지, 동료들의 삶속에 열어 주시는 지평을 좁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직에서 어느 누구도 ‘가망 없는 경우’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인들이 증언하듯, ‘불가능’이라는 말은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성경에 읽은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신 하느님의 손, 그분의 힘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586). 하느님께서서는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 3 행동이 따르는 믿음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내놓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하십니다. 그러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움직여야 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 안의 것을 움직여야 합니다. 은총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에도, 희생에도, 겸손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모두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받을 것이다’(마태 21,22).’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03).

믿음은 날마다 실천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야고 1,22)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속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권고하듯, 하느님 말씀을 듣거나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삶을 낳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우정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우리 일, 우리의 슬픔과 기쁨, 모든 것으로 하느님께 접근하여야 합니다. (P. Rodriguez, Faith and Life of faith)

매우 흔한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 부족에서 비롯되거나 더 커집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에 지나치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너무 신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향의 순수함이 결여된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냉담은 우리에게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뭐든지 어렵고 대가가 큰 것으로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열정과 결심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대가가 큰 것이라도 뭐든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 제시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 De Compunctione, 1,5)

믿음의 삶은 깊은 인격적 겸손에서 나오는 건전한 ‘종합적 우월성’으로 이끕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되새겨 주듯, “믿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 속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 *Catena aurea*, vol VI, p.297).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깊은 확신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은 비록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의 영혼이나 사도직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에 맞서 싸웁니다. 기도와 고행으로, 우정과 기쁨으로, 우리는 영혼들 안에 그러한 큰 기적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념을 수 없어 보이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친구들을 고해성사로 이끌며 다른 이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는 길로 다시 들어서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기도와 성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맺는 긴밀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받은 사명에 온전히 일치한 좋은 표양”이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계획을 아시고 이를 당신 것으로 삼으십니다. 성모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보태진 것이 없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데에 자신의 지식과 의지, 자신의 온 힘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결코 힘없는 꼭두각시가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유다 산악 지방을 거쳐 사촌 엘리자베스를 방문하시고자 기쁘게 길을 나섰을 때도, 어머니로서 당신 의무를 다하며 어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다니셨을 때도, 당신의 부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당신 아드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계셨을 때에도, 성모님께서서는 결코 힘없는 꼭두각시가 아니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대로 이루 어지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소명을 완수에 당신의 온 인격을 기꺼이 바치십니다. 이 소명은 성모님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관심사가 바로 성모님 자신의 관심사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계획이 하느님 계획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계획은 그분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J. M. Pero-Sanz, *The Sixth Hour*, Madrid, 1978)

## 성전 세를 바치시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마태 17,24-27)

## 성전 세

### 1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20 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원하도록 매년 20 드라크마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의무였으며, 심지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베드로가 — 예수님께 확인하지도 않고 — 스승이 성전 세를 내신다고 대답한 것은 주님께서 평상시에 성전 세를 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대화는 아마도 집 밖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에 가까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고대 왕국에서는 세금이 왕족을 위해 특별히 바쳐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대답은 쉬웠습니다. ‘그들의 신하,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자녀는

면제받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왕의 자녀들과 같은 위치에 계셨습니다. 당신 자신은 면제받는다고 밝히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집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6,15 참조). 그분께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태오 성인만이 기록한 이 복음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시로서는 적은 금액인 두 드라크마조차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뭇과 함께 베드로의 뭇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 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스타테르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뭇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스타테르는 네 드라크마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F. Spadafora, Biblical Dictionary, 바르셀로나, 1968)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것을 매우 큰 교훈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구도 지상 임금의 명을 어기지 못하도록 현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아들도 세금을 내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예수님조차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재화를 추구하면서 왜 그 재화들에 따르는 의무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상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 암브로시오,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IV, 73)

이 구절과 다른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 공익에 참여하는 것 등은 이러한 의무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 좋게 살아가게 해줄 행동 방식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Furrow, 332)

## 2 초기 그리스도인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표양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파견하신 것은 당신을 사회의 중심에 계시게 하라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 스승과 마찬가지로 —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 17,16). 세상은 자주 그들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자비로운 미소를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세속적이지도 않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전해 받은 신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관습이나 행동들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이 정당하게 속해 있던 사회 안에서 위화감을 느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설교를 할 때 사회의 핵심에 자리한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하곤 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부패로부터 막아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룩’은 밀가루와 완전히 섞이게 되면 발효 작용을 하여 한 덩어리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춘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감화를 받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에도 몸을 숨기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장벽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겪는 동안에 그들의 태도는 거칠지도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으며 누룩처럼 사회 대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서슬 퍼런 박해자들의 분노도 그리스도인들의 의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흔들여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범적인 시민들이었습니다. 가혹한 박해도 그들을 사회 부적응자나 반사회적 인물이 되게 하지는 못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 그들 동료들과 맺은 기본적인 연대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상의 공동 운명체인 자기 백성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폭력으로 뒤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Apologetics*, 28). 때로는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적 소명과 인간적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했고, 자기 권리를 행사했으며,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D. Ramos, *The Witness of the Early Christians*, Madrid, 1969)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시민들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올바른 양심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들은 성덕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국법을 준수했던 것은 “하느님의 벌이 무서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 (로마 13,5)이기 때문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초기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양심) 때문입니다,” (로마 13,6)라고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2세기 중반의 순교자 유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조세와 헌금을 온전히 지체 없이 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록 우리가 하느님 한 분만을 경배할지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당신들께 기꺼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사람들의 왕이며 지배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제왕의 권력뿐 아니라 지혜가 가득한 통치 기술도 지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 유스티노, Apologia, I, 17)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알려져 있는지, 훌륭한 이웃인지, 직장에서 훌륭한 동료인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3 사회의 선익을 결정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기

교회는 “땅 위의 도성과 영원한 도성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정신에 따라 현세의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43항) 늘 권고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정직한 노동을 통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에게, 나아가 사회에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새로운 직업에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들은 고루함이나 진부함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수업 준비를 하고 해마다 강의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주부들은

가정과 자녀, 남편을 돌보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임금을 주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나쁜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다 (히브 13,14 참조)는 것을 알지만, 그 때문에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신앙을 통하여 각자 부름 받은 그 소명에 따라 현세 의무를 더더욱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음)

그리스도인은 단지 자기 가족을 돌보고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웃이나 마을, 도시의 일들이 결정되는 곳에는 가능하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의 삶은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지니며, 그것은 신앙에서 나와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인 덕을 실천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애덕은 충만한 고결함과 품위를 지니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실질적 사랑은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할 때 실현됩니다.” (스페인 주교회의, Catholics in Public Life, 1986.4.22., 60, 63). 세상 한가운데서 성인이 되도록 부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에서 언제나 “고결함과 도덕적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바람, 사랑, 용기, 절제, 관용의 덕을 기르기 위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실천되는 사회적 정치적 참여는 완덕을

가르치는 엄격한 학교가 되고, 덕을 실천하는 힘든 수단이 됩니다.”  
(위와 같음)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오랜 그리스도교 유산을 지닌 곳들에서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하나의 새로운 거대한 집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넓은 세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사도직 활동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은 선교로 부름 받고 있으며, 누룩은 이제 쇠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J. Orlandis, *The Christian vocation of the man of today*, Madrid, 1973). 그것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떳떳한 시민이자, 세상 풍파 속에서 겪는 삶의 어려움들에 당당히 맞설 의지를 지닌 훌륭한 시민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 되찾은 양의 비유

(마태 18,12-14); (루카 15,3-7)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 18,12-14)

## 잃어버린 양

1 하느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량도 없고 응대도 없는 우리를 얼마나 자주

찾아오셨는지요! 그분의 배려를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은 그 어느 양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관심은 압도적입니다.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어찌 착한 목자의 어깨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잦은 고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나약하며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더욱 큰 도움과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백 번째 양을 급히 찾아 나서십니다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을 찾아 나서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직접 찾으러 오실 만큼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 베르나르도, Sermon for the First Week in Advent, 7항)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에 기대어 그 길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몇 번이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투를 계속하도록

해 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지도자는, 도망간 적은 없지만 한 번도 뛰어난 용기를 보여준 적이 없는 군인보다는, 처음에는 도주하며 후퇴했다가 전장으로 다시 돌아와 용감하게 적을 공격하는 군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회개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일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성화됩니다. 결점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쁜 것은 그러한 결점들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러한 결점들이 우리 성격이나 본성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강 상태는 영적인 비루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 2 하느님께서서는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의 결점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을 이상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이 모순되고 나약하며, 선을 행할 커다란 잠재력과 너무도 명백한 비참함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78년 10월 22일

강론). 그분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참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인간의 감추어진 열정 너머를 볼 줄 아시며,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험벗은 인간 내면의 자아를 꿰뚫어볼 줄 아십니다.” (K. Adam, Jesus Christ, p.112).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투쟁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개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랑, 개개인에 대한 그분의 배려와 관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진리이며, 언제나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고, 슬픔과 모순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마음속에 자리한 뿌리 깊은 비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유일무이하며, 어머니처럼 너무도 자애롭고 관대하여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질 것입니다 …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설교하는 추상적인 자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은 인간과 함께 고통받고 죽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인간의 고통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완화시킬 해결책을 알려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비참을 실제로 경험하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기 위하여 그것을 몸소 어깨 위에

깊어지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께로 끌어 들이고,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일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고통받기 위하여 당신 마음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같은 책, p.113-114)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형제요 친구라고 부르시며, 당신의 것과 그들의 것을 구별하지 않으실 정도로 호의적이셔서 그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어야 한다고 간주하십니다. (마태 25,40). 복음사가들은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셨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마르 8,2).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르 6,3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불운과 고통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영혼이면 누구든, 심지어는 이교도인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조차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 7,2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오는 사람들을 즉각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마르 1,21)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도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3)

그분의 사랑은 계급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니코데모나 자캐오,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같은 부자도 받아들여시고, 당신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계속 당신을 따라다닌 거지인 바르티매오와 같은 가난한 무리도 받아들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에는 종종 여성들이 예수님을 동행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루카 8,3).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욱 신속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는 외로움이나 애정 결핍 등과 같은 공통의 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으며,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는 몇 번이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에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체를 자주 정성껏 받아 모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성 지도를 받을 때, 형제적 충고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노력합니까?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돌볼 목자로 위임한 사람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 3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갈라 2,20). 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커다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당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당신 사랑의 유일한 대상인 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진리를 자주 묵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간 마음의 가장 낮은 기대치를 뛰어 넘습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 각자가 또는 우리 모두가 요청받은 소명,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성삼위의 생명 자체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이 숭고한 소명을 감히 짐작하거나 인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현세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꿈이거나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거나 심히 불충한 짓을 저질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암시하듯이, 주님께서서는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백마리의 양떼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이 착한 목자의 어깨에서

실 수 있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때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결점이나 잘못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좌절하지 말고 내적인 투쟁을 시작하고 또 시작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은 유일무이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듯이,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 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되기”(신명 31,8) 때문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사제들과 신자들이 미사를 시작할 때 시편의 다음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시편 43,4). 오래전 중장년기를 지낸 사제들과 신자들이 어렸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는 영혼,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명백한 비참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오시어,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대답할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겸손되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사랑을 키워 주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97). 이러한 염원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마태 18,19-20)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

## 가정 기도

### 1 우리 주님은 가정 기도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종종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일치와 구원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하느님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서로 지원해 주고, 최종 목적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서

매우 좋아하시는 이러한 협력은 서로 영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가족 사이에서 특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수많은 덕목들의 실천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셔서 특별한 선물, 곧 우리가 마음을 모아 청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공동 기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실천되어 왔습니다. (사도 12,5 참조).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내밀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는 사적 기도를 대체할 수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가정 기도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가정 기도는 우리가 이전 세대들에게서 받은 보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도로써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얻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 보배를 물려줍니다. “그들은 몇 가지 탁월한 수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식사 기도, 아침 저녁 기도, 가족 묵주 기도 등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언제나 생생하게 존재해 온, 날마다 이루어지는 짧은 신심 행위들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관행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신심 행위를 하는 것은 언제나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주일에 성당에 가서 뵙는 하느님을 낯선 분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성당에서건 집에서건 그분은 참으로 계시는 분으로 여겨지고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Conversations with Monsignor Escriva, 103)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복음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정 기도는 가정생활 자체를 그 목표로 삼고, 가정생활은 아무리 상황이 상이해도 하느님의 부름으로 파악되며 그 부름에 대한 자녀다운 응답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출생과 생일잔치, 이별과 돌아옴, 중요하고 장기적인 결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 역사 안에 하느님의 사랑 어린 개입을 표시해 줍니다. 그것들은 감사와 간청의 적합한 시기, 하늘에 계신 공동의 아버지의 섭리에 신뢰하며 가정을 맡기기에 합당한 시기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품위와 책임은, 겸손과 신뢰 어린 기도 중에 간청되기만 하면 분명히 내려질, 하느님의 한없는 도움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Familiaris Consortio), 1981.11.22., 59항)

가정 기도는 그 가족 전체에게 특별한 용기를 선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첫째가는 중요한 도움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초자연적 시야를 넓히며, 우리와 우리 가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시며, 가정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장애를 지닌 아이의 출산,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비추어 줍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뜻을 사랑하고, 가족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대신에 서로서로 하느님과 함께 더욱 굳건히 결합하게 됩니다.

## 2 가정 내 신심 행위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1티모 5,8). 바오로 성인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나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린 동생들에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하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가 가면서, 이렇게 뿌려진 첫 씨앗들이 계속해서, 아마도 죽는 그 순간까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영적 도움이 바로 이것이었습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경험하는 바에 따르면, 좋은 결과들은

이러한 자연적 초자연적 이끄심, 곧 사랑 넘치는 가정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신심 생활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최고의 사랑을 드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부모의 본보기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왜 부모의 의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위대한 일입니다.” (Conversations with Mon signor Escriva, 103)

그리스도인 가정은 언제나, 각 세대에서 수도 없이 거듭거듭 되풀이되는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수호천사 등에게 드리는 기도 곧 신심의 씨앗을 이루는 단순하고도 짧은 기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도들과 가르침들을 스스로 재빠르게 배웁니다. 그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식사 전후 기도의 의미, 어떤 힘든 일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의 의미, 성모님 그림에 입을 맞추거나 눈인사를 하는 것의 의미,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수호천사를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뚜렷이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 동화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된 수많은 젊은이들은, 예전에 그들의 엄마가 또는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감실 안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에 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준 것을, 또는 그들의 엄마가 긴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간청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아빠가 참으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를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도를 바치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또 한 분의 구성원이시며, 모든 것 위에 사랑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기도와 신심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간적 사랑도 키워 주고 우리를 아버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는 신심 행위들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 3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무르는 가족: 목주 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1요한 4,12). 성 목요일 전례에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러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은 한마음으로 일치하여 바치는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들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가정 기도로서 탁월한 것은 묵주 기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기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공고히 합니다.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이야기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십시오. 비록 묵주 기도의 한 부분이라도 가족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무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덕목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십시오.” (요한 바오로 2세, Address to families, 1984.3.24)

가정에서 묵주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부모들만 하겠지만, 나중에는 자녀 가운데 한 명이, 그리고 할머니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행 도중의 차 안에서 바칠 수도 있고, 또는 미리 합의한 시간이 바치면 더욱더 좋습니다. 아마도 지역에 따라서 저녁 식사 전이나 직후, 또는 다른 때가 적절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또 다른 기회에, 묵주 기도와 삼종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더더욱 하루 동안 용기와 확신을 얻는 영적 오아시스여야 한다.” (요한 바오로 2세, 삼종기도 in Otranto, 1980.10.5)고 가르쳤습니다. “가정 묵주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0년 10월 12일 강론)

교회는 가정 묵주 기도에 대하여 많은 은총과 대사를 베풀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이 기도, 그리고 “교회, 국가들, 온 세계가 통상적이거나 특별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바치는 위대한 공적이고 보편적 기도”(요한 23세, 1961년 9월 29일 연설)로 간주되는 이 기도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합시다. 묵주 기도는 든든한 받침대로서, 가정의 일치를 지탱해 주고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최선의 도움을 줍니다.

## 매정한 종의 비유 (마태 18, 23-35)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썸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썸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푼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빛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 18,23-35)

## 우리가 하느님께 진 빚

### 1 주님께 받은 셀 수 없는 특은들

‘만 탈렌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빚쟁이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결코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창조의 선물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부모의 도움을 받아 우리 육신을 만드셨지만, 우리 육신과 함께 불멸의 영혼을 만드시어 우리 육신과 영혼이 천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백한 바람에 따라 이 세상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존재의 보증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 육신과 영혼의 활력과 특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에 더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초자연적인 특은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아드님이신 구세주의 강생과,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곳 지상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이후 천상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영광을 입게 됨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를 교회의 아들딸이 되게 하시어 성사들을 받고, 특히 성체를 받아 모시는 축복을 얻게 해 주신 엄청난 선물을 빚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통하여 다른 신자들의 선행에 참여합니다. 매순간마다 우리는 이들 다른 신자들을 통하여, 기도나 자신의 노동이나 고통을 봉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천상의 성인들, 연옥 영혼들, 천사들에게서 끊임없이 특은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총들은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릅니다. 이 모든 은총의 원천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3, q.8) 구세주이시며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우리 영혼을 밝혀주며, 우리 의무를 다하도록 부추기고, 어느 순간에나 가능한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침묵하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도와주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선행을 위해 언제나 필요한 은총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 은총은 또한 우리의 결심에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바람을 심화하며, 덕행에 전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우리는 우리 성소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또 다른 수많은 은총과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을 갚을 수단도 능력도 없는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파산한 종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주인님,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청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빌려준 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느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따스함과 무한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분께 자주 아버지라 부르며 말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 때문에 힘이 난다고 말하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331). 우리의 만형인 예수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이상으로 모두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 2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감사 행위입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거룩한 미사에서 우리는 사제와 함께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감사의 행위인 ‘이 거룩하고 완벽한 희생제사’를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감사를 이 희생제사에 결합시킵니다.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굶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체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받아 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로마 미사 경본, 감사 기도 제1양식).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감사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아버지께 대한 끊임없는 감사 행위였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내적 태도는 여러 경우에 말과 행위로써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 11,41). 마찬가지로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음식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 15,36 참조).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루카 22,19; 마태 26,27)

우리는 나병 환자 열 사람을 치료하는 기적을 통해서 감사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8)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은망덕의 죄에 대하여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선물을 자신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하느님과 일치룰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한 4,10)하고 주님께서서는 은총을 스스로 차단하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J. M. Pero-Sanz, *The Sixth Hour*, 267)

값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선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는 거룩한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감사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미사성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지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과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시편 116,12).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날마다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신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봉헌 제물을 더하여 아버지께 성자의 희생 제사를 바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감사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제물을 인자로우니 굽어보시고 이를 받아들이소서.”(로마 미사 경본, 같은 곳). 감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또 다른 이유입니다.

### 3 모든 사람에게 대한 감사; 모든 잘못을 언제나 용서하기

미사 전체가 감사의 행위이긴 하지만, 이러한 면은 감사기도에 특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 …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의 평가에 상관없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경 쓰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미가’(Te Deum)를 부르며 당신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모든 것은 성부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표족한 날이 피부에 닿으면 상처가 날 수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거친 모서리를 다듬어 매끈하게 하고 우리를 완벽에 더욱 가깝게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609).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ut in gratiarum actione semper maneamus)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Ut in gratiarum actione semper maneamus).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표면화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 신문 파는 사람, 시중드는 종업원, 교통 체증 속에서 길을 양보하는 운전자, 골목길의 친절한 약사 등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썸을 치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죄와 잘못을

통하여 지게 된 모든 빛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모욕을 다 합해도 ‘백 데나리온’을 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 탈렌트 (약 6천만 데나리온)와 비교하면 우스운 금액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참으로 엄청난 모욕조차도)을 용서할 줄 알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진 그 엄청난 빛에 대해 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 부과하신 조건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날마다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잊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더 하느님과 닮게 하는 것은 없기”(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19, 7) 때문입니다.

## 혼인과 이혼

(마태 19,3-12); (마르 10,1-12); (루카 16,18)

"바리사이드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 19,3-12)

## 혼인과 동정

### 1 혼인, 그리스도인의 성소. 혼인의 존엄, 단일성, 불가해소성.

이혼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혼법을 단순히 결의법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개개의 행위와 양심 문제에 적용하는 법)과 관련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 헛된 질문을 문제의 핵심, 곧 혼인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고드는 데 이용하십니다. 모든 법의 최고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의 본질과 존엄성을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적 가치 위에 혼인의 영원한 일치와 불가해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을

뒷받침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부애의 본질, 자녀의 선익, 사회의 선익 등. 그러나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근본적 이유는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원하신 혼인의 본질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혼인의 유대는 너무나 강해서 죽음만이 그것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접착제가 좋으면 전나무 두 조각을 붙일 때 서로 너무 빨리 붙어버려 그 둘이 붙어 있던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그 둘을 부수어버리는 것이 더 쉽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3, 38).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을 하느님의 선물인 성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1항 참조). 혼인을 이러한 식으로 볼 때 가정생활과 부부의 의무, 자녀 교육, 경제적 안정을 위한 힘겨운 노력 등 이러한 모든 요구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23). 그러한 요구들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식별력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혼인한 사람들을 성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의 본질과 가정이 개인, 교회, 사회에 지니는 중요성을 더욱 완벽하게 이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 신적

제도인 혼인이 잡지기사나 자극적 스캔들에 대한 매스컴의 특별관  
관심, 수많은 시청자들의 의식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TV 시리즈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받은 자연법과  
같은 건전한 교리를 들려준다면, 우리는 사회 전체에 큰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특히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가정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덕행들  
— 상호 존중, 봉사 정신, 우정, 이해, 낙관주의, 기쁨, 모든 사람  
그러나 특히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 대한 관심 — 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2 동정의 많은 열매와 사도직의 독신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존엄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어서 제자들조차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를 위한 독신과 동정의 가치를 주장하셨습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indiviso corde) (1코린 7,34). 하느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인을 통하여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부부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천상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사도직의 독신 성소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투신을 통하여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성덕을 얻는 데 필요한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한도 조건도 없이 하느님과 사도직에 자신을 온전히 바친 명확한 부르심을 받은 일상 시민들입니다. 완전한 헌신에 대한 부르심은 하느님의 특별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길을 걷는 당신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교회는 각자 주님께 받은 개인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심 덕분에 성덕을 키워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천상 은총의 고귀한 선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으로 (마태 19,11; 1코린 7,7 참조), 동정이나 독신 생활 안에서 갈리지 않은 마음으로(1 코린 7,32-34 참조) 더욱 수월하게 오직 하느님께만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42항).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행위는 “교회에서 언제나 특별한 영예를 누리 왔으며, 사랑의 표지와 자극제로 또 세상에 있는 영적 풍요성의 어떤 특별한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위와 같음)

혼인과 동정 모두 교회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둘 모두 주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성소를 전제로 합니다. 동정과 독신

생활은 혼인의 존엄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들은 혼인의 존엄성을 재확인해 줍니다. “혼인과 동정 또는 독신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계약의 신비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6항. 1981.11.22). 만약 동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혼인의 존엄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성(性)이 창조주가 주신 중대한 가치로 인정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성의 포기도 의미를 상실합니다.” (위와 같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기술하였듯이, “혼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동정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인을 찬양하는 사람은 동정을 더욱 훌륭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Treaties on virginity, 10항)

동정이나 사도직의 독신 생활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증언은 하느님의 아들딸들에게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그분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한 새로운 길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교회 순결의 빛나는 표본입니다. “독신자는 육체적 출산력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적으로는 결실을 많이 내어, 많은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가족을 현실화하는 데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좋은 모범과 죽을 때까지 자기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증언을 독신자에게서 기대할 권리를 갖습니다. 충실성은 때때로 혼인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여서 희생, 극기, 자기 부정을 요구하듯이, 같은 문제가 독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독신자의 충실성은 시련 중에 있는 기혼 부부의 충실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곳)

“하느님께서서는 이 덕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동정 성모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이 덕 없이는 지상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암브로시오 성인은 말합니다. (성 암브로시오, *Treaties on Virginity*, I). 우리는 복되신 성모님께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 갈리지 않은 마음을 하느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언제나 있기를 자주 청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생입니다.

### 3 거룩한 순결, 인간과 하느님 사랑의 수호자

자신의 성소를 충만히 살려면 자신의 생활 신분과 일치하는 거룩한 순결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혼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거룩한 순결은 가장 중요한 덕은 아니지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이 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덕의 실천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또한 다른 도덕성의 영역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환경에 맞서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의 목자들은 그리스도인 행동의 특질들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조언은 좋은 예입니다. 그 조언들은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산으로 올라가 수도승이 되는 것인가요? 당신들이 하는 말에 저는 절망을 느낍니다. 당신들은 겸손과 순결이 단지 수도승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모두를 위하여 불문율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수도승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길거리의 남자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혼인을 금지하는 것도, 또 삶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절제하라고,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죄를 많이 짓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산으로 가거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속세에 살더라도 착하고 겸손하며, 정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7, 7)

품위 있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장소에 ‘그리스도의 향기’ (2코린 2,15)(bonus odor Christi)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덕은 다른 덕들을 수반하는데, 그 덕들은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제나 매력적인 행동으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덕들의 예를 들자면, 검소한 옷차림, 단정함, 과하지 않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나 교양 있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나태함과 도덕적 해악을 피하기 위한 휴가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유쾌한 삶의 표양, 인생의 기복 앞에서 견지하는 낙관주의, 삶에 대한 참된 사랑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결의 덕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모든 사도직에 너무도 중요하여,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수호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덕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양분을 얻고 의미를 얻습니다. 이 덕은 인간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 둘 모두를 보호하고 옹호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라면 젊음의 충만함 속에서 이 덕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마태 19,13-15); (마르 10,13-16); (루카 18,15-17)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마태 19,13-15)

## 어린이에 대한 축복

### 1 어린이들과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서들의 반복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까닭은 이들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신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모범으로 제시하시는 장면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갈릴래아의 카파르나움에서 있었고, 다른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예리코 근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유다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라고 마태오 성인은 기술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은 틀림없이 여인들, 곧 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누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으로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주님 바로 앞으로 떠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대하시는 익숙한 방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소동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어른들을 방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린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늘 나라에 확실한 자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이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Instruction on Infant Baptism, 1980.10.20). “이 법은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과 어린이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회는 이를 교부들의 한결같은 가르침과 권위로써 확인된 사도적 전통에서 물려받았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주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에게 성사와 세례의 은총을 거부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Catechism of the Council of Trent, II, 2, 32).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를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 제867조 1항)

세례를 통하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느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루 빨리 세례를 받게 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특별히 호의적으로 바라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복음 구절에서 당신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는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지니고, 오만이나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실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으며, 그렇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삶의 출발 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온갖 모험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점진적 일치를 이루는 길에 어떤 방해물도 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과정은 여러분의 온 생애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키아라 루빅, Words of Life, 47)

## 2 어린 시절의 삶과 하느님의 자녀됨

강생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에게 천사로 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약하고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마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듯이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인간이 되기를 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신 당신 아드님을 본받아 우리의 참 모습, 곧 하느님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한 힘없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1요한 3,1). 이 몇 마디 말이 우리 신앙의 근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 …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참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먼저 진실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성인들의 삶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활동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 생활에서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유익하고 칭송할 만한 현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백한 바람입니다. 비록 모든 성인이 이러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개개인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활동이었습니다. (B. Perquin, Abba, Father, 142 참조)

“어리석은 아이는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의 손가락의 가시를 빼내기 위하여 손가락에 바늘을 갖다 대면 발버둥치며 울부짖습니다. 반대로 현명한 아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의 어머니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를 살짝 아프게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현명한 아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329).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께 질병, 고통, 명백한 직업적 실패 등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 달라고, 그러한 역경에서 당신의 아들딸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웃으며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을 지극히 현명하신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의 뜻이거나 그분께서 허용하신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년기의 삶은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습니다.’ … 유치함은 개인적 미숙, 수양 부족, 내적 투쟁의 전반적 부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영적 유년기는 실질적인 성숙을 수반합니다. 곧, 초자연적인 시각, 신앙의 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건들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에 수반되는 것은 진실성과 단순성입니다. 그러한 덕의 소유자는 ‘민감한 아이’가 됩니다. … 반대로, 쉽사리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감정들과 생각들에 굴복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영적 유년기의 길에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단순한 사람은, 스승께서 지상 생활에서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진실한 어린이, 진실한 아들, 진실한 딸은 그의 아버지인 ‘아빠’(Abba)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B. Perquin, 같은 책, 143)

### 3 영적 유년기와 겸손

우리의 신심은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효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실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느님과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유년기는 많은 사람들의 내적 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묵상하게 해주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루카 18,17). 왜 어린이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묻습니다. 대개 어린이들에게는 악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자신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야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덕은 그들이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덕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의지가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유년기와 같은 상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지닌 순수성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 암브로시오,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18, 17)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린이가 되고, 하느님의 사랑의 포용안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어린이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사들을 있는 그대로, 참된 의미를 지닌 실제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우리 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유년기 생활은 우리가 오만과 자족으로 기울려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용덕을 요구합니다. 효심은 우리의 희망을 증대 시킵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며, 현세 생활에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삶의 어려움에 맞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견디게 해 줍니다.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도록 간청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나이와 인생 경험이 그분의 인도를 필요로 할 때마다 더욱 큰 보살핌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태 19,16-22); (마르 10,17-27); (루카 18,18-27)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 19,16-22)

## 기쁨과 관대함

### 1 부자 청년. 주는 기쁨.

이 장면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지로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직접 말을 건넬 용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어주고 더욱 사랑하고픈 열망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은 그 계명들을 모두 지켰다고 말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영혼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이 맑고 불안정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마르코 성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르 10,21). 예수님의 지극한 눈길, 꿰뚫어보는 잇을 수 없는 그 시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초대임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젊은이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다른 말로, 그 초대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하느님의 것들로 채우라는 것이고, 물질적 재화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바꾸라는 것이며,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M. J. Indart, Jesus in his World 참조)

그러나 젊은이는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그 재물로 여러 해 동안 즐기며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소유할 기회, 영원히 소유할 수도 있었을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스승에게서 그러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은 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영원으로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계획들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들 일 것입니다.

젊은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가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초대에서 어떻게 떨어져 갔는지 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 젊은이는 자신의 아량 부족에 대하여 틀림없이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자기희생에서 오는 영혼의 평화는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너무 젊거나 그 문제를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아까운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그러한 만남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로 끝납니다. 모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관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선택은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전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 해집니다. 기쁨은 아낌없이 내어 줌에서 비롯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던지시는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느님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내맡길 때 삶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며, 날마다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 2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며 부르십니다.

“그 청년은 주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복음서 표현에 따르면,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마태 19,22)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행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4). 그가 우리의 참된 운명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에게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우리에게 관대함이 부족할 때, 유해 잡초처럼 슬픔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영적 질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정상적 사랑에서 생겨나는 악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2-2, q.28, a.4 ad 1). 우리는 또한 허약한 건강이나 극도의 피로, 고통 때문에 슬픔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슬픔은 자만심과 이기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박탈감을 견디는 데서 오는 혐오 뒤에는 허영심의 가닥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육체적 고통 뒤에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결점을 하나씩 보는 데서 오는 실망감에서, 그리스도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슬픔 보다는 자신에 대한 슬픔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느님의 최고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내가 어찌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가책으로 불안에 싸여 슬픔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 Lopez Pardo, On Life and Death, Madrid). 우리의 잘못과 죄는 참된 회개와 새롭고 즐거운 사랑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주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도록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의무의 완수나

우리 삶의 계획에 대한 충실, 상상력의 자제, 정제된 애덕의 실천과 같은 작은 일들을 바라시기도 합니다. …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길을 건너오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세상 속에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무조건 버리고 당신을 더욱 가까이서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고,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등잔대에 놓인 불처럼 하느님 앞에서 타오를 줄 알아야 합니다. 제대 위에서 타는 봉헌 초처럼, 마지막 촛농 한 방울이 다 타버릴 때까지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4).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자신이 부름 받은 장소와 신분에서, 특히 하느님께 받은 특별하고 고유한 성소를 사는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의 성소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일입니다.

### 3 근심은 영혼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내어주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다.” 우리는 그 젊은이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망으로 끝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열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는지 … 그러나 그는 자기 재산을 내어주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가졌던 자유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자유였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장에 내온 물건과 교환하기를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한줌의 먼지와 바꾸는 것에 애석해합니다.” (성 바실리오, *Catena Aurea*, VI, 313).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선물을 선택하는 대신 그의 먼지와 부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근심은 영혼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옷 속의 좀처럼, 나무속의 구더기처럼, 슬픔은 인간 마음을 좀먹고” (잠언 25,20) 악으로 기울게 합니다. 우리는 근심이 우리 영혼을 덮치려 할 때면 언제든 곧바로 대처해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근심을 네게서 멀리 던져 버려라. 정녕 근심은 많은 사람을 망쳐 놓고 그 안에는 아무 득도 없다.” (집회 30,23). 이러한 상태에서는 불행한결과 말고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방향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에 차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참 기쁨이며,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고통, 병, 실패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을 결정적으로 배제하고 물리칩니다.

질투, 절망, 우울은 기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영성 생활에 너무도 위험한 이러한 고통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J. M. Perrin, *The Gospel of Joy*, Madrid, 1962)

슬픔에 젖은 영혼은 많은 유혹들에 놓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슬픔에 그 기원을 두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귀한 이상들이 슬픔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습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슬픔에 이끌림을 느낄 때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진실하게 그 원인을 성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대함이 부족함을 자주 느낄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이 기뻐 뛰놀지니 .

그곳에서 그대는 그대 슬픔의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줄 빛을 찾으리.” (성 호세 마리아, *The Way*, 666).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의 발자국을 따른다면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바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또 그들을 위해 작지만 지속적인 희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관대함을 성찰하여야 합니다. ...

우리가 마음에 슬픔을 느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하느님께 관대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관대해질 수 있을까? 나 자신과 나의

일들, 나의 건강, 나의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 우리는 원인과 치유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과 우정을 증진시키고, 작은 봉사 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관대함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포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영성 지도자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에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 형태 가운데 하나는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매력적이고 심오한 감정을 실질적으로 드러낼 때에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인이신 거룩하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한층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얻어 주소서.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에서도 결코 그분께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얻어 주소서.

사도들은 젊은이가 자신의 물질적 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젊은이가 작별을 고하는 것을 슬픔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슬픔은 하느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한 감정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망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 세상 것들도 채우는 사람은 누구든 주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느님 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를 수 있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느 한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또 다른 기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맘몬’은 주님께서 물질적 부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아랍어입니다. 이 말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상을 암시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하느님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의 본질 때문입니다. ‘맘몬’은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에도 권력의 도구로,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람들 간의 논쟁거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줍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계시하신 인간의 역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J. M. Lustiger, *Secularity and Theology of the Cross*, Madrid, 1987)

이 세상 것들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 일종의 우상 숭배를 실천하는 것이며 (골로 3,5), 따라서 그의 영혼은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집니다. (에페 4,19; 5.3 참조).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 (시편

## 2,2 참조)과 얼마나 자주 힘을 합쳤습니까?

물질적 재화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은, 그 수가 많은 적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어제 묵상에서 부자 청년과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물질적인 것들에서 초연한지 자주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검소하고 절제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 것들에서 초연한가? 내 몸의 요구보다 내 영혼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물질 재화를 사용하는가? 불필요한 지출은 삼가는가? 나의 번덕을 충족시키기를 거부하는가? 그릇된 요구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에 맞서 싸우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잘 돌보는가? ...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 4 부와 개인의 재능은 공동선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을 살기. 현세적 실제의 성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지상 재화는 사실 자신의 가족과 사회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쓰여야 하는 '재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재화를 사용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화하여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부를

불신이나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참된 가난의 영성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진정한 진보와 물질적 발전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모두 빈곤과 비참,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종류의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일반적 그리스도인의 청빈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청빈은 더 심오한 것, 인간 마음의 지향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이 하느님께 완전히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빈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앙 안에서 드러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덕과 물질적 부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적 응답은 초연함과 사랑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 부가 결여된 사람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하느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가난을 사는 데 필요한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분명히 관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거기에서 초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에 이끌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과 그 제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았던 여인들은 꽤 부유 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태오나 제베대오의 아들들과 같은 몇몇 제자들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확인된 아리마태아 출신의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27,57).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거두는 특전을 입었던 사람은 바로 그와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 19,38). 요셉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무덤을 내주었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의 가족은 아마도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러 왔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세리 자캐오에게 그의 집에 머물 수 있기를 청하셨으며, 이후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루카 19,5).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겉옷 자체도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솔기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짜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지상 재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섬길 때 가치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화는 선과 정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애덕 행위를 위한 도구로 전환될 때 고귀해집니다. 우리는 물질 재화가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물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사랑과 바람은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3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진리이시며 그 진리를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를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철저히 초연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우상을 만들고, 불필요한 ‘필수품들’을 소유하며,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자신의 번덕에 굴복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2 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쳐 주듯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69항)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연한지 성찰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초연함의 명백한 표시의 하나는 그 무엇도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524)

## 5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받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우리는 어리석은 겸손이나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참된 사회적 발전, 인간에게 더욱더 합당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에 걸맞은 삶의 조건을 허락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무지와 인간 이하의 상황에서 들어 올려주는 제도와 재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과

사회적 장벽을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기적인 방탕함으로 인간뿐 아니라 창조주를 모욕하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있고, 우리의 현재 환경은 소비주의 문화에 완전히 넘어간 듯합니다. 그러한 환경은 강력한 관능주의의 물결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한 관능주의는 “온갖 종류의 도덕적 탈선을 확산시킵니다. 에로티즘, 쾌락의 극대화, 술과 마약의 남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남용들은 하느님에게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의 깊은 불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 그 결과는 모두 우리 주위의 이상도, 기준도, 올바른 판단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A. Fuentes, *The Christian meaning of Riches*, Madrid, 1988). 그들은 주님과 그리스도를 거슬러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2,2 참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을 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인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부의 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대량빈곤화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물질 재화의 소유와 사용의 절제는 그리스인이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따르도록 해줍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이러한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이점에서 올바르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마태 20,1-16)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오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마태 20,1-5)

## 때를 가리지 말고

1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세상의 공동구원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 가는 집주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새벽과 아침 아홉시, 낮 열두 시, 오후 세시에 각각 일꾼들을 고용하려 갑니다… 그는 첫 번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나머지 일꾼들도 차례로 고용되는데, 알고 보니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후 다섯 시에 주인이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그 때까지도 일이 없이 서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주인은 그들도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곧 어릴 때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녁 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받는 품삯은 영원한 영광이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F. Moschner, *Parables of the Kingdom of Heaven*, 215 참조). 그에 더하여,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스승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생애를 보낸다는 것을 아는 동안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의 구원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고해성사를 보러 가라고 권하며, 우리의 기도생활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도록 초대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새로운 사도직 도구를 위한 기금 모금을 도와주고, 누군가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며, 다른 이들에게 성소의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다른 이들도 그러한 목적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슬기로운데 관하여’(On prudence), 1978.10.25)

우리가 모든 이에게 우리 소명의 기쁨을 전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es on the Gospels, 19, 2).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새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언제나 주의 깊게 살피고, 다른 이들을 포도밭에 데려가고자

안달하는” (위와 같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달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 2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주님께서서는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당신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가십니다. 매시간, 매 순간이 사도직을 위한, 다른 이들을 포도밭으로 데려와 일할 수 있게 할 좋은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 상황과 각자가 지닌 장점과 단점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기력 해져서 하느님에 대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오로 성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온 생애를 바친다고 해도 사랑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데에는 시간이 짧을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43)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직에는 사람이나 장소, 상황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였습니다. 사도직은 대개 자신의 가족들에서 시작합니다. - “사도들은 자신들의 종과 또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들을 호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별 없이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Aristides, quoted by D. Ramos, *The Testimony of the early Christians*). 많은 가정들이 가장 어린 종과 어린이들에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네 종들에게서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의 이웃과 고객들, 손님들, 사회의 지인들에게 신앙을 전했을 것입니다 … 군대 전체의 복음 전파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덕과 순교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군대 자체가 이탈리아,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다뉴브 강 기슭을 따라 순교자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궁극적 박해는 부대의 숙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G. Hamman, *Daily Life of the early Christians*, Madrid, 1986)

최악의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상황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데 유리합니다. 케사르의 로마 법정 앞에서 바오로 성인은 페스투스 총독과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 끌려온 죄인의 신분으로 말합니다. 그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신비를 제시합니다. “그가 것처럼 자신을 변론하자, 페스투스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성 베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사람이 자기 원수들을 비방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신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는 미쳤다고 생각하였다.’” (성 베다,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잠시 후, 아그리파스는 바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합니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26,24-32)

어째서 우리는 우리 친족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데려갈 수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도적 정신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일꾼들을 주님의 포도밭으로 데려가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든 우리가 공동의 구속자로 일하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 **3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살려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비유 속의 집주인이 할 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저녁때에 일꾼들을 모으러 나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늦은 시각에도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설명의 내용 또한 놀랍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는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례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답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잇달아 말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은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로 변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205). 우리 친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오후 한나절을 함께 보냈거나, 여행을 같이 갔거나, 혹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거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누군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지극하면 그 사랑은 아주 작은 기회에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스승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또 기쁘게 말하는 것을 듣고 감동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의 잘한 일, 고통 앞에서의 침착함, 다른 이들에 대한 명백한 사랑 등 좋은 모범을 보고 배움을 얻을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우리의 내적 기쁨에서 자극을 받게 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에 자신이 결코 부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 가운데 몇몇은 자신들이 받은 임금에 대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합의한 금액인 한 데나리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하는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예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장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도로 일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새 일꾼들을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충실히 섬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봉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데나리온 자체에 “임금의 모습”(성 예로니모, Commentary on the Gospel of St Mark, 4,3)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끝없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샅을 받을 뿐입니다.” (1코린 3,8)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어머니시요 예수님을 기르신 어머니시며,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보낸 시간을 잘 활용하신 분입니다. 저에 계도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데 저의 날들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좋으신 어머니여, 필요할 때마다 저를 부드럽게 꾸짖어 주소서. 제 시간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저의 온 마음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54). 우리는 요셉 성인에게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 혼인 잔치의 비유

(마태 22,1-14); (루카 14,15-24)

"예수님께서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려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마태 22,1-11)

## 혼인 잔치

### 1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잔치의 모습은 유대 민족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도래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놀라운 잔치를 준비해 두실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이사 25,6)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잔치는 강생과 구속,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성체의 은총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로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관용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차갑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손님들을 불려오라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는 슬픈 어조가

깃들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당신께 늘어놓을 온갖 변명들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고 방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다시 한번 보내며 이렇게 이르십니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손님들은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임금에게 반항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초대에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고, 더 큰 차원의 헌신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준비하신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실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 주십니다. 물론 커다란 잔치는 성체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필요로 하는 약”(성 암브로시오, *On the sacred mysteries of the altar*, 4, 44) 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영혼은 쇠약해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의 형상 아래

숨어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서 당신께 충만한 사랑과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체의 지극히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초대해 온갖 어리석은 변명으로 대응합니다. 성체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커다란 영광, 여러분이 함께할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빛나는 광채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감히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섞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과 살이 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82, 4)

많은 이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큰 사랑과 기쁨으로 받아 줄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강하게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을 불러오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분은 많은 이들이 올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보내시어 우리가 사랑과 인내, 효과적인 사도직을 수행하고 우리의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영혼의 절름발이는 그 어떤 육체적 불구보다 더 심각합니다.” (같은 책, 69.2). 그러나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 2 영성체를 잘 준비하기. 기계적 일상을 피하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주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 22.11-12)

날마다 우리는 지극히 정성들여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성찬의 잔치에 다가오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영광에 걸맞지 않은 우리 자신의 습관, 태도, 성격적 결함이나 측면들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남루하게 보이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최상의 것, 곧 최고의 조명과 음악,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91). 그 전날 밤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할 말, 여쭙어 볼 것, 어떻게 여쭙지 등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한 사람은 분명 그 초대를 듣고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혼인 잔치에 갔지만, 제대로 차려 입지 못해 그가 으레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않은 채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모인 교회는 “자기 양심에서 대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성체를 받아 모셔서는 안 된다.” (트리엔트 공의회, Dz 1646)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커다란 은총은 우리가 비록 대죄를 짓지는 않았더라도 잦은 고해를 통해 가능한 최상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님을 받아 모시는 순간에 정화에 대한 바람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 사랑, 겸손의 행위를

증대 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되갚습니다. … 먼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체의 만남은 사실상 사랑의 만남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1982년 10월 31일 연설, 마드리드). 잦은 영성체가 미온적인 영성체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미적지근한 태도를 배격한다 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잡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생각을 하면서 성체에 다가가는 것은 순수함이 크게 결여됨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적지근함은 사랑의 결핍에 다름 아니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영성체 하지 않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합당한 만큼 예수님을 받아 모시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가능한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중요하거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냥 부유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집을 방문하러 올 거라고 말을 한다면 집을 반짝반짝 쓸고 닦거나 손님이나 친구가 볼 때 지저분해 보일 것은 모두 치우지 않겠습니까? 악한 행동을 저질러온 사람이 자기 영혼을 합당한 거처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가 먼지와 때를 청소하게 두십시오.” (성 대 그레고리오, Homily 30 on the Gospels)

### 3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였다.” (시편 22편).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아주 쉽게 맞이하도록 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니 얼마나 기쁘지요!

찾은 고해는 찾은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언제나 정화에 대한 더 깊은 바람을 지닐 수 있고, 이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 더 큰 믿음과 소양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활하려는 노력과 하루 일과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더욱 큰 사랑으로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을 받아 모시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께 속죄하고 감사 행위와 신영 성체로 하루를 채워야 할 더욱 큰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일과 동안,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더욱더 주님께 굳건히 중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드린 간청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 모습 그대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요한6,69).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은 최후 만찬의 희생 제사로 시작되었고, 성체로 또 주님 자신의 완전한 증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을 키워 주십시오. … 주님께서는 저희의 희망, 저희의 평화, 저희의 중개자이시며, 저희의 형제요 친구이십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신다.’(히브 7,25 참조)는 것을 알고 저희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저희의 희망은 신뢰와 파스카의 기쁨으로 변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가는 길에서 저희를 재촉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감정들을 공유하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에 기대어 저희는 이 복음의 가치들을 세상 속에 심기를 갈망합니다. 하느님과 구원을 위한 그분의 선물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실천적 삶의 태도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당신 전부를 주시는 주님처럼 저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오로 성인처럼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필리 1,21)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삶은 주님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그러한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어떠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당신 어머니를 주시어 저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묵상하고 흠송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 모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성모님께서는 가장 완벽하신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곳)

# 가장 큰 계명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태 22,34-40); (마르 12,28-34), (루카 10, 25-37)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 25-37)

## 착한 사마리아인

1 사랑의 첫 표현은 우리 이웃을 신앙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은 이미 유대교 율법에 구체적

실행 규정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 예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 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 (레위 19,9-10). 성경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자비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양갓음하거나 양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 19,18)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희미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말은 다소 애매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씨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선택된 민족 전체인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우리 주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여쭙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매우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루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루카 10,25-37). 이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민족, 우정

또는 혈연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웃은 내 가까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 배경, 사회적 지위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면 그것으로 이웃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한, 상처받고 절망 속에 있으며 몸과 마음이 반쯤 죽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려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우려 한다면, 마음을 넓게 하고 편협함과 이기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오해받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없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힌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수치스럽게 박탈당하고 하늘에 복수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초주검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인 신앙 진리들을 배우지 못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의 악표양이나 매체들의 영향 때문에 그 진리들을 빼앗긴 자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온갖 물질적 인간적 가치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보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선포하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상처입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리스도교적 삶의 의미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Cardinal M. Gonzalez Martin, Free, in Charity, p.58). 동시에, 우리는 교육, 문화, 인간 발전, 노동 가치의 인정, 정직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열망 같은 좋은 일에도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 실천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사회 발전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종교생활에 관하여 인간 정신을 깨우치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같은 책, p.59)

## 2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들.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입니다.

비유는 계속됩니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람들은 그 상처입고 버림받은 여행자에게 아무런 육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모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걱정하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따로 있었습니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보다 자신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니다. 거기에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부상당한 여행자에게 베풀어야 했던 선행은 우리 주님께서 여자에게 해 주신 동일한 찬사, 곧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마르 14,6)는 말씀을 들을 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 준 것은 하느님께 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사랑에 목말라하기는 하지만, 너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약간의 빵과 옷가지, 나의 갈망을 달래 줄 약간의 위안을 바랄 뿐이다. 나는 간혀 있다. 나를 감옥에서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를 위하여 찾아와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며, 그 대가로 너는 하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수천 배나 힘든 감옥에서 구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네가 가끔 나를 찾아와 준다면 행복할 것이다.

사실 나는 이러한 요구 조건 없이도 너에게 왕관을 씌워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나중에 네가 와서 자신 있게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스스로 먹을 능력이 충분하지만, 너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을 청하고 너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바랄 만큼 내 사랑은 위대하다. 나는 친구로서 너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안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되며, 나에게 좋은 일을 해 준 너를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Romans, 15)

인종, 문화, 나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큰소리로 당신 제자들의 사랑을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88항)

### 3 실천하는 참된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보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복음서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곧바로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자신들에게 폐가 되는 어떠한 일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재빠르게 직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곤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쉽사리 핑계를 대며 서둘러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자비는 단순히 이론적인, 실천 없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실제적 도움을 베풀어 주는 자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그렇게 영웅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불행이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들 돌보아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경우마다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 이웃을, 이웃의 어려움을 놓으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황이 요구하는 바로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영웅적이거나 힘겨운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작고 단순한 일을 아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중대한 일만이 아니라 먼저 일상의 생활환경에서 힘써 실천하여야 한다” (사목 현장, 38항). 그것은 어떤 작은 봉사를 하는 것이거나,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거나, 고맙다는 감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거나, 미소를 짓는 것이나, 나그네에게 공손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가 긴급하게 해야 했던 일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써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종한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첫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정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 주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분의 말씀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자비심으로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그 실행을 위하여 복되신 동정녀께 의탁해야 합니다. “초자연적 감각이 넘쳐흐르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성부 하느님의 따님, 성자 하느님의 어머니, 성령 하느님의 배필이신 우리의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성심은 온전히 인간적이시며, 아무런 구별도 차별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801)

#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루카 10,38-42)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38-42)

## 마르타의 일

### 1. 주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시다. 예수님과의 우정.

복음은 예수님과 그분 제자들이 베타니아에 있는 그들의 벗인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 자로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2 마일쯤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벗들의 집에 머무시고자 성도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타니아에 들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기쁨과 애정에 둘러싸여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환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그분보다 더 충실한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우리의 사랑의 관심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이 따스한 가정환경에서 자매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어도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마르타가 언니로 보입니다. 루카 복음 사가는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고 하였습니다. 마르타는 주님과 주님 제자들에게 시중드는 일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마르타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특히나

뜻밖의 방문이었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타가 주님을 정중히 모시고자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타가 한 순간 평정심을 잃고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타는 주님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갖가지 세부적인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손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리아는 언니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앉아 그분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s 103, 3).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태도를 결합시키는 일치된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도적 열정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활동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기. 일터에서의 하느님 현존.

언니인 마르타는 자기 손님에 대한 참다운 신뢰심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불평하였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수 세기 동안 이 두 자매는 대조적인 두 가지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마리아는 관상의 길, 하느님과 결합된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타는 활동 생활을 몸소 보여준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관상 생활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무질서 아니면 그저 단순한 나태가 될 것입니다” (A. del Portillo, Homily, 1986.7.20).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일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 자신의 성화 소명에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 호세 마리아, Friends of God, 62).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인간적 덕목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덕목들의 수행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 활동에 대한 진지한 투신이 없다면, 깊은 내적 삶을 이루는 동시에 활기찬 사도직 생활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꽤 오랜 동안 세속 일과 내적 삶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일상의 활동 대신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또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인들을 성화의 삶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 일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성화하고 우리 자신을 성화하여야 합니다 (J. L. Illanes, On the Theology of Work 참조). 이것이 오푸스데이 설립자의 지속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수천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찾도록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인간 삶의 통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활동들 ‘안에서’ 또 이러한 활동 ‘으로부터’ 당신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이제 더 분명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날마다 연구실, 극장, 군대, 대학교 강의실, 공장, 작업장, 현장, 가정에서 또 방대한 모든 일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잘 이해하십시오.

가장 통상적인 상황 안에 거룩한 어떤 것, 하느님의 어떤 것이 숨어 있고, 이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상적인 일상생활 안에서 발견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가 그 가장 소소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돌아가 그 본연의 숭고한 의미를 되찾아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수단과 계기가 되도록 정화되어야 합니다 (Conversations with Mon signor Escriva, 114). 여기에는 마르타의 ‘노동 윤리’와 마리아의 사랑을 조화시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에게 애정 어린 조언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뭇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르타야, 너는 현세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만 나는 잇고 있구나. 너는 중요한 일은 깊이 염려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개인의 성화란다. 네가 갖가지 일을 걱정하느라 일할 때 하느님의 현존을 잃어버린다면, 네 일이 그 자체로는 좋고 필요하다 해도 그러한 걱정은 네게 유익하지 않은 거란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나 마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마르타의 물음에 대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지, 곧 그 집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시며 깊이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꾸지람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도,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가 전혀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 활동에서 예수님을 잇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님 ”이신 그분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옆으로 제쳐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사도직으로, 양성 활동으로, 자선 활동으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중요성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Address, 1986.6.20. 참조)

### 3. 기도와 일

우리는 삶의 일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 자체가 우리를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도록 이끌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에 쏟는 시간은 우리가 일을 더 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 직업과 영성 생활 사이에, 일과 기도 사이에 이루는 일종의 ‘협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은 기도를 살지우고 기도는 일을 살지웁니다. 노동이 본래 또 그 자체로, 전문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과 사회를 위한 봉사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봉헌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A. del Portillo, Work and Prayer, in Palabra, 1986.5)

우리가 일하는 동안 하느님의 현존을 간직하려면, 우리는 이를 떠올리게 해 주는 간단한 것들, 우리 일이 하느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돕는 작은 물건들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동료로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가장 가까운 경당이나 성당에서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게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바로 가까운 지성소로 가닿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께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 호세 마리아, The Forge, 746)

모든 현세 일은 바른 지향으로 몸담을 때 우리가 자선과 금욕,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 정신, 기쁨과 낙관주의, 우정과 확신에 대한 이해와 사도직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관심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모든 것의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일이 어느 모로 그분과 직접 연관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일치’를 실천하고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고 스승님께 소홀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마치며 우리는 동정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르타와 같은 근면함을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마태 23,1-12); (마르 12,38-40); (루카 11,39-52);  
(루카 20,45-4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마태 23,1-12)

## 행하고 가르치기

1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학생들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의 삶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선생보다 더 통탄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72, 1)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사도직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훌륭한 본보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부모들, 선생들, 사제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목자’인 모든 사람이 날마다 성덕을 쌓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천하는 모범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일치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깊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행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말씀과 행동의 일치는 언제나 놀랍고도 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루카 5,26).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증풍환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사이인들조차도 놀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요한 11,47).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증언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따라서 비난받을만 했습니다.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요한 15,24). 또 다른 기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이에게 분명한 것을 통해 믿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4,11). 주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르침을 알리는 수단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요한 5,36).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또 공적인 직무뿐 아니라 당신의 드러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계시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일들을 용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사도의 소명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참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행동 덕택에 실제로 교화되었으며,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사도 2,47)고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위와 같음).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의 이유를 설명하고(1베드 3,15 참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잘 이용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8,4)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한 신앙에 대하여 순교로써 최상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극단으로 치달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기어린 모습의 순교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강력한 마력이 됩니다. 수많은 개종은 순교자의 모범을 지켜본 결과입니다. 따라서 증인을 뜻하는 ‘순교자

'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계를 벌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관심사로 씨름하면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증오하지 않으니까,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광신자가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희생하고자 하니까, 평화인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22)

## **2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 모든 사람을 위한 훌륭한 행적과 애덕의 증거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1,1).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5항).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설교를 하거나 훌륭한 교리로 깨우침을 준 스승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서는 행동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모범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실천하고자 애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694)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나자렛에서 목수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노동의 구원적 가치를 가르치셨고, 우리의 직업이나 학문 분야에서 가능한 한 가장 큰 명망에 이르도록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체계적으로 일하며, 동시에 우리 주위 사람들, 곧 우리의 동료, 우리의 고객, 우리의 상사 또는 우리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역경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초월적 방식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식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직업적 성공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가 즐기는 방식에서, 미소 짓기가 아주 힘들 때조차도 평소의 유쾌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늘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화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켜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훌륭한 모범은 늘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서 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도록”(성 호세마리아, Christ is passing by, 105) 행동하여야 하고, 바로 성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코린 11,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비교해야 할 단 한 분의 유일한 본보기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이와 맺는 관계의 방식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뚜렷한 특징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사랑은 유쾌함, 직업적 명망과 더불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의 사도직을 수행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인으로 만들려 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영혼이 은총을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기쁨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통해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이미 사도의 길을 받은 걸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낄 때, 받은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사도나 교육자로서 하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비옥한 토지처럼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주님께서서는 의심 없이 따르고 신뢰하게 하는 우호적인 모습, 친절함, 훌륭한 태도,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효과가 있음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영혼들에게 선익을 베푸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 우리의 미소, 우리의 태도 등은 우리 사도직의 효율성을 조건 짓는 요인들입니다.” (S. Canals, Jesus as Friend)

**3 본보기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심지어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행동하고 가르치기: 본보기와 교리 … “가르치기 위해서는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적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것들(예: 계명들)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마태 5,19 참조). 만약 지키는 행위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충분하다면 주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곧 가르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행하는 자’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두 가지

일을 구분하신 것은 영혼을 완성시킴에 있어 행동과 말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On Priesthood, 4, 8). 우리는 모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크게 대립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의 신호,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 또한 신호이며, 하는 말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는 가르침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직이 생활의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된 사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든, 신자들을 가르쳐 굳세게 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든,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6항). 우리가 또한 우리가 찾은 ‘보물’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훌륭한 본보기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증인은 자신에 대해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쳐야 할 어떤 진리나 행위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과 당신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 둘 모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려야 하며,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주님에 대해 말할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매우 즐겁고 매력적인 길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데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된 마을 여인이 주님의 어머니께 찬사를 드리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루카 11,28). 성모님처럼 그 충고를 잘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우리의 결심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덕의 아름다운 본보기이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2

(마태 23,1-36); (마르 12,38-40); (루카 11,39-52;  
20,45-47)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태 23,16-19)

### 영성 지도를 통한 순응

1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여정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줄

##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자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사이들은 선택된 백성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지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짐은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을 다른 이들에게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없는 ‘눈먼 인도자들’ 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하나는 내면생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의 집을 지을 때 우리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줄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 그것을 하느님께 청해 봅시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 7,8).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선물을 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영성 지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길을 잘 아는 사람, 하느님에 관한 것들에서 교사, 의사, 친구, 착한 목자로 행동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 주고, 우리가 내면생활에 더욱더 힘쓰도록, 또 구체적인 것들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싸우도록 권유합니다. 지도자의 도움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받으며, 새로운 지평을 발견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에 들떠 있으며, 늘 우리 곁에 잠복해 있는 냉담함은 갈망의 불씨를 꺼버리려고 합니다. 초 세기부터 교회는 언제나 내면생활의 향상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 영성 지도의 실천을 권장해 왔습니다.

내면생활에서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충동적 본성,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객관성의 결여, 자기애, 우리가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하기 쉬운 것에 이끌리는 경향 등은 모두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절망하고, 냉담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영혼은 불붙은 석탄과 같아서, 그냥 놔두면 타지 않고 식어버립니다.

자신을 인도해 줄 지도자 없이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길가에 있는 주인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버려 익은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Spiritual Maxims*, 177-178, in *The Living Flame of Love*)

우리의 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매우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새 지평을 열어 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도울 특별한 은총을 지닌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들을 전달하여 그 감정들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영성 지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새로운 힘과 통찰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만납니다.

## 2 영성 지도에서 초자연적 관점

영성 지도에서는 많은 상식과 대단히 초자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관련하여 그에게 부여해 주신 위치 때문에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 놓습니다.” (F. Suarez, *Mary of Nazareth*, p.74). 하느님께서 바오로 성인을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은 바오로의 회개 동안 그에게 힘을 실어 준 하나니아스였습니다. 토비아를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대천사 라파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내시어 그의 긴 여정 동안 그를 인도하고 조언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영성 지도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초자연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일상적인 삶의 걱정거리들을 나누려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을 찾아가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우리에게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기도 안에서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이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해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쓰라림이 되고, 그 쓰라림은 오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잘못된 일에 관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 p.75). 우리는 ‘눈먼 인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 주기보다는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변덕에 들어맞는 충고, 그 외적 권위로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흘려 보낼 충고를 구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성 지도에서 초자연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특히 피해야 할 것은 가장 ‘호의적인’(성 호세마리아, Conversations, 93) 조언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조언자를 바꾸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특히 더욱 예민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혹입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마다,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들에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시도할 때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더욱 큰 자기 증여가 요구되는 성소를 발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우정을 포기해야

하거나, 기혼자들의 경우에 많은 자녀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에 맞추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인간적 고려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른 양심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거짓 ‘평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초자연적 관점이 결여된 것일 겁니다. 초자연적 관점은 진정성과 단순성으로 이끌어줍니다.

내면생활은 성숙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며, 하루 밤 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도 있겠지만 분명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도록 도와주고, 우리 안에 작용하는 은총의 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절망에 길을 내주지 말고, 즉각적 결과를 구하지 않으면서 여러 번 시작하고 또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즉각적 결과를 주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3 지속성, 진정성, 순응성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금욕적 고행에는 영성 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발적이거나 불규칙적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기복이 심해 점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겐 시간이 모자라거나 일이나 시험에서 오는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러한 노력을 새로운 통찰력과 은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또 다른 경우의 어려움은 내적인 것입니다. 곧, 게으름이나 자만심,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낙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적인 대화나 고해성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욱 큰 희망과 즐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와 투쟁을 계속해 나가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획 한 획이 모여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수많은 가닥이 꼬여 질긴 동아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성 지도의 지속성에서도 그러합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은 단련됩니다. 조금씩 실패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덕의 집을 지어 주십니다.

지속성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처음 뿐 아니라 나중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분명히 묘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는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핵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결과가 천천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란 위장이나 과장이 없고, 반쪽 진실이 아니어야 하며, 절제하면서도 상세하게 사물을 설명하고, 필요할

때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우리의 성격적 결함을 거짓 해명이나 모호한 변론으로 모면하려 애쓰지 말고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왜? 어떻게? 언제?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잘 드러나게 만들어 줍니다.

영성 지도가 결실을 맺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순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들에게 그들의 병이 이미 다 나은 것처럼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명하시자 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루카 17,11-19). 또한 사도들도 군중이 오천 명이나 되고 먹을 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자리를 잡게 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루카 9,10-17). 베드로는 호수 저편에는 고기가 없고 하루 중 적절한 때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루카 5,1 이하 참조). 바오로 성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여러 경우에 수많은 방식으로 드러난 그의 강한 성격이 이제는 그를 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동료들이 그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고, 이어서 하나니아스가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자 그는 주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됩니다. (사도 9,17-19)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자신의 고정 관념과 다르거나 자신의 경험과 상충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심한 사람은 순종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순종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고 또 지도받기 위해서는 영혼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어 진실하게, '옹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예레 18,1-7) 순종적으로 자신을 내맡길 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합시다.

# 끝자리에 앉아라

(루카 14,7-11)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7-11)

# 첫 번째 자리들

## 1 칭송과 명성에 대한 지나친 욕구

복음은 다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는 덕, 곧 겸손의 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정도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서는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초대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도착할 때 식탁에서 가장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지켜 보십니다. 손님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알고, 야망에 눈멀지 말며, 더 큰 목표들을 필사적으로 좇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야망들에 부적합하며, 조만간에 그 때문에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만의 형태 중 하나인 야망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안에 자주 깊은 불만을 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첫째 자리를 추구하느냐? 왜 다른 이들 위에 있고자 하는가?”하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묻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St Matthew's Gospel*, 65, 4). 모든 사람은 명성과 영광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야망은 단지 명성을 추구하고, 권위를 행사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는 무절제한

경향입니다.

참된 겸손은 사회생활에서 개인적 성공을 거두고, 필요한 직업적 명망을 누리며, 모든 인간에게 합당한 명성을 얻으려는 정당한 바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겸손과 양립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목적이 돋보이고 높은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명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의 덕은 수줍어하고 소심하며 범속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талан트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올바른 지향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서 그 талан트를 열매 맺게 하려는 마음이 들게 해줍니다. 겸손은 우리의 성공을 뺏내거나 우리 자신이 잘 낫다고 생각하려는 경향과 대치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혜로운 중용의 길로 이끌고, 모든 인간 마음속에 숨은 영광에 대한 갈망을 하느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1). 겸손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талан트와 우리의 덕을 인정하고, 그것이 타고난 것이든 은총의 소산이든 모두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요한 1,16).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에게 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불완전하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총을 곰곰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 은총들이 어떤

것인지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III, 5).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본질과 선하신 하느님의 위대함을 통찰할 때, 이는 우리를 우리 자리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줍니다. “아이구! 노새가 단지 임금의 귀한 향료들을 싣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냄새 나는 짐승이 아닌 것입니까?”(위와 같음) 하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물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삶과 무거운 짐을 실은 짐승의 삶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며,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시편 73,22. - 영문에는 시편 72,23으로 나오지만 내용상 73,22로 옮김-역자). 우리는 주인이 원하면 값비싼 보물을 싣고 가는 나귀와 같습니다.

## 2 겸손해지는 법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거기에서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느님의 보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라므로, 참된 겸손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작고 더 비참한

존재로 여길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성 호세마리아, Letter, 1931.3.24).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우리의 경이로운 존엄성을 의식하며 삶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겸손은 우리의 작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느님의 보물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시각 중에서 가장 참된 시각인 이러한 시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하고, 가장 담대한 정신적 용기로 채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토대를 하느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겸손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큰 존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한편,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알량한 칭송과 찬미를 구걸하러 다니는 행위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겸손은 우리가 내적 열등감(흔히는 상처받은 자만심의 결과)을 키우는 것을 피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다른 이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며, 하느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 채워주실 것입니다.”

겸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모욕적인 일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주님과 일치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상하고,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며, 그러한

일들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실망하지 말고 언제라도 감실로 달려갈 수 있기 위한 하늘이 준 기회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실 것을 주님께 청합니다.

이 겸손의 덕을 키우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완전한 진실성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양심 성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아 인식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어서 하느님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수없이 용서를 청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약점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영적 안녕을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 또한 확실한 겸손의 표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완고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자들은 매우 완고합니다.”(성 호세마리아, Furrow, 274). 지상의 일들은 한 가지 해결책만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다른 빛 아래서, 다른 그늘에서, 다른 윤곽으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곳, 275). 이러한 의견 충돌은 언제나 대화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양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견해 차가 있을 때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오만한 사람은 대화를 풍요롭게 하는 열린 대화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틀렸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정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겸손의 덕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을 만납니다. 영성 지도에 순응하기; 우리가 받은 지시와 충고를 잘 받아들이기; 늘 상존하는 자만에 대한 유혹에 맞서 싸우기;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 것들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우리 이웃들을 언제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기;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 3 겸손의 유익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그릇된 겸손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곧 우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참 그 자체이며 세상의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인간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우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쫓아와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무리에서 가장 꼴찌라 여겨 식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척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더 쉽게 상석으로 옮겨 가기를 바라는 목적에서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거나 온갖 겸손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III, 5). 프란치스코 성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눈을 내리깔지 맙시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 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합시다.” (위와 같음). 참된 겸손은 소박함이 넘치며,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에서 흘러나오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첫 번째는 충실성의 은총입니다. 오만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끌어주는 반면에, 오만은 그 둘 모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의 제1 독서(집회 3,19-21, 30-31)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야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이어서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겸손한 영혼은 하느님의 뜻을 더 쉽게 통찰하고 하느님께서 매순간 원하시는 바를 더 쉽게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오만한 영혼은 인간의 행복이 있는 하느님의 뜻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의 시선이 오로지 자기 자신, 자신의 기호, 자신의 야망, 자신의 목적 달성으로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에서도

자주 오판을 합니다. 병든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에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 그들의 견해, 그들의 것들을 존중하고, 특별한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끊임없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라고 바오로 성인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분을 통해 큰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 앞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겸손의 덕으로 나아가고, 겸손을 소중한 선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깨어 있어라

(마태 24,42-44); (루카 12,35-40)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루카 12,35-37)

## 깨어서 기다림

### 1. 양심 성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적이 쉬지 않고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1베드 5,8). 그러나 사랑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아가 5,2 참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품이 넉넉한 옷을 입었으며, 걷거나 일을 할 때에는 편리하도록 허리 띠를 둘렀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결전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예레 1,17; 에페 6,1; 1베드 1,13 참조).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 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가 올 때까지 깨어 살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Navarre Bible, notes to Luke 12,33-39 & 35). 우리가 삶의 끝에 이르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마치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초자연적인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 지상의 실재들을 그 참된 목적으로 향하게 하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직업, 사업, 휴식 등 세상일들에도 정당한 가치를 두기를 바라십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늘 나라를 차지하도록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인간적이며 그리스도인 장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만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원에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그 시간은 올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든, 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듯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밤중에 오실 수도 있고 새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므로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단 한 번 뿐인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쳤을 때에(히브 9,27 참조)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 축복받은 이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48항).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전혀 예기치 않게 오실 것입니다. (12) 1테살 6,2). “명심하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때를 안다면 도둑이 자기 물건을 훔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 도둑에게서 자기 영혼보다 자기 재물을 지키는 데 더 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Catena aurea*, vol.3, p.204)라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말합니다.

“깨어 있음은 의지박약을 나타내는 태만이나 경솔함과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2-2, q.54. a.3).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양심 성찰을 할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방식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균이 야생 동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험실에서 박테리아가 배양되듯, 겸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잘못과 실수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세균들은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양심 성찰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아지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 성찰을 통해 자신의 결점이나 허점, 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The Forge*, 481).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고자 하시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 2 작은 유혹들과의 싸움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사랑에 깨어 있고 냉담함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양심 성찰을 할 때 이러한 사소하고 세세한 것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신호들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신호들을 쉽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들은 더 큰 것들의 전조이며, 사랑은 그러한 것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프란시스 살레시오 성인은 작은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루 동안 그러한 유혹을 받을 기회는 수없이 많으며 그러한 작은 유혹들을 여러 번 물리치는 것이 단한 번의 큰 유혹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늑대와 곰이 파리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그리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않으며 우리의 인내심을 그렇게까지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 성인이 지적하듯 — 살인을 피하기는 쉽지만, 사소한 일들에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이웃의 재물을 훔치지 않기에는 쉬우나 때때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지 않는 건 쉬우나 대화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주망태가 되는 걸 피하기는 쉽지만 때때로 음주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Introduction to the Devout Life, IV, 8 참조)

일상의 작은 유혹들을 물리치게 되면, 우리의 내면생활이 강화되고, 우리 영혼은 거룩한 것들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러한 것들은 평범한 상황들입니다. 곧 잠을 깨거나 일을 시작할 때 ‘미적거리지 말기’.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인 하찮은 잡지들을 외면함으로써 우리의 호기심을 극복하기; 음식을 절제하기; 사회활동에서 금주하기; 다른 사람들과 유쾌한 대화를 하기 등... 확신하건대, “우리가 이러한 작은 적들에 맞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석의 박힌 영광의 왕관을 당신 나라에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위와 같음)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한다면, 우리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찰 것이며, 하느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마가 자신의 유혹이 오히려 우리를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유혹을 멈출 것”(같은 책, IV, 9)이라고 성인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충실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단단히 대비하고 깨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즐겁게 수행할 때 우리 인생은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 깨어 있어라2

(마태 24,42-44); (루카 12,35-40)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24,42-44)

## 각성과 사랑

### 1 영성 생활은 지속적인 각성을 요구합니다.

복음 전체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깨어서 지켜보고, 결코 잠들지 않는 적을 경계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의 결실로 가득 찬 손으로 하느님 앞에 서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올 것입니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날이 “밤도둑처럼” (1테살 5,2)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황 상태나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일상사에서 매일 매일이 하느님과의 만남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러한 깨어 있음을 기습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잘 무장된 보초의 ‘statio’ 또는 감시 근무에 비교합니다. (1테살 5.4-11 참조).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무 중인 군인처럼 망을 보고 있는 삶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J. Precedo, The Christian in the military terminology of Saint Paul, Roma 참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살고, 기도와 금욕을 통하여 깨어 있기 때문에 적의 기습 공격에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비유들로 태만, 부주의, 열정 없는 사랑을 경고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은 스스로에 대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신앙, 핏줄, 우정의 끈으로 특별히 결합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보도록 요구하십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 ‘밤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 방심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성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망을 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잠이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본다는 것은 “긴장하는 것, 바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분이 오십니다! 하고 외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길 바라며 창문 밖으로 목을 길게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R. A. Knox, A retreat for Lay People). 땅을 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바람으로 고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보호에 맡겨진 모든 사람과 그 외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들의 통공 덕분에 우리는 적을 발견하고는 경보를 울리는 보초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인의 오심을 목 빼고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보기는 주인의 땅을 지켜주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에 맞서 수백 가지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신중한종입니다. “이쪽에는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방, 저쪽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바닥, 이 방 저 방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주인이 안으로 들어올 때 집은 백퍼센트 주인을 반겨주는 듯 보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면 우리 각자는 그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책, pp.45-46)

방심하지 않고 깨어 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줄음과 미온적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명확히 한정되는 ‘개별 성찰’과 날마다 성실한 ‘전체 성찰’을 통해서 영성 지도에서

들은 말들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망보는 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새 계명'(요한 13,34 참조)을 매우 잘 지켰기 때문에 이교인들은 그들 서로간의 사랑과 보편적으로 예의바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필요에 대한 관심과, 어려운 시기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믿음에 충실하도록 돕는 것으로써 표현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테르툴리아누스가 'statio' 라 불렀던, 군사 용어로는 '망보기' (A. G. Hamman, *The daily life of the early Christians*, p.200 참조)를 의미하는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즉, 더욱 깨끗한 영혼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를 하고, 더욱 큰 위험이나 궁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단식과 고행을 엄수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룩투오수스 성인은 순교를 당하던 날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의 'statio', 그가 '망보는 날'(Martyrdom of St Fructuosus, in *Acts of Martyrs*, Madrid 참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공통의 신앙의 유대로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서로를 위해 참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십시오.’하고 이교인들은 말합니다. … 우리가 서로를 지칭할 때 쓰는 ‘형제’라는 말에 대하여 이교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 우리의 공통 어머니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로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공통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 똑같은 무지의 태에서 나와 똑같은 진리의 빛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Apologeticus, 39)

우리가 인류의 빈곤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의 이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주의 깊은 사랑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간의 어느 하루를 정해, 더욱 열심한 기도와 더욱 큰 고행의 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존중의 표시로, 더욱 친절한 형제적 충고로 신앙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사를 지키는 보초처럼, 적의 접근을 감시하며 알리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더욱 큰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수꾼, 밤에 이상 없는가?” 여러분은 자기희생의 태도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사랑과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또한 좀 더 기도하고 고행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동안 깨어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성 교회는 전투 대열을 갖춘 대군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군대 안에서 적과 교전을 벌이는 한쪽 ‘전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날들을 날마다 망보는 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urrow, 960)

### 3 망보는 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본 바를 보고하게 하여라. 병거와 두 줄 기마대, 나귀 대열과 낙타 대열을 보면 주의를 기울여,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여라. 망꾼이 외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사 21,6-8). 파수꾼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바빌로니아의 침입자들을 망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강요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도록 도와주고 더욱 큰 형제애를 나눈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매주에 하루를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아가

5,2).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영적 자산에서, 하느님께 바쳐진 모든 기도와 희생과 선행에서, 이 세상 모든 병자들의 고통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어느 곳의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 영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자비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심판의 순간에 하느님 대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에서 우리를 지켜 주었고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었던 그 모든 총체적 노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는 또한 신앙 안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했던 일들, 당시에는 하찮고 가치 없어 보였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희생과 노고와 기도의 효력을 무한한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금욕, 그들 삶에서 우리의 행동 덕택에 구원된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향을 일으키며 다른 이들의 삶에 추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제대 위에서 새로 위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긴밀히 결합되어 모든 이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정성되이 기도하고 하느님께 우리의 노동을 바치면서 우리의 임무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하고,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며, 금욕에 너그러워지는 동기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 17,19 참조).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이 임무를 완수하며, 금욕을 하기 위한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애정으로 우리를 굽어보실 것이며, 우리가 당신 곁을 떠나도록 놓아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기도 한 예수님의 형제들을 직접 참고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사랑, 이러한 ‘망보는 날’ 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형제의 도움을 받은 형제는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요청해 왔던 형제적 정신을 실천하려는 결심을 하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The Way, 460)

‘망보는 날’ ... 우리의 모범으로, 모든 이에 대한 많은 단순한 봉사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삶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작은 금욕들로 사랑에 더욱 힘쓰는 날, 형제적 충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날, 특정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묵주 기도나 ‘생각하소서’(Memorare) 를 바치면서 “조난자들의 항구이시며,

세상의 위로자이시고, 포로들의 해방자, 병자들의 기쁨“(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Visits to the Blessed Sacrament, 2) 이신 성모님께 더욱 자주 의존하는 날.

# 열 처녀의 비유

(마태 25,1-13)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13)

## 사랑의 기름

1 예수님과 이루는 친밀함은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기름입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이웃들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 방심하지 말도록 하시려고 이용하시는 유다인의 관습에 대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 비유에 대해 해석하면서 말한 것처럼,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es on the Gospels*, 12, 2) 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에 들어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소가 요구하는 자기희생의 수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조금씩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요구를 안락한 삶과 양립하려는 경향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안락함과 쉬운 길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는 환경의 압력을 영원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되고 맙니다. 처음에 그들은 선의로 가득 찼으나, 금방 지쳐버려 그들이 온종일 기다려온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서는 선행의 빛도 없이 꺼진 등불을 들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 해를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마지막 날에 그의 행동들이 사랑과 애덕의 기름이 없어서 초자연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엾은 일입니까! 애덕의 빛이 우리의 온 가정과 사회 관계, 우리 친구들, 고객들, 심지어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의 대신덕은 모든 장소,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곧 건강이 좋을 때든 아플 때든, 실패의 순간에 지칠 때든, 우리가 사이 좋게 지내는 사람들과 있을 때든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한마디로 언제 어느 때나 사랑의 대신덕이 우리 행동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착한 영혼은 언제나 용서하고, 인내하고, 도와주려는 활기차고 단호하고 굳은 결심을 하며, 그 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애덕의 행위를 완성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는 바람, 사심 없이 사랑하려는 이러한 바람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렸다면, 영혼의 친교, 고해, 명상, 전체 기도 생활이 순조롭고 진실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B. Baur, In Silence with God, p.247)

애덕의 불이 계속 타게 하는 기름은 정성되고 사랑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곧 예수님과 이루는 친밀성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도 애덕을 자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메마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강렬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혼들 안에서 사랑이라는 첫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236)

## 2 선행의 광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결심은 사랑에서 생겨나며,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쉽게 포기하려는 태도는 스승을 따르려는 고귀한 이상이 매력을 잃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요구에

언제나 열려 있고 이기심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게 매우 솔직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삶의 방식에 매여 있고, 극기와 희생을 피하거나 개인적 만족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영혼은 온 마음으로 자신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바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금욕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러한 금욕 자체를 통해서 물질적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곤궁한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만, 사실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덧없는 칭찬을 보상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Homilies on the Gospels*, 12, 1). 그들은 올바른 지향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공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져라.” (시편 31,25)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때 사랑은 기다리는 우리를 찾아와 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것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그들의 등불이 마지막 순간까지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은 들어오라고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Sermon 93,6). 그들은 그들 삶의 핵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영혼이 이러한 각성의 태도를 상실하고, 소죄에 굴복하며, 주님과과의 우애가 식어가도록 내버려둘 때, 그 영혼은 그 자체를 비추거나 훌륭한 본보기로 영향을 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머물고 맙니다. 금욕의 정신을 포기하고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빛은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꺼져버립니다. “그 모든 용기 있는 노력과 악으로 기우는 본성을 힘겹게 극복하고도 어리석은 처녀들은 꺼진 등불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하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Homilies on the Gospels, 78, 2). 하느님의 사랑은 시작하였다고 주어지는 아니라 인내하며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때 주어집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그러나 결국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마태 25,12). 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준비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제때에 기름을 쓰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인색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낭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단 몇 분의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았나요? 왜 우리 가족의 의무를 등한시하나요? 기도할 때나 미사 참례를 할 때에 왜 그렇게 해치우듯이 하나요? 어째서 자신의 의무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행하지 않나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은 이것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사소한 일들이 바로 기름이요 연료입니다. 이것으로 등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Friends of God, 41)

그리스도를 언제나 더욱더 사랑하려는 열망,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우리의 결점과 약점에 맞서 싸우려는 자세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덕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기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취미 생활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애덕의 빛은 언제나 빛나야 합니다.

### 3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기

우리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각성의 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당신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순전히 물질적인 인생관이나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의 나쁜 본보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욕망의 무게를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뜨거운 애덕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돕는 형제는 어떠한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읍과 같습니다.” (성무일도, 사순제 4주일, 저녁기도 II, 청원기도(잠언 18,19) 참조). 하느님은 언제나 악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길을 밝혀주는 타오르는 등불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혈연이나 우정으로 묶인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형제적 관심으로 실곳을 마련해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날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이 그리스도인 신분에 맞지 않는 관습이나 습관에 빠지는 걸 볼 때마다 기회를 봐서 부드럽게 형제적 충고를 해주며, 그들의 가정생활이나 일의 향상을 위하여 몇 마디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우울해질 때는 재빨리 격려의 말을 해주며, 그들의 단점과 결점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성인이 말하듯이, “우리의 인사는 일종의 기도”(성 토마스 아퀴나스, Catena Aurea, I, 334쪽) 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영혼의 평화를 빕니다.

“형제를 돕는 형제는 어떠한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읍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혼인 잔치에, 측정할 길 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데려다 주시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탈렌트의 비유

(마태 25,14-30); (루카 19,11-27)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талан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талан트를 빼앗아 열 талан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마태 25,19-30)

## 태만의 죄

1 талан트의 비유.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관리인이자 주인이 아닙니다.

한 талан트는 은화 약 백 파운드에 달하는 값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였습니다. (2사무 12,30, 2열왕

18,14 참조). 주님 시대에는 한 탈렌트가 약 육천 펜스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으며, 복음에서 1 페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단지 한 탈렌트) 종조차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 가운데 첫째가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지능, 곧 자연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통해 창조주께 오르는 능력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의지, 곧 선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의 집으로 가는 우리 길의 방향을 정하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어서 시간의 선물, 곧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가족과 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재화를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도 훨씬 더 고귀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 자체에 참여하는 은총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총 생활은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고 성인의 통공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과 더욱 밀접히 결합된 삶으로 청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성사들의 은총, 특히 성체성사의 소중한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신 성모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와 열매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거기에 수반되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언젠가는 그에 대해 셈을 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재화의 관리자이며,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의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관리인 일을 청산하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단지 하느님의 선물들을 돌보아주는 관리인일 따름입니다.

생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관리인으로 보고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우리가 주인인 듯이 우리 자신의 안락과 이기심, 변덕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는 이 세상의 재화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시간 사용 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기혼자들은 자녀를 갖고 자녀들의 인간적 초자연적 교육을 돌보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하느님께서 부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의무입니다.

## 2 우리는 우리의 талан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땅이 잘 관리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며,

당신께서 주신 대로 되돌려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 보상은 엄청나다고 비유는 가르쳐 줍니다. 이곳 지상 생활의 ‘엄청난’ 재화는 천상의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앞의 두 종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талан트를 이용하여 두 배로 이익을 늘렸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의 입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곧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 지상 생활의 재화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언제나 ‘조금’입니다.

세 번째 종은, 반대로, 자신의 талан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시간을 낭비하였고 아무런 이익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태만에 젖어 있었고,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재화를 탕진하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그의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달리 바빴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에게 기대했던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사랑할 능력이 있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슬픔과 불행 속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재화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아

이익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할 수 있는데도 같은 일이나 직업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우애를 다지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편안함이나 자기본위의 잘못된 형태의 휴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숙시켜야 할 내면생활을 범속함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낭비한 기회들로 이어진 긴 대로를 보게 된다면,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안타깝게도 게으름이나 무관심 또는 이기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이는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고 싶어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성덕의 열매들, 곧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족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탈렌트로 거래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있어 자신의 탈렌트를 이용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것이며, 다른 아이들의 빈둥거림에 어리석게 현혹되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명성을 얻게 되면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 노동자들, 주부들에게 있어 자신의 탈렌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특히

다양하게 우리의 보호를 받아왔던 사람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기 형제들 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면서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새들이 와서 곡식을 먹어치워도 겁을 줘서 쫓아 버리지도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Miscellanea Augustianensis*, I, p.568 참조)

우리는 공부든 일이든 어느 쪽이든 그 질을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을 주님 은총의 도움으로 결단력 있게 대처할 준비를 갖추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 3 태만. 사회생활과 공공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우리의 талан트를 이용하는 것에는 모든 측면의 사적 공적 생활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히 살려는 노력은 우리의 인격을 모든 측면에서 발전시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나 친구를 사귀는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추진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질들을 발휘하여, 우리의 친지나 친구 또는 동료들을 인간적 영성적 직업적으로 향상시켜 주거나 예를 들면 그들이 가정의 의무를 다하도록 이끄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들 가운데는 몇몇 친구나 아픈 친지에게 다시 성사를 보도록 이끄는 촉매가 될 수 있는 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의 관리자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그 재화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것들을 불필요하거나 심지어는 해로운 것을 사는 데 탕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돕는 일과 그 모든 자선 활동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자선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마태 25,35 이하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우리가 공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강하게 표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능력에 따라 전문직 단체나 학부모 -교사 단체, 노동조합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명 수호, 교육, 가족법과 같은 근본 문제들에서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원이나 전문 지식의 한계로 힘겨운 싸움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선물들, 곧 하느님과 다른 이들이 인정하고 설행 주는 무수한 평범한 사건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사건들에서 많은

것을 짜낼 낼 수 있습니다.

잡은 고해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약화시키는 태만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잡은 고해를 실천하는 사람은 특히 등한시되는 의무들(그러한 의무들이 흔히는 작은 것들일지라도), 무시되는 영감들과 은총들, 사용되지 못한 선행의 기회들, 낭비된 시간,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태만들에 대해 깊고 진실한 통회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고의로 저지른 가장 작은 태만의 죄라도 진심으로 배격하려는 굳은 마음을 먹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심으로 고해를 보러 간다면, 사제의 사죄경과 함께 우리의 태만의 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러한 죄들을 더욱 열심히 배격하기 위한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B. Baur, Frequent Confession). 성사의 은총과 영성 지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이나 죄를 회피하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위한 열매들로 채우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 색인

ㄱ

가정 기도 523  
가정 내 신심 행위 526  
개으름 219  
겸손 451, 554, 629  
고통 482, 490  
고해 447  
고해성사 139, 320  
고행 126, 493  
공로 58  
관대함 285, 558  
교리 334, 616  
교회 144, 357  
교회의 초자연적 사명 181  
그릇된 슬기로운 194  
그리스도 82, 419, 433, 469  
그리스도의 신성 469  
금욕 656  
기계적 일상 586  
기도 162, 412, 607  
기적 294, 497  
기회 616

ㄴ

놓친 기회들 116

ㄷ

덕 96, 190, 368  
독신 543  
동정 541

ㄹ

마리아 72  
말 383  
명성 629  
모범 268, 328, 344, 370  
목주 기도 528  
물질적 재화 415  
물질적 행복 482  
미사 535  
믿음 419, 497

ㄴ

보편적 65  
복음 377  
봉헌 61, 91  
부르심 91, 349  
부름 342  
부모 208

ㄷ

사도 66, 347, 433  
사랑 225, 488, 516, 593, 643, 653  
사제에 대한 존경심. 177  
사제직 171  
사회의 선익 511  
새 포도주 135  
생명 158  
선한 이들의 반대 49  
선한 일 56  
성덕 362  
성모 274, 307  
성소 541  
성실 408  
성실성 84  
성체 427, 589  
성체성사 398  
성체 조배 430  
성화 404

소리 기도 169  
소명 304, 384  
소죄 324  
순결 546  
순응성 624  
순종 37, 281  
슬기로움 190  
슬픔 245  
시간의 올바른 사용 239  
시민 506  
신심 219  
신앙 419  
신앙의 눈 121  
신영성체 430  
십자가 479, 488  
싸움 640

○

아버지 하느님 251  
애덕 613, 655  
양심 202  
양심 성찰 216, 637  
어린 시절의 삶 552  
어린이 549  
여가 388  
역경 264  
열매 37, 166  
영성 지도 619  
영성체 401, 427, 586  
영적 유년기 554  
영적 지도 279  
예수님과의 우정 602  
용기 368  
용서 537  
유혹 640  
은총 72, 277, 316, 499, 663  
응답 316, 353

이웃 268, 593  
이해 부족 51  
인간적 측면 366  
인내 84  
일 607  
일치 347

ㄱ

자녀의 성소 208  
자비 187, 271, 285, 290  
자유 208, 435  
작은 일 406  
장애물 262, 499  
재화 235  
절제 327  
정결 442  
정의 187  
조언 구하기 192  
죄 156, 243, 271, 320, 359, 596, 662  
주님의 명에 259  
죽음 154  
지상 것 237  
진리 204, 296  
진리에 대한 사랑 199  
진정성 624

ㄴ

참회 221, 248  
책임감 305  
초기 그리스도인들 508  
초연함 239, 313  
초자연적 상급 56  
치유 461

ㄷ

태만 662

투쟁 279  
특은 532

교

파견 69  
평화 46, 99

ㅎ

하느님과 일치 311  
하느님에 대한 사랑 228  
하느님에 대한 신뢰 109  
하느님의 뜻 42, 253  
하느님의 자녀 254  
하느님의 자녀됨 412, 552  
하느님의 침묵 106  
하느님 자녀됨 256  
하느님 현존 603  
행동 501, 610  
현대의 이교 482  
혼인 541  
회개 137, 243  
휴식 388  
희생 313

